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9. **6** Vol. 210



부산시립극단 '지금...여기!'

 부산문화회관
www.bsulture.busan.kr

부산의 문화저변 확대와 21세기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특성에 알맞은
이상적인 명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명칭 공모

주 제 : 부산의 대표적인 예술의 전당으로서 3개의 공연장(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특성을 부각시키고, 독창적이고 특화될 수 있는 명칭과 의미

접수기간 : 2009. 5. 25 ~ 6. 12

응모방법

- 응모자격 : 부산시민 누구나
- 접수방법 : 1인 3작품이내
 - 우편/방문 접수
 - (우)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극장 명칭 공모 담당자(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FAX 접수 : **051-607-6204**(팩스 송부 후 전화 확인 요망)
 - E-mail접수 : **choisgjn@korea.kr**(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제출서식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자유서식도 가능
(자유서식은 명칭, 제안사유, 기본인적사항은 반드시 포함)
- 표기형식 : 국문, 영문 또는 국·영문 혼용 가능
- 문의전화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051-607-6051)

당선작 발표 및 시상

- 당선작 발표 : 2009. 7. 3(금)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시상내역 : 당선작 1명 30만원(상당 문화상품권)
우수작 2명 각 20만원(상당 문화상품권)
장려 5명 각 5만원(상당 문화상품권)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부산시에 귀속됨
- 응모작은 순수한 창작품이어야 하며, 표절이나 타 공모전 수상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 동일한 명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접수순서가 빠른 작품을 선정함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싱그러운 유월의 클래식

2009 Dynamic Busan Grand Concert

다이나믹 부산 그랜드 콘서트



바이올린_단 첸 코



소프라노_김 정 아



테너_강 학 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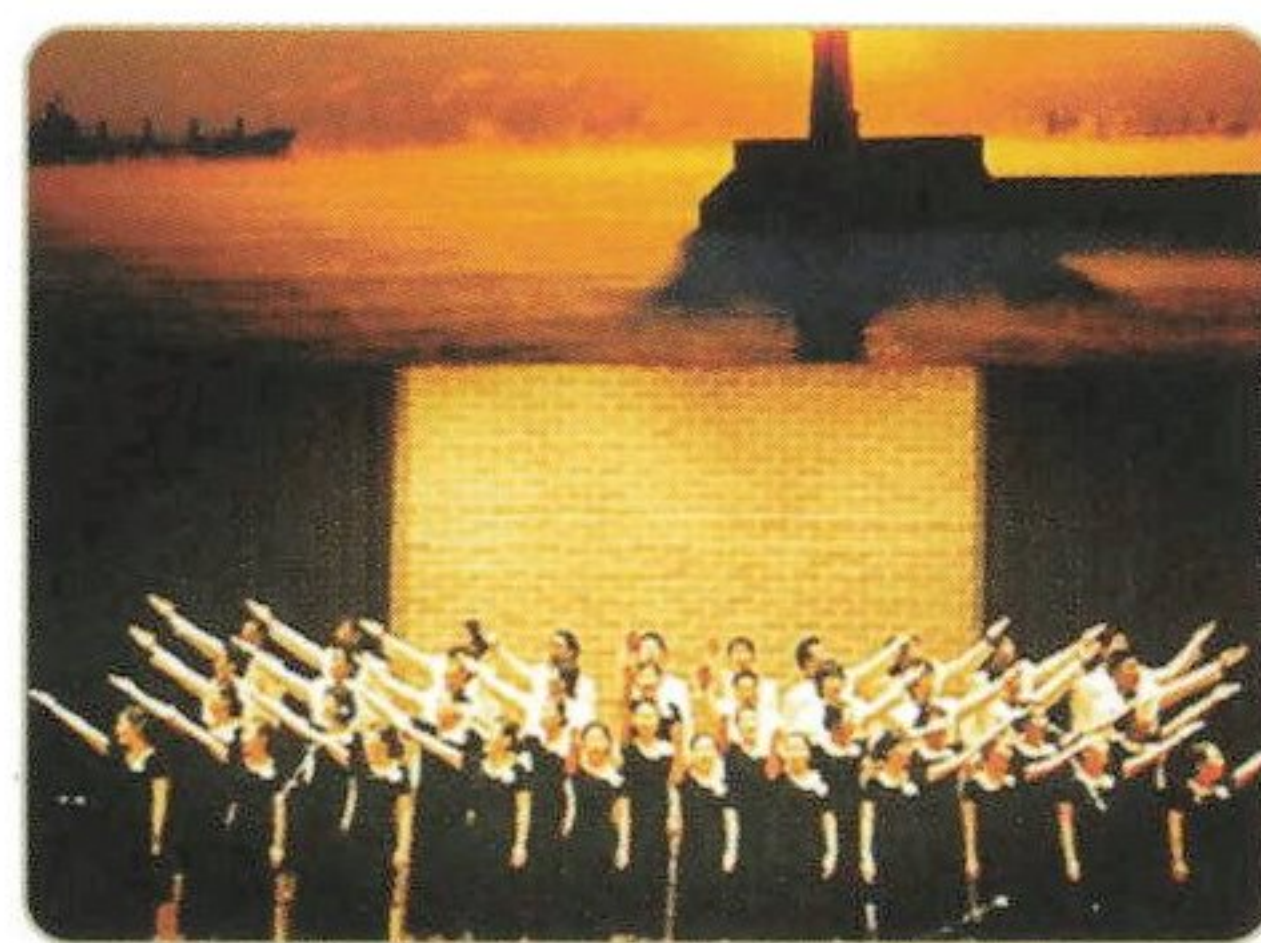
바리톤_박 대 용



지휘_오 충 근

PROGRAM

차이코프스키_ 1812년 서곡
 도니제티_ “린다 디 샤모니” 중 <오 내 마음의 빛이여>
 브루흐_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G단조 Op.26
 비 제_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푸치니_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오르프_ “카르미나 부라나” 중 <운명의 여신이여>외 수곡



합창_고신대 합창단



합창_경성대 합창단



2009년 6월 16일(화)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협찬 BS 부산은행 초대권 문의 010-8508-8310

 YAMAHA



부산야마하
피아노/악기

전문 판매점



학교, 교회, 전공자 특별 우대 및 중고피아노 보상판매

피아노 조율 전문점

- 국가공인 1급 피아노 조율사의 집
- 일본 YAMAHA본사(하마마츠)조율학교 수석졸업
-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공식 지정업체

야마하 피아노사 부산점	051-863-0900
메가마트 피아노사 남천점(4F)	051-622-0815
메가마트 피아노사 동래점(3F)	051-582-0808
사직동 홈플러스 피아노사	051-506-7332
해운대 홈플러스 피아노사(수영만)	051-743-7785
해운대 야마하 뮤직스쿨	051-741-7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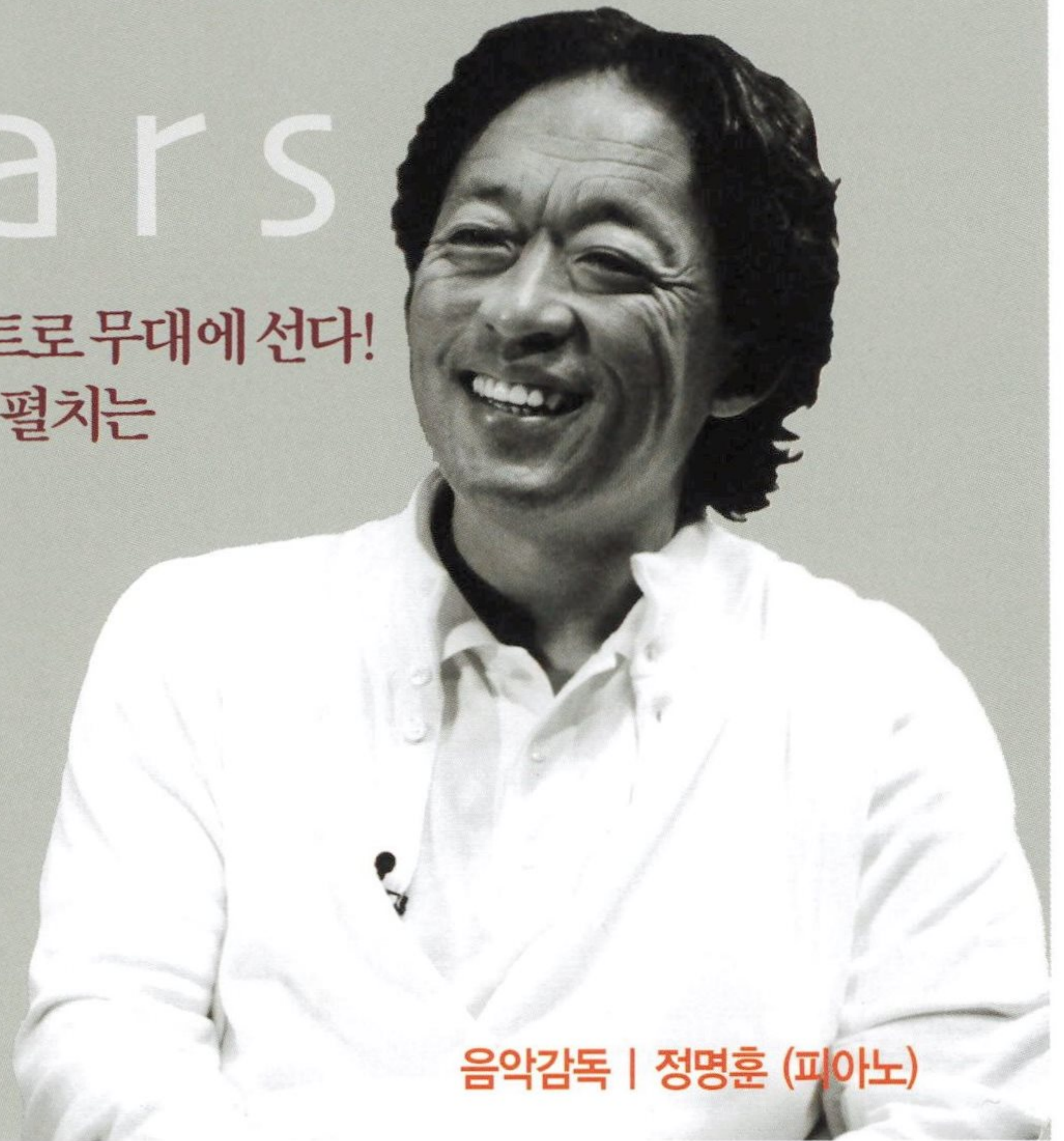
한국 기악 최고 스타들의 눈부신 앙상블

7인의 음악인들

피아노 | 정명훈, 김선욱 바이올린 | 이유라, 김수연 첼로 | 양성원, 송영훈 비올라 | 최은식

Seven Stars

세계가 사랑하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올 여름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선다!
그가 선택한 6명의 한국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100분간 펼쳐는
〈7인의 음악인들〉 부산공연!
그 흔치 않은 감동의 무대를 놓치지 마십시오!!



음악감독 | 정명훈 (피아노)

2009년 8월 23일(일) 오후 7시 **KBS부산홀**



Vc. 송영훈

Vc. 양성원

Va. 최은식

Vn. 김수연

Vn. 이유라

Pf. 김선욱

주 최/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7-1536 www.busanarts.com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ticketlink 티켓링크 1588-7890, 부산은행 전지점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1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B석 제외). (KBS홀 무대는 클래식 공연에 필요한 최적의 음향환경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음악회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7-1536

George Winston Solo Piano Concert In Busan

조지 윈스턴

내한공연

SUMMER



2009. 6. 27 (토) 7: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VIP 88,000원 / R 77,000원 / S 55,000원 / A 33,000원

공연문의

주최 부산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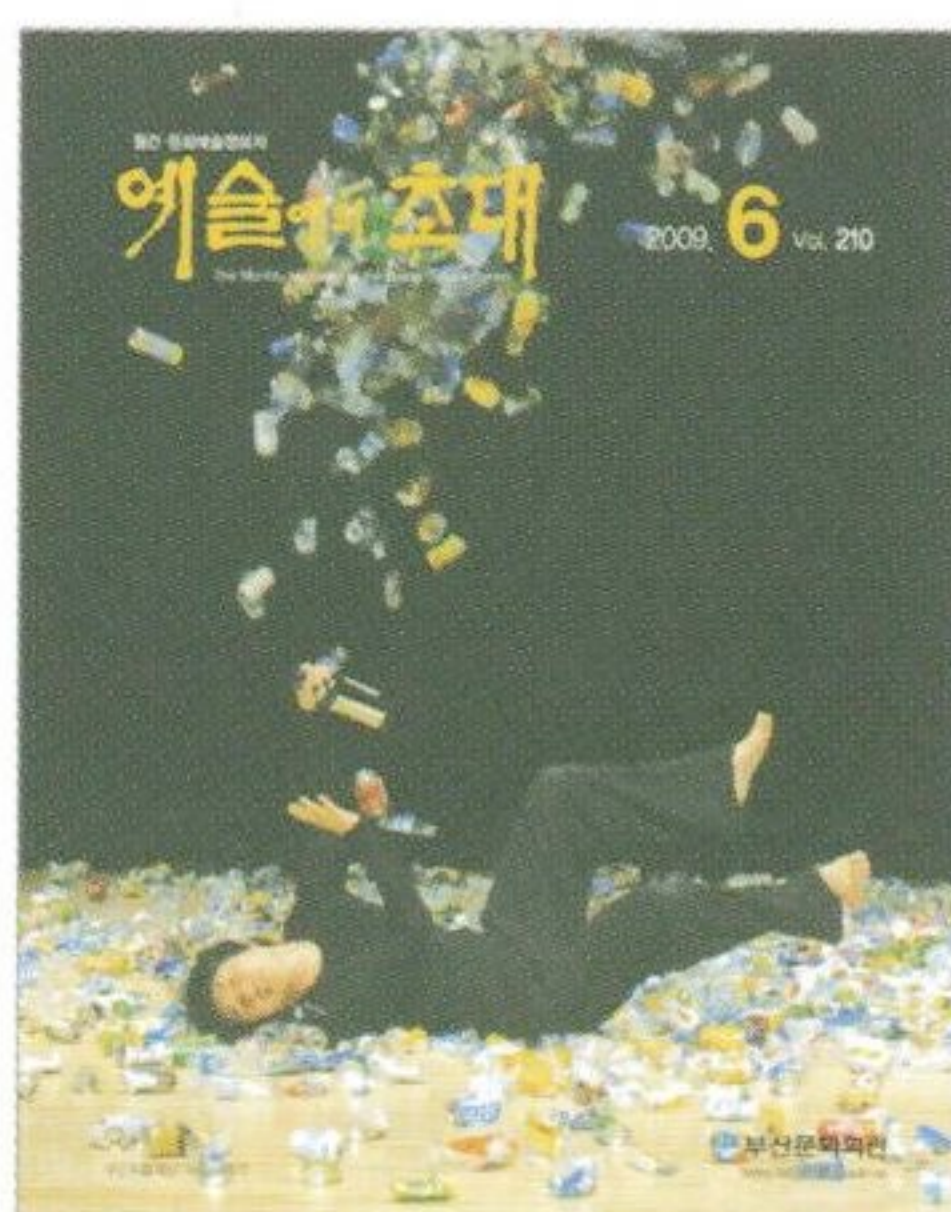
주관 SM기획

예매 BS 팝부산 인터파크 AUCTION 티켓 ticketlink 맥스티켓 BS 부산은행 전자점

1600-1602



- 08 커버스토리 _ 부산시립극단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 10 프리뷰
- 16 반갑습니다 _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10대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 19 불멸의 거장, 말러 _ 구스타프 말러와 세기의 빈 · 김문경
- 20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혼돈속에서 끝없이 진화하는 작가
리양슈오(梁碩) · 박건해
- 24 행복한 오페라 여행 _ 도니제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 김홍승
- 26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_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 그 흔적들 '마더웰' · 채경혜
- 28 황윤기의 월드뮤직 여행 _ 그리스Ⅱ 램베티카와 부주키 · 황윤기
- 29 우리는 문화가족 _ 오아시스 심포니오케스트라
- 30 리뷰 _ 홀눈의 현실, 겹눈의 그림-방정아 개인전 <어둠> · 김만석
지독하고 순수한 두 편의 독립영화 <똥파리>와 <오디션> · 김희진
- 32 그곳에 가면 _ 전통한옥의 맥을 잇는다 '청도한옥학교'
- 34 프로그램 가이드
- 50 새로 나온 음반
- 51 새로 나온 책
- 52 나의 애청음반 _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가장조 작품 114 D.667 '송어' · 김중옥
- 53 100자 토크
-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 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 5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2009. 6 Vol.210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6079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9년 5월 25일

인쇄처 한글그라픽스 TEL. 051-632-7842 FAX. 051-639-0305

표지설명

루마니아 출신의 프랑스 작가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부산시립극단 제 35회 정기공연 '지금...여기!' 한국 초연무대가 6월 4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2009. 6 JUN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day 일요일

Monday 월요일

Tuesday 화요일

01

02

소 | 소프라노 서경숙 제자음악회 19:30
무료/서경숙(010-2655-6105)

03

07

중 | 청소년 협연의 밤 17:00
무료/조삼선(016-844-3459)

08

대 | CBS 여성성가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김혜정(010-9607-3044)

중 | 조영문, 차미소란 피아노 듀오콘서트 19:30
초대/조영문(011-9529-1784)

09

중 |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Ⅲ '오페라와 11시에 만나요-푸치니의 여인들'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피아니스트 박미은 독주회 19:30
초대/부산문화(633-8990)

소 | 부산시립극단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기획공연 젊은 연출 공모 당선작 '의자'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7)

14

소 | 제 19회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 부산예선 14:00
무료/재단법인 재능문화(862-5661)

15

대 | UKO 제 13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정희재(731-4470, 011-589-3111)

중 | 송영훈 오리지널 탱고 부산 20:00
5만5천원 · 4만4천원 · 2만2천원
더 스톱프(02-2658-3546)

소 | 부산시립극단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기획공연 젊은 연출 공모 당선작 '왕은 죽어간다-레퀴엠'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7)

16

대 | 한낮의 유콘서트 11:00
균일 1만5천원/국제신문(500-522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2009 다이내믹 부산-그랜드콘서트' 19:30
초대/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010-8508-8310)

중 | 레이디스 필 앙상블 정기연주회 '레이디스 필과 먼저 만나는 여름이야기' 19:30
균일 1만원/예은예술기획(627-2572)

21

소 | 작은 천사들의 희망콘서트 17:00
무료/차현희(644-7228, 011-862-0980)

22

대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중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소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23

대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중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소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28

중 |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5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7-8088)

29

30

소 | JY바이올린 클래스연주회 19:30
무료/권진영(010-5551-5221)

국제회의장

- ▶ 제 3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시상식
6월 12일(금) 오후 2:00
문의 : (사)국민예술협회
(245-2521, 011-845-9599)
- ▶ 제 5회 국제종합예술대전 시상식
6월 20일(토) 오후 2:00
문의 : 한서미술협회
(811-1238, 010-2582-4201)

전시실

- ▶ 제 13회 부산회화제 - 대 · 중전시실
6월 1일(월)~6월 7일(일)
문의 : 부산미술협회(632-2400)
- ▶ 제 3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 대전시실
6월 12일(금)~6월 16일(화)
문의 : (사)국민예술협회
(245-2521, 011-845-9599)
- ▶ 제 5회 국제종합예술대전 - 중전시실
6월 20일(토)~6월 22일(월)
문의 : 한서미술협회
(811-1238, 010-2582-4201)
- ▶ 제 18회 부산한국화전 - 대전시실
6월 22일(월)~6월 28일(일)
문의 : 부산미술협회(632-2400)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607-6070)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Wednesday 수요일

03
대 |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19:30 15만원 ·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011-9250-4649)
중 | 제 5회 부산국제무용제 개막축하공연 19:30
 균일 3만원/부산국제무용제(515-2949)

10
소 | 부산시립극단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기획공연 젊은 연출 공모 당선작 '의자'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7)

17

24
대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중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소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7/1
중 | 유나이티드 코리아오케스트라(UKO) 청소년협주곡의 밤 19:30
 초대/정희자(731-4470, 011-589-3111)

Thursday 목요일

04
대 |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19:30 15만원 ·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011-9250-4649)
중 | 제 5회 부산국제무용제 폐막공연 19:30
 균일 3만원/부산국제무용제(515-2949)
소 | 부산시립극단 제 35회 정기공연 '지금...여기!'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7)

11
중 | 한국-우크라이나 교류음악회 19:30
 1만원 · 5천원/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622-3336)
소 | 부산시립극단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기획공연 젊은 연출 공모 당선작 '의무의 희생자'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7)

18
대 | 부산시립합창단 제 129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 (607-6125)
중 | 고종진 클래식기타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부산문화(635-9081)

25
대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중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소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7/2
중 | 양육진 첼로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7-1536)

Friday 금요일

05
대 |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19:30 15만원 ·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011-9250-4649)
중 | 제 5회 동덕대학교 피아니스트 동문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동덕대학교 동문피아니스트협회(010-9470-0094)
소 | 부산시립극단 제 35회 정기공연 '지금...여기!'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7)

12
소 | 부산시립극단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기획공연 젊은 연출 공모 당선작 '의무의 희생자'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7)

19
대 | 멜로매니아 창단 15주년 기념 제 15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김성홍(011-9543-9378)
중 | 고종진 클래식기타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부산문화(635-9081)

26
대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0회 정기연주회 '제 10대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취임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중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소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7/3
대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중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소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Saturday 토요일

06
대 |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19:30 15만원 ·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011-9250-4649)
중 |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뮤클합창단 제 4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5천원/강영옥(010-2307-6922)
소 | 부산시립극단 제 35회 정기공연 '지금...여기!' 16: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7)

13
소 | 부산시립극단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기획공연 젊은 연출 공모 당선작 '의무의 희생자' 16: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7)

20
대 | 닥터스 빅밴드 제 8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
 강창욱(011-843-0987), 정홍기(016-561-6047)
중 | 오아시스 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19:00
 무료/이선길(017-575-5233)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6070)

27
대 | **2009 조지 윈스턴** 내한 공연 19:00
 8만 8천원 · 7만 7천원 · 5만 5천원 · 3만 3천원
 SM기획(1600-1602)
중 | 부산모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정홍기(016-561-6047)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해와 달과 별과 사랑'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6070)

7/4
대 | 박은주 First Concert in Busan 19:30
 15만원 · 12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솔로페라단(1544-9373)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6070)

2009년 6월 4일(목)~15일(월)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시립극단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이오네스코

지금...여기!
6월 4일~7일

의자
6월 9일~10일

의무의 희생자
6월 12일~13일

왕은 죽어가다-레퀴엠
6월 15일

2009년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금 전 세계에서 이오네스코 열풍이 불고 있다. 루마니아 출신의 프랑스 작가인 외젠 이오네스코는 세계적인 극작가이자 부조리극의 대가이다. 현대 연극 뿐만 아니라 20세기 예술과 사상계에 깊은 영향력을 끼친 이오네스코는 1950년 처녀희곡 '대머리 여가수(La Cantatrice chauve)' 를 시작으로 부조리극이라는 새로운 연극의 지평을 열었다. 그후 '수업(La Leçon)' (1951) '의자들(Les Chaises)' (1952) '의무의 희생자(Victimes du Devoir)' (1953) '이사온 하숙인(Le Nouveau locataire)' (1957) 등 전통적인 연극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실험적이고 반연극적인 작품들을 주로 발표했다.

6월 부산에서도 부산시립극단 제 35회 정기공연 무대에서 선보이는 이오네스코의 '지금...여기!' 한국 초연무대를 비롯해 부산시립극단 젊은 연출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의자' '의무의 희생자' '왕은 죽어가다-레퀴엠' 등 이오네스코의 화제작들을 만날 수 있다.



6월 4일부터 7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무대에 오르는 ‘지금… 여기!’ 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전쟁, 혁명과 무관심하게 집안에서 호사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공 이야기이다. 주인공에게는 평생 놀고먹을 만큼의 유산이 주어졌다. 새 집을 마련하고, 새 가구를 마련하고, 새 애인과 같이 산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혁명에 무관심하게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지만 시간이 흘러 애인은 떠나고, 새 가구들도 죄다 없어진다. 사람들도 늙고 죽어가고 주인공의 삶을 둘러싼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제거되고 난 다음 남는 것은 ‘영망진창이군’ 이라는 탄식 뿐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

연출을 맡은 김지용은 엄청난 유산상속을 받는 원작의 주인공을 로또에 당첨된 벼락부자로 각색, 물질에 병들어가는 인간군상을 그려낸다. 주인공으로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황창기가 열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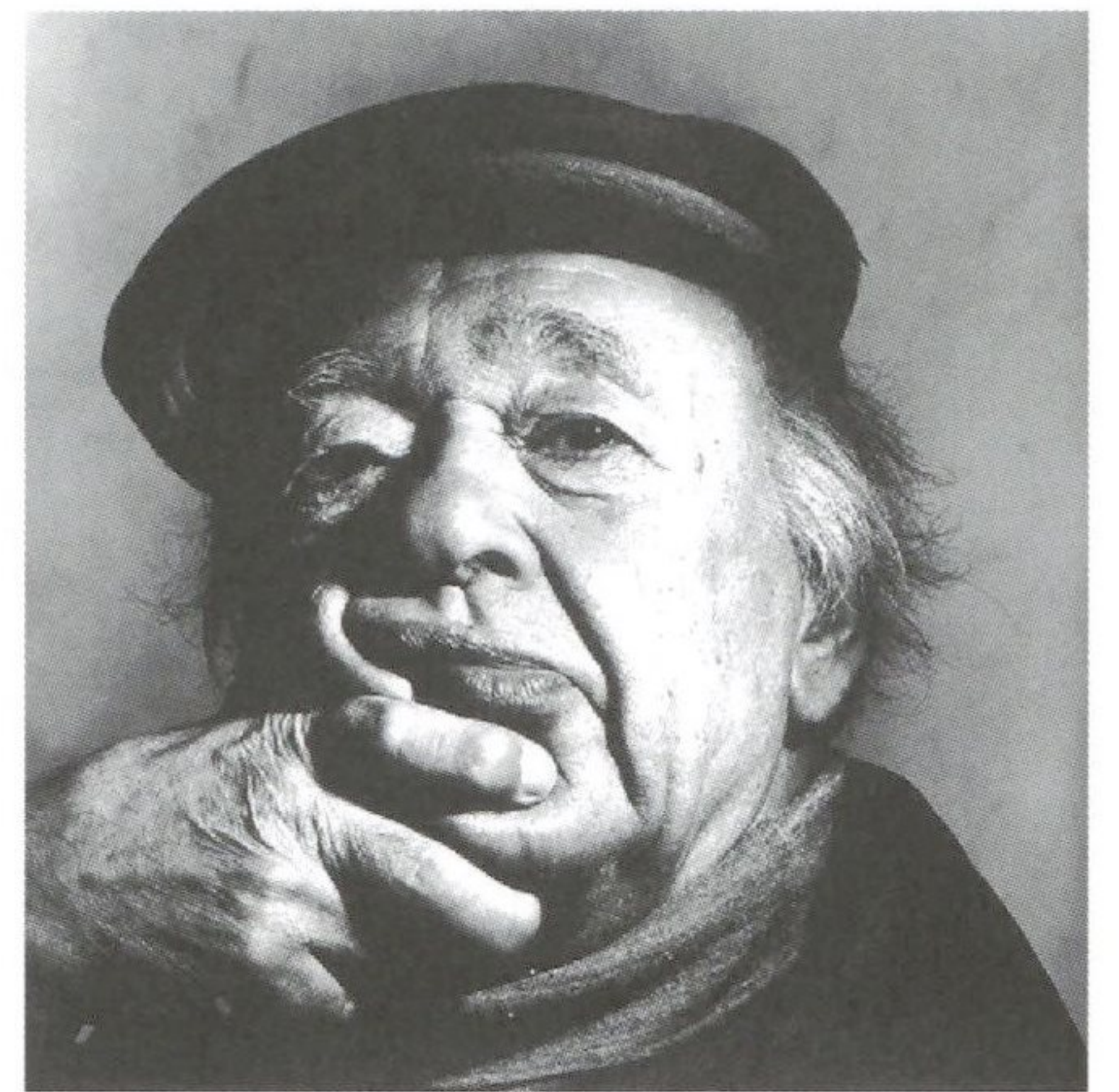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김지용은 제 23회 부산연극제 희곡상(PLAY-Oasis), 2006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 당선(가출소녀 우주 여행기), 제 24회 부산연극제 최우수 작품상, 희곡상, 연출상(PLAY5-Mankind history), 제 24회 전국연극제 금상(PLAY5-Mankind history)을 수상했다. 200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이 당선되기도 한 김지용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M.F.A 과정에 재학 중이다.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에 이어 젊은 연출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의자’ (6월 9일~10일)는 오치운, ‘의무의 희생자’ (6월 12일~13일)는 구현철, ‘왕은 죽어가다-레퀴엠’ (6월 15일)은 심문섭 등 부산의 젊은 연출가 3인이 도전한다.

‘의자’ 는 ‘인생은 한편의 코미디’ 라는 설정에서 출발,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 끝없이 놀이를 펼치는 인물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는 수십 개의 의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들과 함께 무대 전체를 점령한다.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지하의 공간에 갇혀 있는 두 사람, 그들은 구출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연한 시간을 견디면서 살아가기 위해 매일 그들만의 놀이를 즐긴다.

1953년에 발표된 이오네스코의 ‘의무의 희생자(Victimes du Devoir)’ 는 연극(인간, 삶의 방식)의 의무와 한계를 주제의식으로 다룬 작품이다. 슈베르와 마들렌 부부는 뜻밖의 손님 수사관을 만나 ‘말로’ 라는 인물 찾기를 강요당한다. 극중극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은 끝도 없이 진행되며 만화경을 들여다보듯이 해괴하고 신비롭고 우스꽝스럽다. 지리멸렬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말로라는 인물은 찾을 수 없다. 말로 찾기를 강요당한 슈베르의 기억의 구멍을 확인할 뿐이다. 새로운 인물 니콜라스는 “드라마도 비극도 그만둬시다. 비극적인 것이 희극이 되고 희극적인 것이 비극이 되니 삶은 재미있어질거요”라며 이전의 연극이 사실적이고 추리적인 탐정극이었음을 비판한다.

베랑제 1세의 죽음을 소재로 한 ‘왕은 죽어가다-레퀴엠’ 은 베랑제 연작 네 편 중 1편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베랑제 1세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고 있다. 죽음의 과정에 놓여있는 베랑제 1세는 삶의 과정에 놓여있는 우리네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시립극단 단원 등 80여명의 배우가 생의 마지막 의식인 ‘죽음’ 을 준비하는 베랑제 1세의 긴 여행을 담아낸다.



이오네스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2009 웰빙 콘서트 시리즈Ⅲ

오페라와 11시에 만나요! '푸치니의 여인들'

●6월 9일 화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해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09 웰빙콘서트 시리즈 3번째 무대 '오페라와 11시에 만나요!-푸치니의 여인들'이 6월 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오페라의 거장 푸치니의 주요 오페라에 등장하는 사랑의 장면을 부산시립극단 연기자들의 콩트와 소프라노, 테너의 화려한 음성으로 들려준다.

푸치니는 아름답고 극적 효과를 고조하는 데 뛰어난 작곡가로 이탈리아 오페라 전통과 격식을 갖고 우아하고 풍부한 선율을 마음껏 표현했다. 그 감정의 묘를 극도로 다한 아름다운 아리아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마농레스코' 간주곡을 시작으로 푸치니 3대 오페라로 불리는 '라 보엠' '나비부인' '토스카'의 주요 아리아와 '투란도트' '마농레스코'의 주요 아리아 중 사랑의 선율들을 선곡했다.

미미와 루돌프의 슬픈 사랑을 그린 오페라 '라보엠'에서는 테너 홍지형이 '그대의 찬 손', 소프라노 이정아가 '내 이름은 미미' 이정아, 홍지형이 '사랑의 이중창'을 노래한다. 오페라 '토스카'에서

는 소프라노 김유섬과 테너 전병호가 '마리오, 마리오'를, 미국 해군장교 핀커톤에게 버림받은 일본인 나비부인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오페라 '나비 부인'에서는 소프라노 이정아와 테너 김지호가 '핀커톤과 초초상의 이중창'을 노래한다. 또 프랑스 작가 아베 프레보의 동명소설 '마농레스코'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 '마농레스코'에서는 테너 김지호가 '일찍이 보지 못한 미인'을 들려주고, 아름답고 차가운 공주 투란도트를 그린 오페라 '투란도트'에서는 소프라노 김유섬이 '들어주십시오', 테너 홍지형이 '류여, 울지마라!'를 노래한다.

해설을 맡은 장일범은 월간 객석 기사를 역임하고 현재 KBS 클래식FM '장일범의 생생 클래식', CBS-TV On stage 'Forte', 고양아람누리 토크쇼 '장일범의 예술가와 만나고 싶다',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등 진행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콩트 : 부산시립극단

- ▶ 관람료 _ 균일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20% 할인됩니다.)
- ▶ 문 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지휘 이동신



해설 장일범



소프라노 김유섬



소프라노 이정아



테너 김지호



테너 전병호



테너 홍지형

부산시립합창단 제 129회 정기연주회

펠릭스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

●6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매년 조국을 지켜낸 선열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이 올해는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을 맞아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Elijah)’를 연주한다.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김강규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바리톤 정록기와 대구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대형 무대로, 오라토리오 특유의 장중한 무대를 선사한다.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평가받고 있는 오라토리오 ‘엘리아’는 독일 낭만파가 낳은 최대의 작품이다. 1845년 완성되어 이듬해 초연된 이 작품은 작곡가 바흐와 헨델의 종교작품에 영향을 받아 푸가를 이용한 충실한 구성미와 로맨틱한 선율, 색채적 관현악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신(神)이다’는 뜻을 지닌 ‘엘리아’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아를 소재로, 1부에서는 이단 신 바알을 물리쳐 여호와의 노여움을 풀고 이스라엘 민중을 가뭄에서 구하는 이야기가, 2부에서는 박해를 빠져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대사를 완수하고 살아서 승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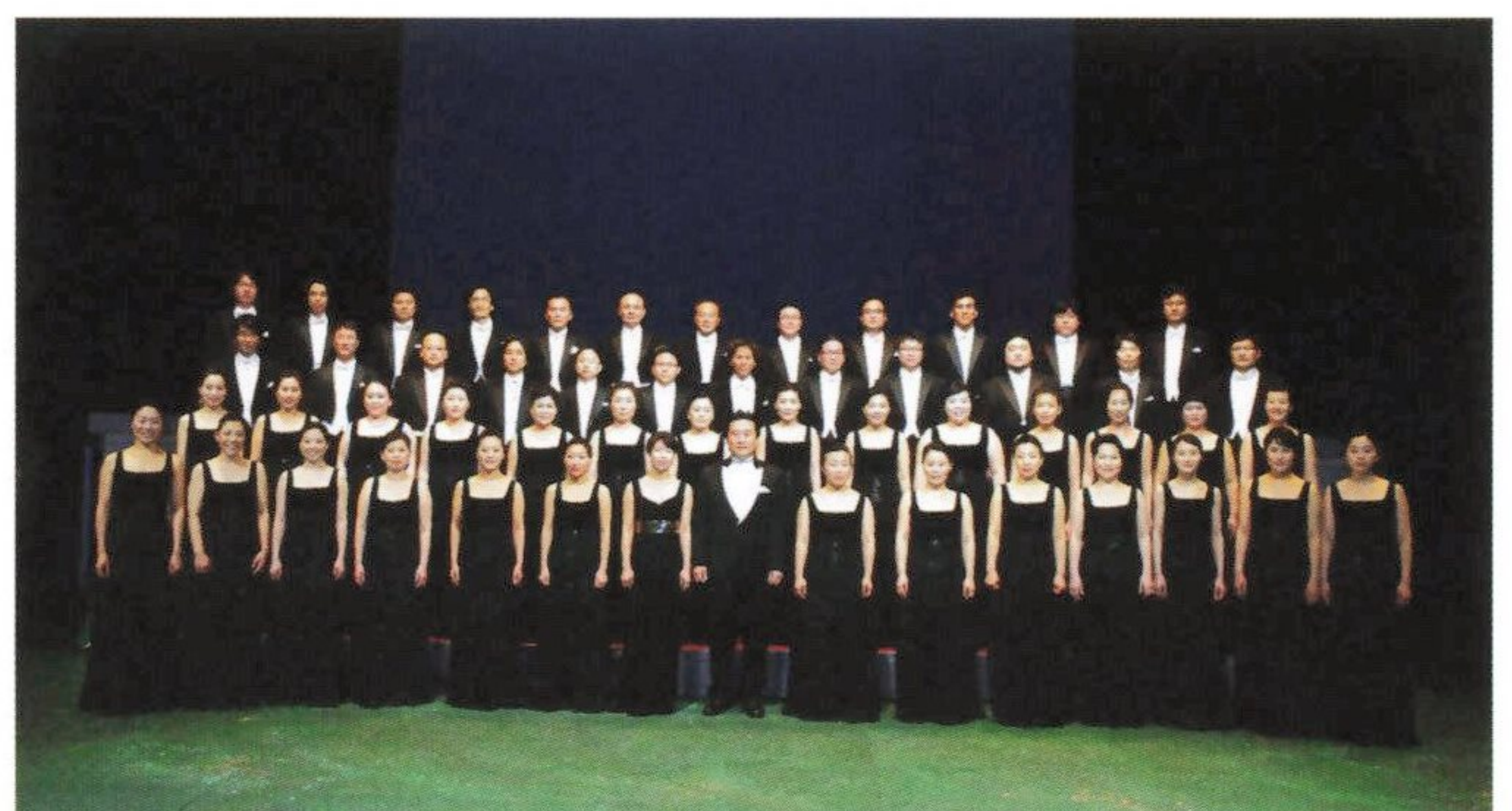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는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정록기가 오라토리오 베이스 독창자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한양대학교와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정록기는 뮌헨콩쿠르, 슈만콩쿠르, 볼프콩쿠르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2007년 일본 문화청 주관 예술상 음악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록기는 그동안 함부르크 무직할레, 런던 위그모어홀, 에딘버러 페스티벌, 파리 루브르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취리히 톤할레, 밀라노 아우디토리움, 피렌체 가극장, 토론토 마세이홀, 도쿄 아사히홀 등 유명 연주홀에서 연주회를 가져왔다. 정록기 외 나머지 솔로는 부산시립합창단 수석, 부수석을 포함한 단원들이 맡는다.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서는 대구시립합창단은 1981년 창단 이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대구를 대표하는 시립합창단으로,

우리합창음악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2001년 싱가포르 세계합창제에 초청받아 국제적 수준의 합창단으로 거듭나기도 한 대구시립합창단은 현재 상임지휘자 박영호를 중심으로 6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시오)

▶ 문 의 _ 부산시립합창단(607-6125)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7회 정기연주회

풍향

●6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우리 국악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전 국립국악원 원장 김철호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7회 정기연주회가 6월 25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풍향'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작곡가 김희조, 김대성, 백대웅, 이준호의 다양한 창작음악과 부산대학교 박환영 교수가 편곡한 이생강류 대금산조 협주곡 '죽향(竹香)'을 들려준다.

객원지휘자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처음 무대에 서는 지휘자 김철호는 서울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하고 청주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상임지휘자,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휘자를 역임했다. 국립국악원 제 14대, 제 15대 원장을 역임한 그는 2008년 한국예술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첫 무대를 여는 김희조 곡 '합주곡 1번'은 소금과 대금, 피리, 해금, 가야금, 거문고, 대아쟁, 장구, 북, 징, 목탁 등의 악기로 구성된 현대판 시나위 곡이다. 이 곡은 계면조의 음 구성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어 잘못하면 산만한 연주가 되기 쉽기에 연주자들의 기량이 요구되는 곡이다.

이어서 연주되는 김대성 곡 관현악 '선부리'는 1998년 작곡된 곡으로, 경기도당굿 특유의 장단과 선율을 엿볼 수 있는 곡이다. 이번에 연주되는 곡은 2006년 개작된 곡으로, 아쟁과 베이스, 25현 가야금 등 악기편성을 늘였으며, 악곡의 장단구성에도 변화를 주었다. 작품명인 '선부리'는 진도풍물의 시작을 알리는 장단 이름으로, 이 곡에서는 느린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세 번째 연주곡인 백대성 곡 '연변목가'는 연변작곡가인 안국민 작곡 '연변목가'라는 노래를 주제로, 중국 연변의 평화로운 농촌풍경을 그린 관현악곡이다. 굿거리, 엇모리, 자진모리, 동살풀이 등 여러 장단들이 목가적인 곡의 풍경과 함께 곡의 흐름을 이끈다.

이생강류 대금산조는 대금이 갖는 본래 소리에 가장 충실하

면서도 대금산조의 세계를 아주 화려하게 표현한 곡으로, 다양한 테크닉과 표현력으로 대금산조를 대중화시킨 곡이다. 이번 무대에서 연주되는 박환영 편곡 '죽향(竹香)'은 솔로가 관현악에 묻히지 않도록 중점을 두어 이생강류 대금산조를 아주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곡명인 '죽향(竹香)'은 이생강 선생의 아호이다.

협연자 박환영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기도립국악단 악장을 역임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 종묘제례악과 제 45호 대금산조, 제 72호 진도씻김굿을 이수했으며, 제 3회 전국국악경연대회 기악부 1등, 제 3회 동아국악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마지막곡으로는 살갓을 스치는 바람의 부드러운 소리를 표현한 이준호 곡 생황협주곡 '풍향'을 들려준다. 전통관악기인 생황은 대나무관에서 울려나오는 아주 미묘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이 특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생황연구회 부회장이자 경기도립국악단 단원으로 있는 생황연주자 허지영이 쉽게 만날 수 없는 아름다운 생황 선율을 들려준다.



객원지휘 김철호



대금 박환영



생황 허지영

- ▶ 관람료 _ 선착순 무료입장
- ▶ 문 의 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6070)
을숙도문화회관(220-5342)

하이든 서거 200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0회 정기연주회 제 10대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취임연주회

● 6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10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하는 세계적인 지휘자 리 신차오 취임연주회가 6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20세의 나이로 중국 센트럴 필하모닉, 상하이 심포니 등 중국 내의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세계적인 지휘자 리 신차오는 1993년 제 1회 국립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하고, 1994부터 1996까지 국립오페라발레극장의 수석지휘자로 활동하며, '지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인형' '로미오와 줄리엣' '돈키호테' '코펠리아' '홍색낭자군' 등 수많은 발레를 성공적으로 지휘하였다. 리 신차오는 1996년에는 세계적인 지휘자 레오폴트 하거 교수의 초청으로 빈 음악대학의 고급 과정을 공부한 뒤, 1997년 하거의 부지휘자로서 빈 국립극장 공연을 위해 중국으로 돌아와 그 해 열린 제 45회 브장송국제지휘콩쿠르에서 결승까지 오르기도 했다.

1999년 빈에서 공부를 마친 후, 리는 곧 중국국립교향악단(CNSO)의 상임지휘자와 중국국립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임명되어 그 해 가을, 중국국립교향악단의 일본 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02년에는 수석지휘자로서 중국국립교향악단의 일본, 호주,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순회연주를 펼치기도 했다. 도쿄 공연 후 리 신차오는 언론으로부터 '마에스트로와 국립교향악단은 그 어떤 것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리의 지휘 스타일은 세이지 오자와를 닮았다' '마에스트로의 지휘를 보고 있노라면 동양의 음악인임에도 서구 음악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그를 보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다' 등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2006년 중국국립교향악단의 한국과 미국 순회연주회를 이끌기도 한 리 신차오는 미국 연주 후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으

로부터 '힘이 넘치는 지휘자 리 신차오는 이따금 그들만의 어법과 표현력으로 설득하면서도 여전히 서구 스타일을 놓지 않고 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2007년과 2008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두차례 객원지휘한 바 있는 리 신차오는 이번 취임연주회에서 R.슈트라우스 특유의 기법과 풍부한 표현이 잘 발휘된 교향시 '돈 후안' 작품 20, 빈 고전파를 대표하는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교향곡 제 96번 '기적', 말러의 대작 교향곡 제 1번 '거인' 을 들려준다.

교향곡 '거인' 은 당시 말러가 심취해있던 독일의 낭만파 작곡가 안 파울의 시 '거인' 에서 본뜬 것이지만, 작품 자체의 음악성은 가요적이면서 서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고, 또 말러의 전작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 의 선율도 이용되고 있어 제목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 연주시간은 50분에 이른다.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시오)

▶ 문 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10대 수석지휘자

세계적인 지휘자 리 신차오



20세의 나이로 중국 센트럴 필하모닉, 상하이 심포니 등 중국 정상급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한 세계적인 지휘자 리 신차오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10대 수석지휘자로 부산 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두 차례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한 바 있는 리 신차오는 1993년 제 1회 중국국립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하고, 1994부터 1996년까지 중국국립오페라 발레극장의 수석지휘자로 활동하

며, 수많은 발레작품을 지휘했다. 1996년 비엔나로 유학, 비엔나 음악대학 고급과정을 마친 뒤 제 45회 브장송 국제지휘 콩쿠르 결승에 오른 그는 1999년 귀국, 중국국립교향악단(CNSO)의 상임지휘자, 중국국립가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객원지휘하며 세계 무대에서 찬사를 받아온 리 신차오는 2003년 거장 로스트로포비치 초청 공연의

지휘를 위해 대만 공연을 가진 후에 로스트로포비치로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지휘자, 신은 그에게 재능을 주었다’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2006년 중국국립교향악단의 한국과 미국 순회연주회를 이끌기도 한 리 신차오는 특히, 미국 연주 후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으로부터 ‘힘이 넘치는 지휘자 리 신차오는 이따금 그들만의 어법과 표현력으로 설득하면서도 여전히 서구 스타일을 놓지 않고 있다’, ‘리 신차오는 고향에서 가져온 모든 것으로 훌륭히 적응하는 지휘자임을 증명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6월 26일 취임연주에 앞서 부산음악애호가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신임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이메일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맡게 된 소감?**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두 차례 지휘한 바 있습니다. 처음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지휘했을 때, 마치 오래 전부터 알아 온 친구를 만난 듯 낯설지 않고 친숙했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미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오케스트라이며, 아울러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을 꿈꿀 수 있는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부산생활이 기대됩니다.

▶ **20대에 정상급 지휘자로 평가 받았고 어느새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지휘자로 추구해온 음악이 있다면?**

클래식 음악을 한다는 것은 지휘자, 연주자, 성악가 등 모든 음악인에게 있어 기나긴 여정과 같습니다. 음악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전되고, 향상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음악가들이 꾸준히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자로서 저는 꾸준히 경험과 레퍼토리를 쌓아나가고 또 오케스트라를 잘 경영함으로써 그 오케스트라가 모든 면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브장송 지휘콩쿠르에서 부터 지금까지 세계무대에서 아시아 지휘자로서 벽을 느낀 경우가 있는가요?**

상을 타든 그렇지 못하든, 콩쿠르라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의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라 생각합니다. 문이 열리면, 저는 언제나 도전해야 합니다. 콩쿠르에서 수상했다는 사실 자체는 성공을 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승 메달보다는 실질적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하고 싶은 음악은?**

앞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어떤 음악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첫째, 부단한 연습을 통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고전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둘째, 한국의 뛰어난 작곡가들의 현대곡을 연구, 개발해서 연주하고 싶습니다. 셋째, 중국에서 오페라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오페라라는 장르를 보다 폭넓게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내면의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뛰어난 기교를 가진 오케스트라라고 하더라도 오케스트라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표현력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면 어떤 음악을 연주하든 청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 **부산은 몇 번째 방문인지, 부산에 대한 인상이 궁금합니다.**

부산은 2007년 9월 부산시립교향악단을 객원지휘하면서 처음 방문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객원 지휘 때문에 한차례 더 방문했는데 부산은 방문할 때마다 깨끗하고 공기가 맑은 아름다운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다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부산은 일하기에도, 살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지난 방문 때는 공연 때문에 호텔과 부산문화회관 외 다른 곳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부산에서 맛본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기억납니다.



로스트포비치와 함께 연주한 리 신차오



리 신차오는 비범한 통찰력을 가진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앞으로의 계획은?

보통 지휘자들이 어떤 오케스트라를 새롭게 맡게 되면, 먼저 그 구성원들과 다양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오케스트라에 적응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개개인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선 전임 지휘자가 쌓아온 전체 오케스트라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오케스트라의 색깔을 유지해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인데, 새 지휘자가 전 단원들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적응을 하게 되면, 전체가 하나가 되는 데에는 또다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팀워크와 전통을 믿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흔히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스타일은 지휘자가 만들어간다고 합니다만, 훌륭한 객원 지휘자를 초청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오케스트라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 취임연주 레퍼토리로 R. 슈트라우스, 하이든, 말러 곡을 선정한 이유와 곡의 감상 포인트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로, 이전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을 객원 지휘했을 때도 중요하게 다룬 바 있습니다. ‘돈 후안’은 이번 음악회의 오프닝 곡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든 교향곡 제 96번은 특히 제 3악장이 관객들께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표제가 ‘기적’이라 붙은 만큼, 음악을 들으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즐겁고 평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올해가 하이든 서거 2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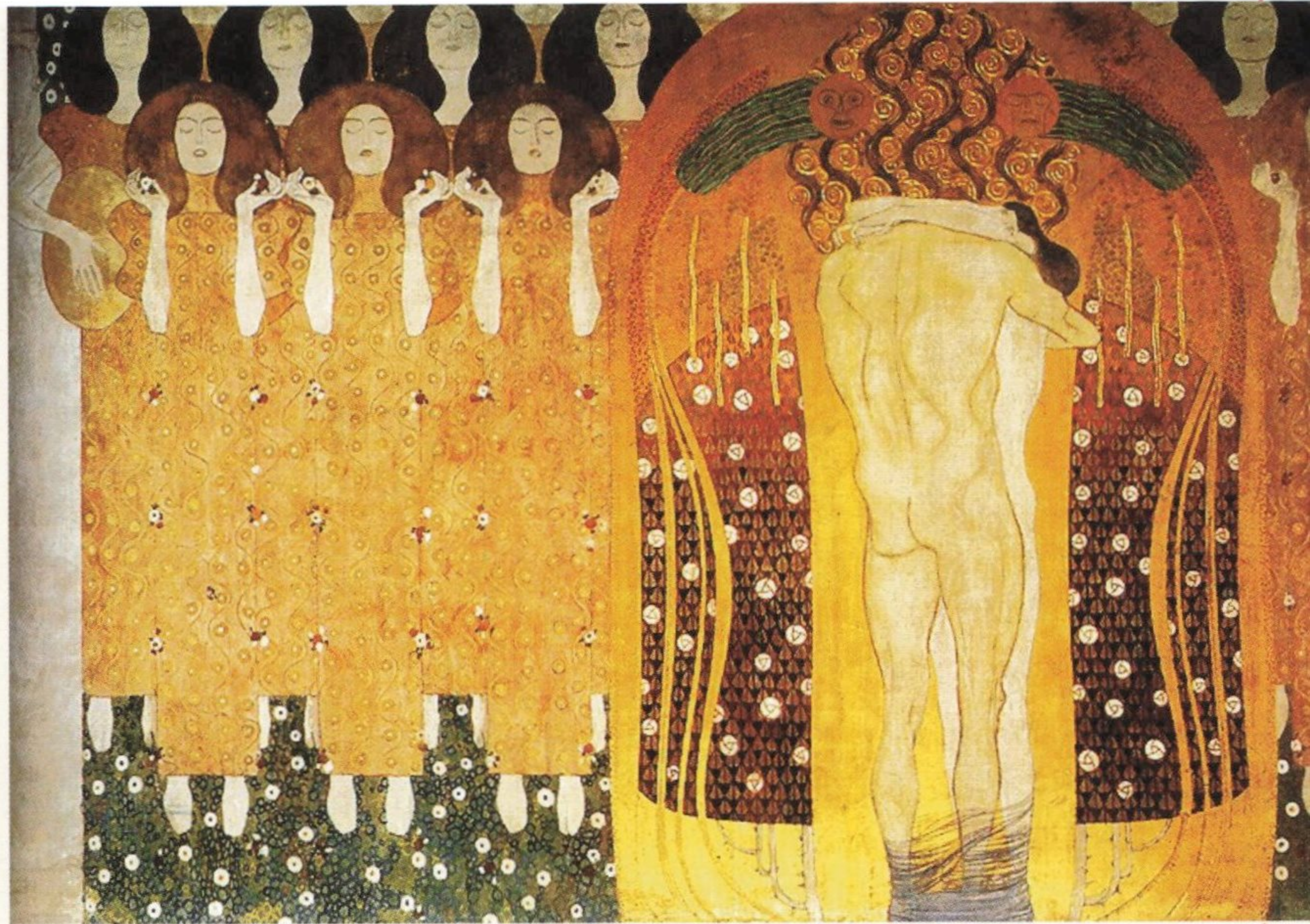
말러는 2010년이 탄생 150주년이자 2011년이 서거 100주년이 되는 만큼 세계적인 이슈가 될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말러 교향곡 제 1번 ‘거인’을 골랐습니다.

▶ 부산시민들에게 전하는 말?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중국은 친근한 이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적 소통이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시키는 데 작은 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립교향악단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스타프 말러와 세기말 빈

김문경 _ 음악 칼럼니스트, '구스타프 말러' 3부작 저자



구스타프 말러가 활동한 시기를 흔히 '세기말'이라고 한다. 어느 세기에나 세기말은 있는 법이지만 역사학적으로 '세기말(fin de siècle)'이라 하면 특정한 시기, 보다 자세히는 19세기 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20세기 초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 20세기 초는 새로운 세기의 시작에 해당하지만 유럽의 역사는 오히려 세계대전 전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따라서 20세기 초는 19세기 말과 연속성을 지니면서 자연스럽게 '세기말'에 흡수된다. 세기말은 흔히 '좋았던 시절'이란 뜻으로 '벨 에포크(belle époque)'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과연 이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좋았던 시기였을까?

세기말 시절처럼 사회의 패러다임이 급격한 변화를 겪은 때도 드물다. 종교의 영역은 과학으로 대체되었고 이성과 계몽은 관능과 무의식으로 전환되었다. 산업혁명과 진화론은 이미 대세로 자리잡았으며 비행기, 지하철, 도시 전차 등 수많은 문명의 이기가 발명되었다. 니체는 무신론의 '아성의 철학'을 선포했으며 프로이트는 무의식과 에로스를 통해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신구(新舊)의 급격한 교체로 혼란스러워 했으며 '시간이 낙타부대보다도 더 빨리 지나간다'며 어지러운 사회상을 불평하기도 했다.

당시 합스부르크 제국은 정치적으로 쇠퇴일로를 걷고 있었다.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한 데에다가 증권공황으로 경제는 악화되고, 설상가상으로 제국에 편입되었던 체코와 헝가리마저 민족주의

의 운동을 거세게 전개한 탓에 정치적 생명은 이미 몰락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예술만큼은 최상의 화려함으로 꽃을 피웠다. 문학 분야에는 후고 호프만슈탈이, 음악 분야에는 말러, R.슈트라우스, 후고 볼프가, 건축 분야에는 아르누보 건축가 오토 바그너가, 미술 분야에는 관능과 장식의 대가 구스타프 클림트와 그의 제자들 오스카 코코슈카, 에곤 실레가 활약했다. 당시 클림트를 위시한 젊은 사상의 미술가들은 보수파에서 탈퇴하여 '빈 분리파'를 창설했다. 그들은 '그 시대에 맞는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이라는 구호 아래 새로운 예술에 매진했다.

1902년 4월 15일 제 14회 빈 분리파 전시회가 개막되었다. 막스 클링거가 제작한 기념비적인 베토벤 조각상이 출품되었고 알프레트 롤러는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 넣었으며, 클림트의 유명한 '베토벤 프리체'가 압도적인 위용을 드러냈다. 빈 궁정 오페라극장의 지휘자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말러는 특별히 이날 개막행사에 베토벤 교향곡 9번의 피날레를 관악앙상블로 편곡하여 지휘했다. 빈의 세기말을 빛낸 두 명의 구스타프, 클림트와 말러의 만남은 많은 이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다. 막스 클링거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말러는 이후 분리파 화가 알프레트 롤러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신선한 무대와 마법적인 조명으로 빈 오페라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좋았던 시절'이 누린 마지막 찬란한 황금빛 노을이었다.

중국 현대미술의
태풍의 눈에 선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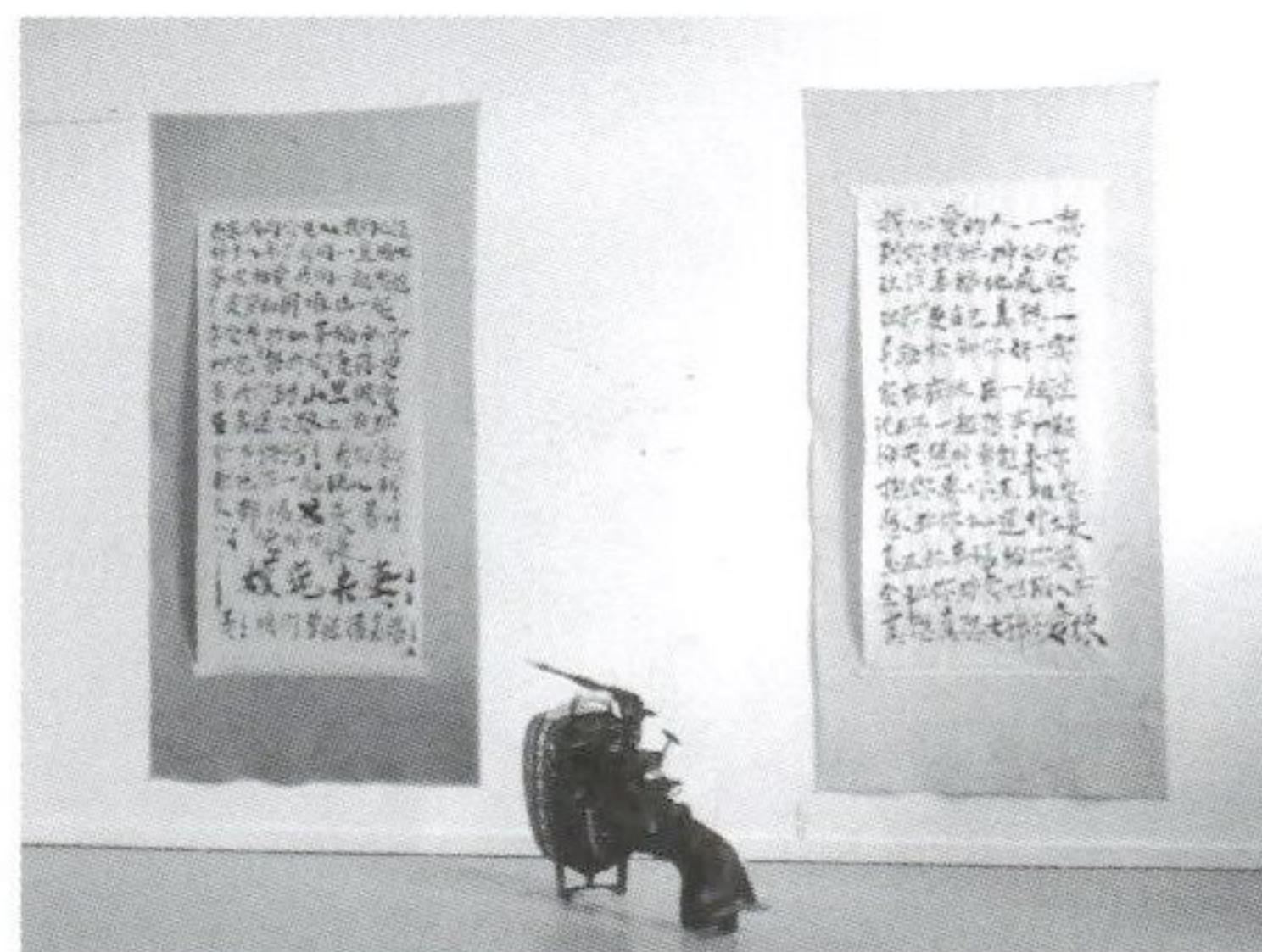
혼돈속에서 끝없이 진화하는 작가 리양슈오(梁碩)

박 건 해 _ 중국통신원

리양슈오라는 이름은 낯설지만 2004년 부산비엔날레에 출품되었던 그의 작품을 기억하는 사람은 분명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만큼 당시 리양슈오의 작품인 '민공' 시리즈는 신선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는 부산비엔날레 북경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작가를 인터뷰 했었기에, 그간 작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Not liang shuo' 전을 관람한 것과 5년만에 재인터뷰하게 된 것은 매우 감회깊은 일이었다.

2000년 졸업무렵 발표하였던 '민공' 시리즈가 각 비엔날레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해외에서도 차츰 리양슈오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심지어는 이후 그의 '민공' 시리즈를 모방한 수많은 아류작이 출현하기도 했으니 당시 그의 영향력과 성공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렇게 명성을 얻고있던 시기에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한채 2005년 돌연히 네델란드로 유학을 떠났다. 'Not liang shuo' 전은 그가 귀국 후 가진 첫 개인전으로 그간 작품의 변화와 성과를 총괄적으로

발표한 중요한 전시라고 할 수 있다.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므로 대표작 중에서 '아내와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와 'Home in Non-place' 를 소개하려 한다.



아내와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

아내와 연인에 관한 서로 다른 미묘한 감정을 담은 두장의 편지를 작품 제작현장의 영상과 함께 발표한 작품으로, 작가의 실제상황을 이슈화시킨 작품이다. 작가는 이렇게 얘기한다.

“사실상 이 작품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득이하게 발생되고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술작품 혹은 관념예술이 아니며, 만약 그러하다면 나는 이 작업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마음속의 고뇌를 표출하고 싶은 예술적 충동을 표현해냈고 리앙슈오라는 사람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은 예술의 관점에서 해결되었다고 한다. 본래는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토로한 것이지만 작품으로서 발표되었을 때 그 의미는 달라진다. 그러나 애정문제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Home in Non-place



작가는 다음 글을 통해 이 작품을 설명한다.

“이 작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모르겠다. 비록 제목에서 이미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 관해 알 수 있겠지만,

지방의 어떤 집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현장을 묘사해보겠다. 관객이 스튜디오에 들어왔을 때 커튼재료의 큰 천이 원형의 벽 모양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된다. 처음엔 누구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1미터 정도의 열린 공간으로 본능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 갑자기 커튼벽 내부에 그려진 대형 풍경화를 보게 된다. 가운데는 한 남자(작가 자신)가 편안하게 비스듬히 기대앉은채 파즈(해바라기씨앗)를 까먹고 있다. 전시장은 매우 조용한데 파즈 까먹는 소리만 들린다. 남자는 관객들이 다가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데 심지어 관객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는다. 먹으면서 이따금 관객을 무심히 바라보기도 하는데, 마치 사람이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이 작품은 네델란드에서 제작 당시 나의 향수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전시된 이후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커튼으로 만들어진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커튼이란 재료, 나의 출생지의 풍경과 파즈를 먹는 행위... 모든 요소는 주관적으로 형성된 나의 ‘집’의 개념이다. 또한 ‘임시’라는 느낌을 강조했다. 공공장소에서 전시하는 이 작품의 의미는 무엇일까? 관객이 나의 집에 오는 것을 개방한다, 혹은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대는 현실속에서처럼 친절하거나 예의바른 것이 아닌 냉정하면서도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과 교류

하기 때문이다. 관객에게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모순과 당혹스러움, 그래서 비록 여전히 관객을 대면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은 ‘향수’와 다른 것이다. 나에게 향수병은 단지 작품의 동력이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을 향한 개인적 고백이 아니라 예술에 관한 태도와 교류에 관한 호기심에 관한 것이다.”

‘Home in Non-place’는 2007년 한국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발표된 작품이기도 하다.

리앙슈오와의 인터뷰

네델란드 유학후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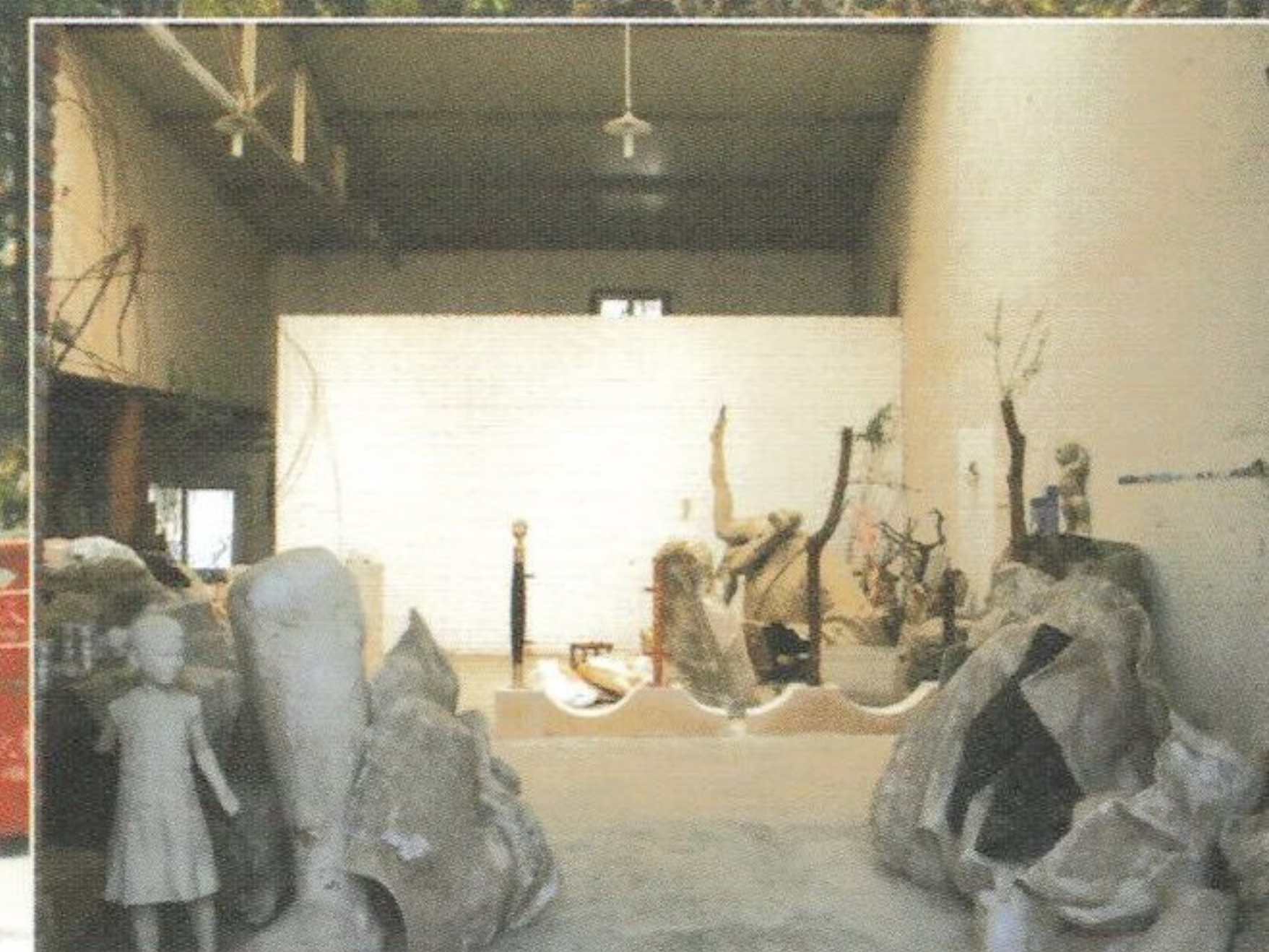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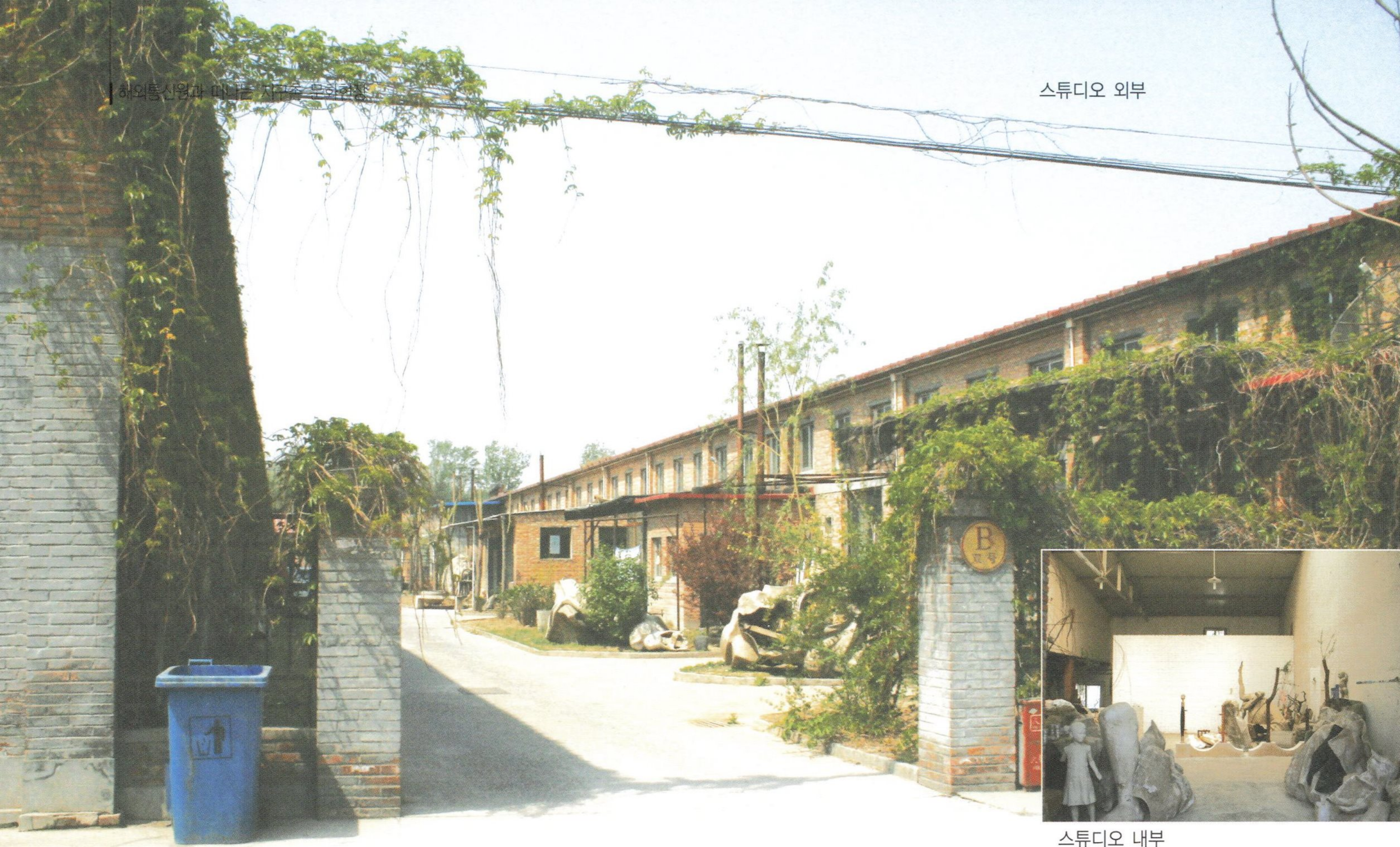
▶▶▶ 네델란드에 가기전 나는 어떤 것들을 잊고 싶었다. 먼저 내 자신에 관해 불만이였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도 몰랐다. 밖으로 나가서 둘러보면서 내 자신을 공백 상태로 만들고 싶었다. 기본적으로 이 목표에는 도달했다.

2004년 부산비엔날레에서 발표한 ‘민공시리즈-8형제’와 지금의 작품사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 예전 ‘민공’ 시리즈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어떻게 본다면 대중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지금의 작품은 좀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추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 그동안 작품을 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한 적은 없다. 그래서 ‘민공’ 시리즈가 반응이 좋았던 것은 우연이고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언제나 운이 좋을 순 없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자연스런 변화에 따라 작업해왔다. 지금의 작품은 형식면에서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단지 다른 형식을 통해서 표현할 뿐이다. ‘민공’ 시리즈는 구체적인 사람이라는 형상을 통해서라면 지금은 어떤 물질을 통해서, 혹은 더 복잡한 부호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관객과의 소통에 관심을 가지는 편인가?

▶▶▶ 나역시 관객과의 교류와 소통을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창작과정 이후, 혹은 제작 전의 일이다. 작품제작 찰나에는 단지 나의



스튜디오 내부

진실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실현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뿐이다. 하물며 내 자신이 누군지도 불분명해지는 순간이 아닌가. 나의 작품들은 대부분 원래 내가 만들려 했던 작품이 아니다. 생각은 언제나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나는 언제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호기심을 가진다.

당신의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 일반적으로 나의 내면, 내부에서 부터다. 애매모호한 것들, 사적인 일 등... 또 다른 방면으로는 외부로부터, 내 주위의 사회, 사람, 사건, 물건들로 부터다.

‘아내와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떻게 발표하게 된 것인가?

▶▶▶ 이 일은 본래는 ‘사적인’ 일이다. 하지만 작품으로 변했을 때 ‘공적인’, ‘보편적인’ 일이 된다. 작품의 재료로 사적인 일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내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이 일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한 것이다. 지금 나의 상태에 관해 전달한 것이다.

이 작품 발표후 어떤 느낌이었나? 자유로움을 느꼈는가?

▶▶▶ 처음에 이 작품은 모두에게 공개하기 위해 제작된 것은 아니었다. 원래는 아내와 연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썼을 뿐이다. 나의 생활의 일부지만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영향을 받은 사상이 있다면?

▶▶▶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인지 말하기는 힘들다. 만약 예술이 아니라면 철학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인생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답을 얻었는가?

▶▶▶ 나는 자주 답을 찾는다. 하지만 언제나 변한다.

작품 속에서 느낄 수 있다. 작품마다 변화가 크지 않는가.

▶▶▶ 가장 큰 변화는 두 번이다. 처음은 네델란드 갔을 때 제작된 ‘아내와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 였고 귀국했을 때 ‘추미’ 시리즈 등 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당신에게 작업은 어떤 의미인가?

▶▶▶ 나의 애매모호한 생각들을 애매모호하지 않게 하는 일, 나의 호기심과 의문을 명백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작업을 통해 명백해질 수 있는가?

▶▶▶ 그렇다. 또한 '틀린 것' 들을 바꾸기도 한다. 모든 작품에는 많은 '틀린 것' 들이 존재한다. 나는 이러한 '틀린 것' 들에 더욱 관심이 있다. 작품은 만들어내지 않으면 영원히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된다. 세계와 자신을 인식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생활의 의미다.



당신에게 사랑이란?

▶▶▶ 사랑에 관해선 모르겠다. 만약 사랑이 뭔지 안다면 '아내와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작품은 없었을 것이다.



당신에게 '인생' 이란?

▶▶▶ 아주 많은...답을 알 수 없는 것들.

자주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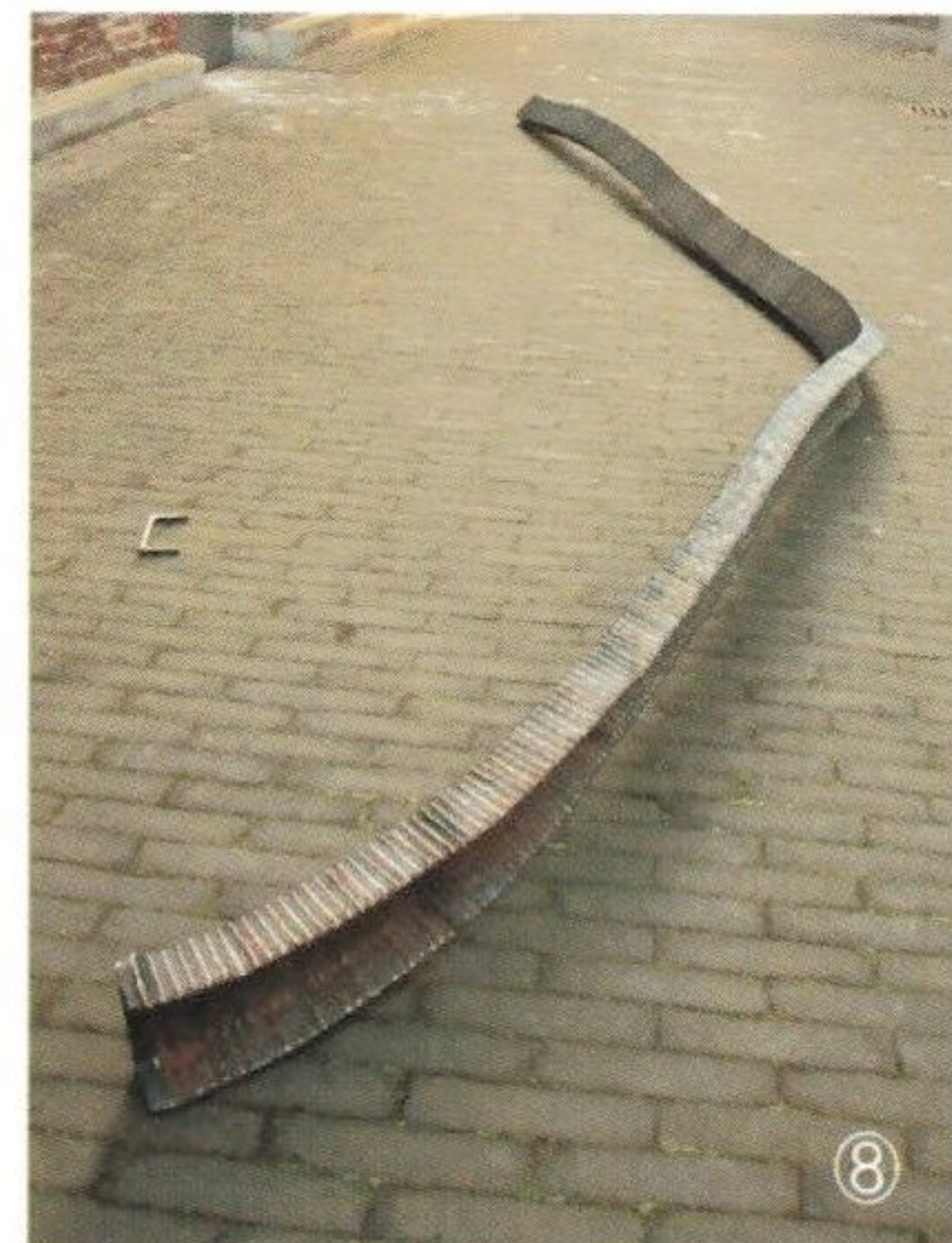
▶▶▶ 인생이 행복이고 살아있는 게 행복이다. 갈수록 행복하고 갈수록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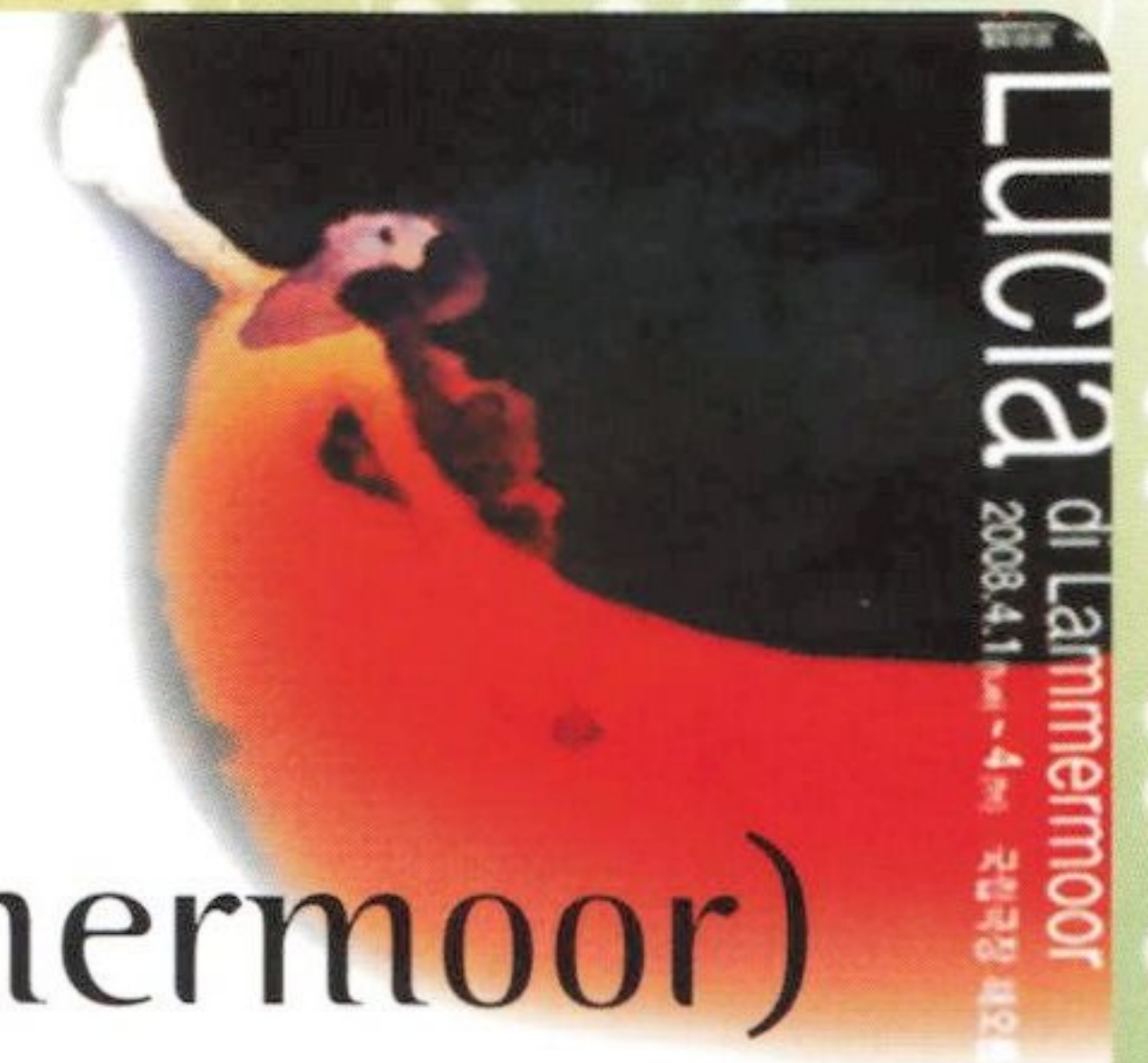


인터뷰와 그의 문장 속에서 종종 발견한 '모르겠다' 라는 말은 그의 작품과 많이 닮아있었다. 리앙슈오만의 혼돈의 공간을 거쳐 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하게될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킬지 무척이나 기다려진다.



- ① 알수없는 물체 2006
- ② 'Home in Non-place' 2006
- ③ 무제 2005
- ④ 민공시리즈
- ⑤ 완구시리즈 2004
- ⑥ 물질연습 2005
- ⑦ 물질연습 2007
- ⑧ 물질연습-C형 2006





도니제티(G. Donizetti)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Lucia di Lammermoor)

김 흥 승 _ 대구 오페라하우스 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 교수

로시니, 벨리니, 도니제티... 이들 3인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며 이탈리아의 낭만주의 오페라를 발전시켜 베리즈모 오페라¹⁾의 베르디, 푸치니로 이어간다. 특히 도니제티는 평소 벨리니의 작품을 동경하여 벨리니 풍의 자극적이고 극적인 작품을 쓰기로 작정한다. 이렇게 하여 태어난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는 그때까지 써오던 모차르트, 로시니 풍의 희극이 아닌 정통 멜로 드라마적인 오페라가 되어 작곡되어졌다.

알프스의 지붕 밑에서 전원적인 풍경 속에 자란 도니제티도 이렇게 칙칙하고 둔탁한 오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도니제티의 작품세계가 풍요로웠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재 그럼 칙칙하고 둔탁한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로 들어가보자!

▶▶**루치아(Lucia)**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 그녀는 애쉬톤 가문의 여자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된 루치아는 슬픔에 잠겨 무덤가를 걷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사나운 황소가 그녀에게로 돌진해오고 겁을 먹은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그녀를 구해준다.

그의 이름은 에드가르도.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오빠인 엔리코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동생을 부자인 아르투로에게 시집보내려 한다. 나중에 미쳐버린 그녀는 자결하고 만다.

▶▶**에드가르도(Edgardo)** 루치아의 애인이다. 사실 그는 레이븐즈우드의 영주로 애쉬톤 가문과는 철천지원수이다. 지금 애쉬톤 가문이 차지하고 있는 람메르무어 성과 땅을 빼앗겼고 아버지마저 화를 이기지 못해 돌아가셨다. 하지만 사랑하는 루치아를 위해 그녀의 오빠 엔리코와 화해하기 원한다.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루치아의 마음을 오해하여 루치아를 미워하지만 그녀의 결백과 사망소식을 듣고는 절망하여 자결한다.

▶▶**엔리코(Enrico)** 루치아의 오빠로 람메르무어 성의 성주이다. 그는 동생 루치아를 부자 아르투로에게 시집보내어 그로 인해 왕을 설득하고 야망을 이루려한다. 하지만 그는 일반적인 악역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녀가 괴로워하고 미쳐갈 때 그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한편으로는 마음 착한(?) 악역이다.

▶▶**알리사(Alisa)** 루치아의 하녀 겸 유모이다. 그녀는 루치아를 매우 아끼고 에드가르도와의 만남을 걱정하면서 그녀를 도와준다.

▶▶**아르투로(Arturo)** 재력가인 그는 엔리코의 소개로 루치아와 결혼하게 된다.

▶▶**라이몬도(Raimondo)** 람메르무어에 사는 성직자이다.

▶▶**노르만노(Normanno)** 엔리코의 심복이다. 그는 루치아와 에드가르도가 자주만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엔리코에게 알린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린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점은 원수 가문의 남녀가 만났다는 것과 둘 다 자결했다는 것 뿐 줄리엣과 루치아는 확연히 다르게 일을 해쳐간다.

1막 1장 레이븐즈우드 성터

레이븐즈우드가(家)는 애쉬톤가에 대항하여 투쟁해 왔으나 성과 영토를 거의 빼앗기고 지금은 작은 성만 하나 남아있는 상태이다. 애쉬톤가(家) 역시 오랜 전쟁으로 재정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애쉬톤가(家)의 엔리코는 동생인 루치아를 재력

가인 아르투로에게 결혼시키기로 한다.

막이 열리면 애쉬톤가(家)의 군대는 이리저리 수상한 사람을 찾고 있다. 수상한 사람이 이곳을 돌아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이때 엔리코와 라이몬도, 노르만노가 들어오고 엔리코는 요즘 들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루치아 이야기를 한다. 라이몬도는 루치아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빠져 그렇다고 말을 하나 이를 듣고 있던 노르만노는 루치아가 사랑에 빠져있다고 말해버린다. 얼마 전 무덤가를 걷고 있던 루치아를 사나운 황소로부터 구해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숙적 에드가르도라고 말이다. 그 말을 듣고 엔리코는 절망한다.

2장 람메르무어 성의 정원

오래되어 낡고 약간은 으스스한 정원에 루치아와 알리사가 나와 있다. 에드가르도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때 루치아는 정원 안 연못에 얽힌 괴담을 알리사에게 들려준다. 알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불안한 기운을 느끼는데, 그때 마침 에드가르도가 나타나고 그는 루치아에게 급한 일로 프랑스에 간다하며 그전에 엔리코와 화해하고 싶다고 하나 루치아가 말한다. 둘은 사랑을 맹세하며 반지를 나눠준다.

2막 1장 엔리코의 거실

루치아는 편지로 소식을 전하겠다는 에드가르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만 한번도 오지 않아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사실 편지가 오지 않는 이유는 엔리코가 그의 편지를 모두 차단했기 때문이다. 루치아가 아르투로와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자 그는 꾀를 내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에드가르도가 보낸 편지인 것처럼 위조하여 그녀에게 건넨다. 절망에 빠진 루치아는 엔리코의 말을 따르기로 한다.

2장 람메르무어성의 응접실

아르투로의 도착을 기다리며 귀족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있다. 때마침 아르투로가 도착하고 엔리코는 어머니 잃은 슬픔으로 동생이 힘들어하니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한다. 루치아는 기운 빠진 모습으로 창백하게 나타나서는 결혼서약서 앞에 선다. 아르투로와 루치아가 차례로 서명하고 난 후 갑자기 나타난 에드가르도. 이때

각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6중창은 무서움에 떨면서도 너무 아름답고 다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같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는 결혼서약서를 보고 흥분한 에드가르도가 반지를 던지고 밟으며 루치아를 저주한다.

3막 1장 레이븐즈우드의 탑

태풍 치는 밤. 에드가르도는 생각에 잠겨있고 때마침 엔리코가 나타난다. 그는 결혼식장에서의 무례를 탓하며 결투 신청을 한다.

2장 람메르무어성의 응접실

다시 응접실이다. 이곳은 한창 결혼식 축하연이 무르익어간다. 이때 갑자기 라이몬도가 뛰어 들어와 큰일이 났다고 한다. 루치아가 미쳐버린 나머지 신랑인 아르투로를 찔러 죽였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놀라 있는데 루치아가 피 묻은 복장으로 나타난다. 이때 부르는 것이 'Mad scene'. 보통 이 곡을 '광란의 아리아' 라고 부른다.

〈광란이라... 사실 광란이라 하기엔 너무 암전하고 아름다운 곡이다(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필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마도 일본을 거쳐 해석되어 와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장장 10분이 넘는 이 아리아는 기교 뿐만이 아니라 호흡조절, 그리고 10분이 넘는 이 아리아를 부를 수 있는 체력도 뒷받침 되어야 해서 소프라노라면 누구나 부르고 싶어하는 곡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곡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아리아를 마치고 루치아는 자결한다.

3장 레이븐즈우드의 성 묘지

같은 시간 에드가르도는 결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랑이라는 게 어찌 이런가" 한탄하고 있을 때 애쉬톤가의 사람들이 슬픈 표정으로 몰려와 루치아가 아르투로를 찔러죽이고 본인도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에 놀란 에드가르도는 루치아의 상황 설명을 듣게 된다. 그때 루치아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역시 절망하고 그녀를 따라 자결하고 만다.

1) 베리즈모 오페라 (Verismo Opera) : 사실주의 오페라라는 뜻. 허구와 신화에 치중하는 내용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제로 만든 오페라.



바르바리 리듬 1989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 그 흔적들 마더웰

채 경 혜 _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뉴욕은 세계미술의 수도, 현대미술의 심장으로 불린다.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미술인의 수만도 약 2,000여명에 이른다.

뉴욕이 현대미술의 중심이 된 것은 1940년대 초부터 전란을 피해 수많은 유럽의 예술가들이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겨오면서 가능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추상표현주의가 탄생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추상표현주의 작품들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힘을 바탕으로 50년대 세계미술계를 사실상 주도했는데, 어쩌면 오랜 전통이 없다는 것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크게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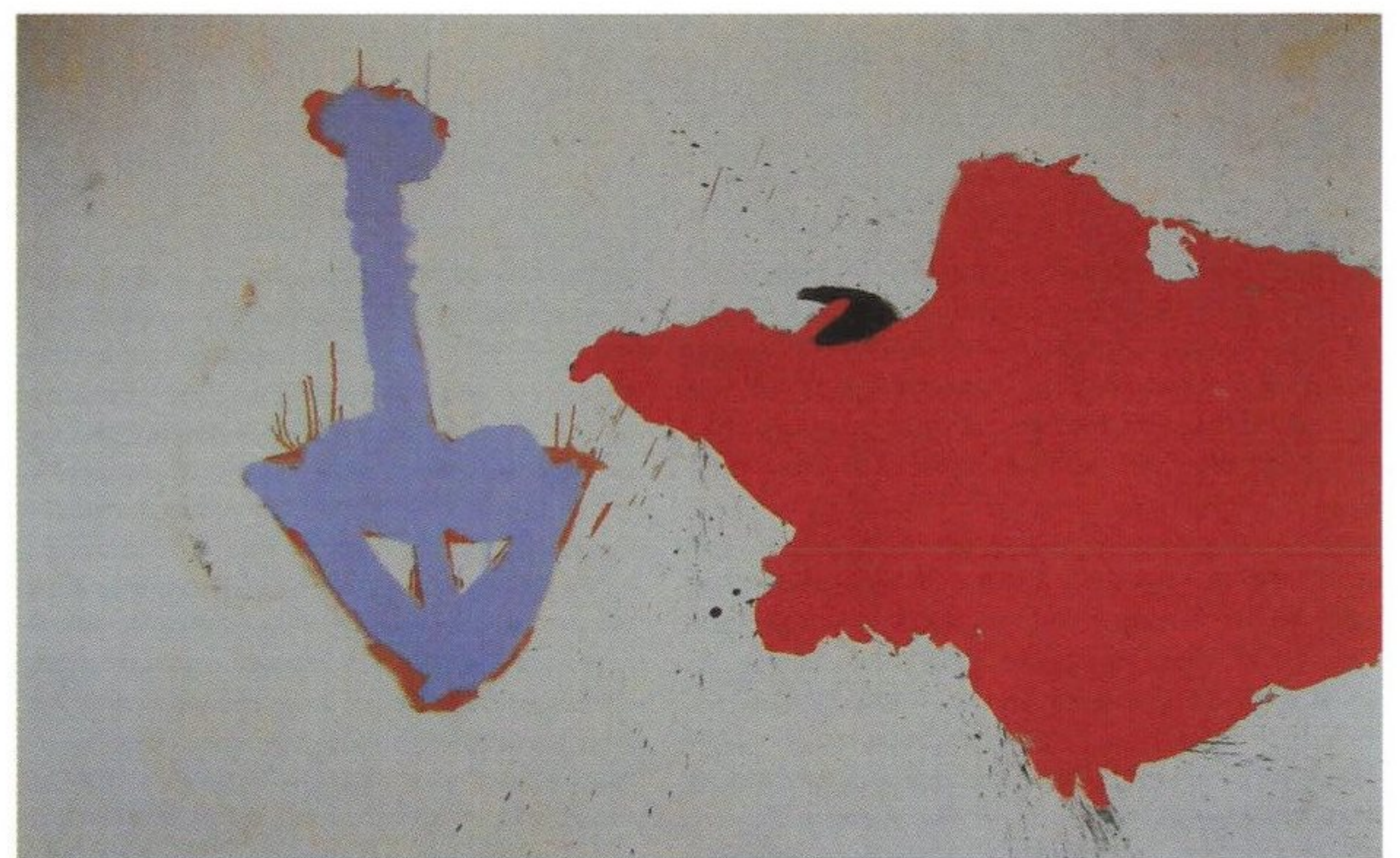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뉴욕은 파시즘의 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로 가득 찬 이민자들의 도시였다. 예술가들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입체파의 대표적 화가 중 한 사람인 페르낭 레제, 추상화가 몬드리안, 초현실주의 화가 막스 에른스트, 초현실주의 시인 앙드레 브레통 같은 사람들이 한 도시에 모여 있었다.

이들로 인해 뉴욕은 새로운 예술의 뜨거운 실험실이 되었으며,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잭슨 폴록을 중심으로 하는 젊고 역동적인 그룹 '뉴욕화파'가 생겨나게 된다.

뉴욕화파는 뿌리기 기법(Dripping Painting)으로 추상표현주의를 개척한 잭슨 폴록을 중심으로 한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과 로버트 마더웰, 바넷 뉴먼과 마크 로스코 등 색면의 소리 없는 암시에 관심을 가진 컬러필드 페인팅(Color Field Painting)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작가 중 로버트 마더웰(Robert Motherwell, 1915~1991)은 워싱턴 출신으로 스탠포드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학

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철학도로서 추상표현주의 선구자이면서 추상표현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미학자로 유명하다. 1940년 콜롬비아 대학(미술고고학부)에서 마이어 샤피로교수를 만나 그림을 배웠으며, 1941년 초현실주의 화가 마타를 만나면서 전업작가의 길로 나섰다. 그는 지속적인 모색과 탐구로 색면추상계열의 대표적 작가로 인정받았으며, 추상표현주의 제1세대작가그룹 중 거의 유일하게 판화를 표현매체로 선택해서 독창적인 조형으로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생의 기쁨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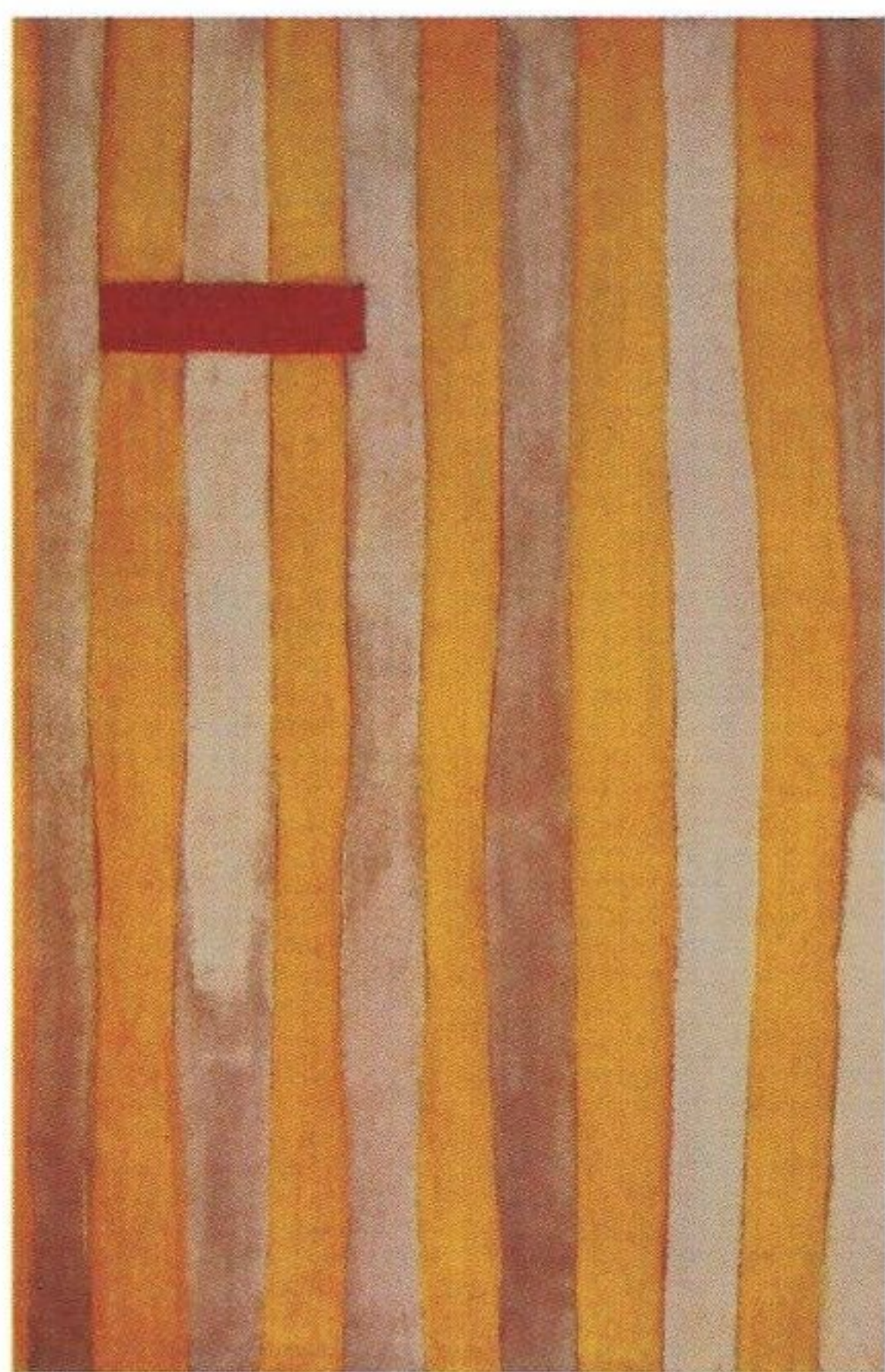
마더웰의 판화는 풍부한 시각적 표현 양식으로서의 의미를 보여준다. 판화기법을 사용하여 콜라주를 실험하였으며 작품을 통해 형태에 대한 모더니즘의 주장을 다양하게 실현하였다.

또 판화기법의 딱딱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혼용하여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판화의 표현영역을 현대적 의미로까지 확장시키고, 기법적 다양성과 회화적 감수성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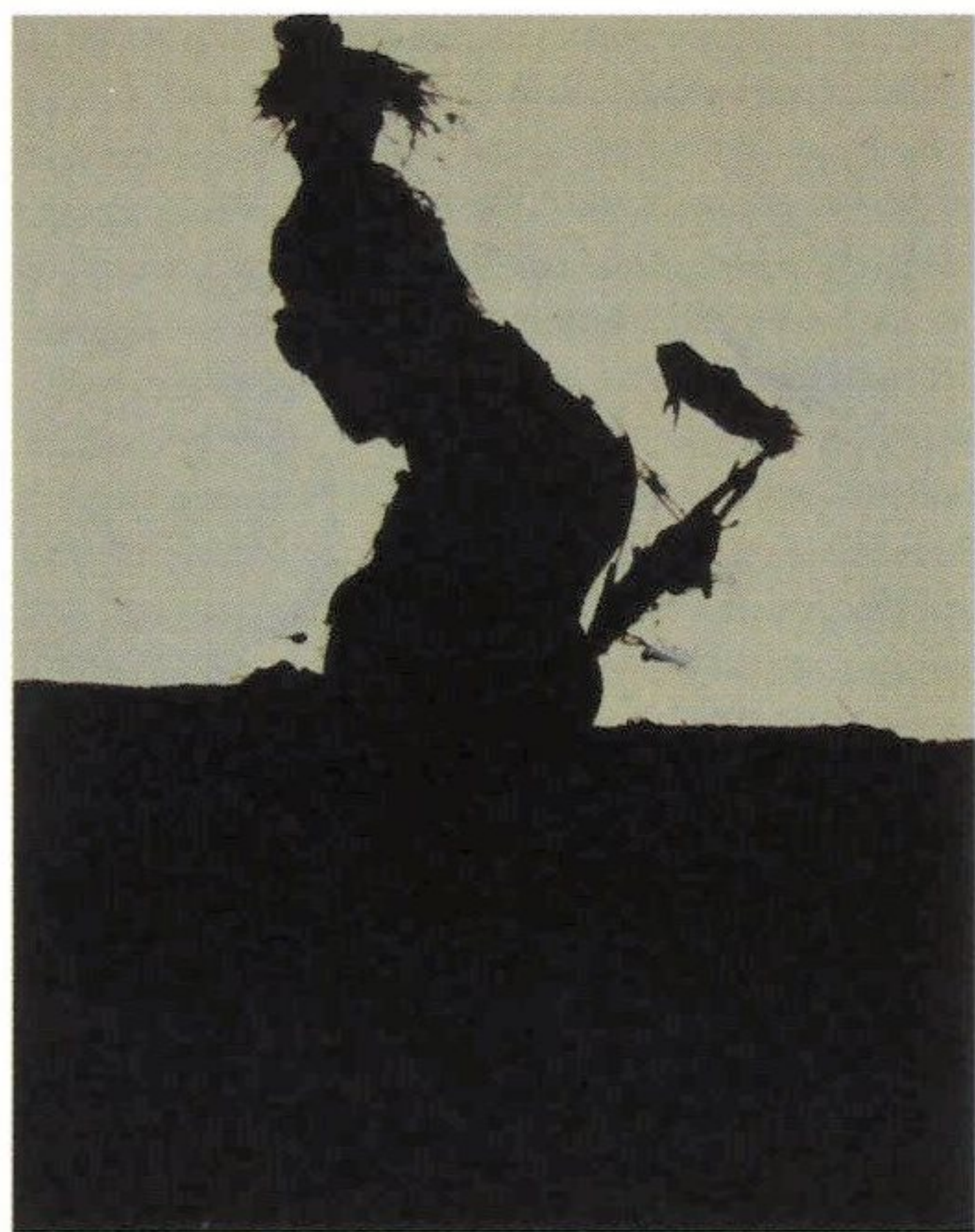
또 문학과 철학에 조예가 깊었던 만큼 그의 사변적(思辨的) 취향은 작품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

앙드레 말로의 스페인 내전에 관한 연설에 감동받아 제작한 그의 대표작 <관초 빌라,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시작으로 1949년 <스페인 공화국을 위한 비가> 이후 1976년까지 150여점의 스페인동란에 관한 연작을 발표하였다. 이들 연작에서 흑과 백은 죽음과 삶을 의미하며, 이는 당대의 상황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색을 회화의 중심으로 생각하던 당시 서구인들에게 흑백의 그림이나 여백이라는 것이 상당히 낯선 개념이었지만 이러한 동양적 사고의 시도는 미술사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게 했다.



작은 스페인감옥 1941



o[1]. T. 1970

그리고 이들 연작들은 그가 추구한 조형적 오토마티즘(Automatism)의 결과물로 평소 잦은 플록이 무시했던 드로잉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잉크로 작은 그림을 그리고, 다시 사각눈금으로 확대하여 캔버스에 옮겨 스케치한 뒤, 바닥에 놓고 크고 긴 붓으로 완성시키는 작업패턴으로 이젤 회화의 전통에서 벗어나 벽화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또 마더웰은 붓 작업이 끝난 이후 먹이 서서히 번져 완성되는 일본의 선불교 회화나 서예에 심취하였다. 물론 여전히 기하학적인 구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관에 의존하여 그림을 그리고, 동양의 먹과 서예를 연상시키는 캘리그래피(Calligraphy)적 효과를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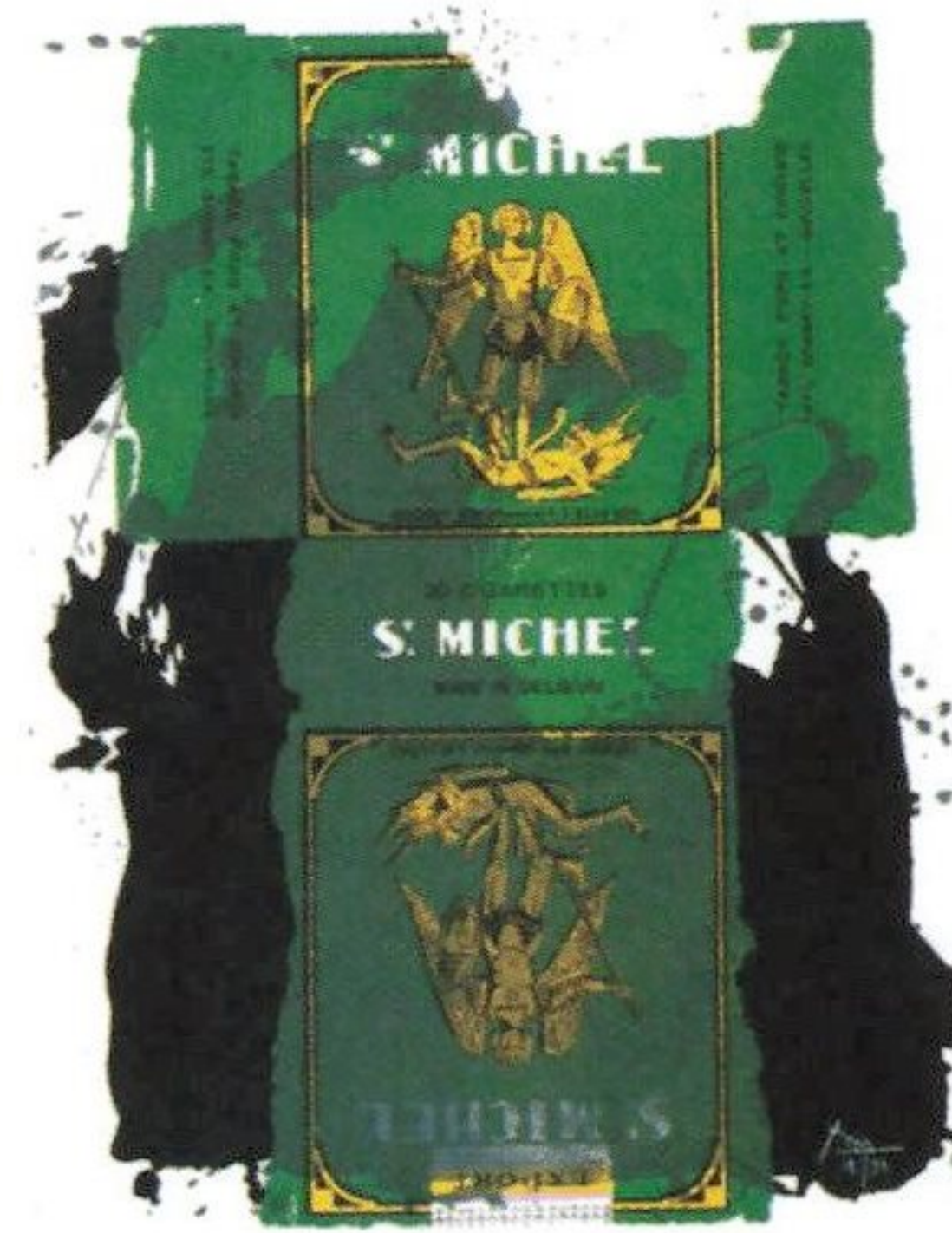
1950년대부터 엽서, 포스터, 상표, 악보 등을 이용한 콜라주 작품을, 1960년대 말에는 색면과 희미한 목탄선으로 문이나 창문처럼 표

현한 오픈(Open)시리즈를, 1970년대는 표현주의적인 것에서부터 고전주의적인 엄격한 형식까지 작품의 범위를 넓혔고, 특히 판화와 콜라주작업에 열성을 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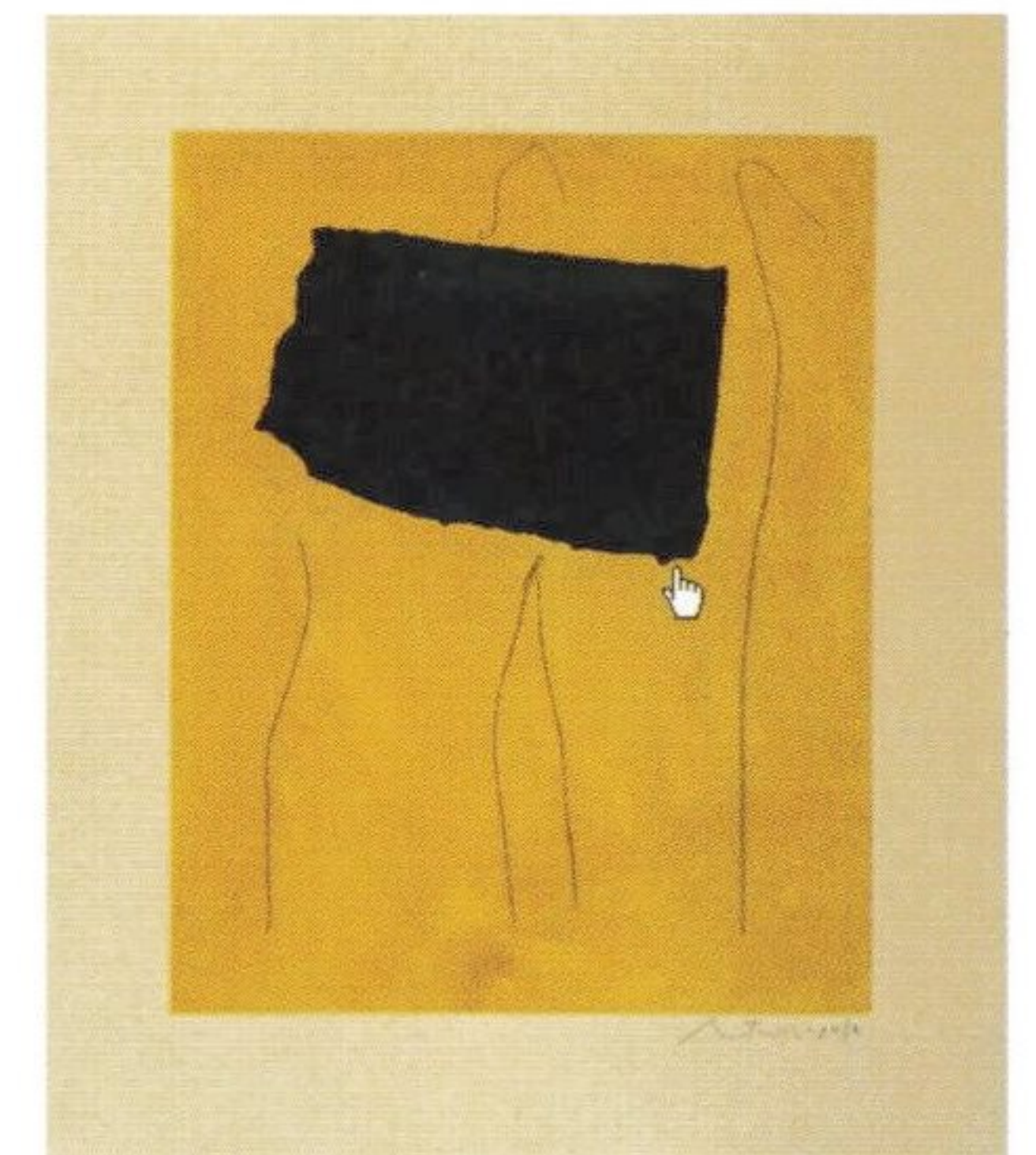
주로 뉴욕 근처의 타일러공방에서 제작된 마더웰의 판화는 20세기 미술로부터 발췌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종합과 동양적 미의식의 교감, 유럽의 전통과 미국적 정신의 통합이라는 말들로 평가할 수 있다.

1991년 그가 죽은 후 뉴욕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런던 로얄아카데미 등에서 회고전이 대대적으로 열렸다. 이때 어느 미술품 분석에 의하면 ‘앤디 워홀은 33세 때, 마더웰은 72세 때 제작된 작품이 최고가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이름 모를 배 위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밤 속으로 여행하는 것”이라고 그가 표현했듯이 그의 평생 동안의 실험적 자세가 보여준 결과일 것이다.



성 미카엘, 리도그래프+스크린 프린팅



Oy/Yo, 인탈리오+콜라주



바스토스, 리도그래프+스크린 프린팅

그리스 II

렘베티카와 부주키

황 윤 기 _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월드뮤직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음악들은 가난한 하층민들의 찌든 삶속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음악들은 오늘날 각 나라나 민족의 대표적인 정서를 담고 가장 중요한 음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음악으로 지금까지 이 지면을 통해 만나 본 음악들 중에 손꼽을 만한 것이 포르투갈의 파두와 아르헨티나의 탱고이다. 또한 이들 음악은 리스본과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항구 도시 밑바닥 인생의 고독과 향수를 담아 낸 것들이다. 그리스 역시 항구 도시의 하층 문화에서 시작되어 그리스 음악 이야기 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렘베티카(Rembetika)' 라는 음악이 있다.

그리스의 음악에는 디모티카(Dhimotika), 렘베티카, 라이카(Laika)와 같은 말들이 등장한다. 디모티카는 그리스의 전통음악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동방으로부터 전해진 양식과 본토의 전통적인 춤곡 등이 기본이 된 음악이지만 현재 그 원형은 사라지고 없다. 레베티카 혹은 레베티코라고도 부르는 렘베티카는 전통적인 색채를 띤 현대 그리스 대중음악의 근간이라 할 만한 것이다. 그리스 현대사의 중요한 기점이라 할 수 있는 1922년 터키와의 전쟁 이후, 소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많은 난민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빈민가의 하층 문화를 이루게 된다. 특히 항구 도시인 피레우스를 중심으로 이들만의 개성 있는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렘베티카는 이들이 거주하던 거리의 카페나 술집에서 부르던 노래에서 시작되었다. 가난과 연애 등 통속적인 것들과 소외된 삶, 사회적인 문제들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었다. 3~40년대를 지나면서 렘베티카는 마르코스 밤바카리스(Markos Vamvakaris)를 비롯한 뛰어난 음악가들을 배출하며, 레코드 산업에 편입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렘베티카는 2차 세계대전 즈음 그리스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대중 음악으로서 전성기를 구가했다. 또한 음악적으로는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의 색이 짙은 초기의 모습에서 변화되어 서구적이고 상업적인 면모로 대중들에게 사랑받게 되는데, 이는 곧 렘베티카의 주된 계층

이 중산층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낳으며 1955년 그 전성기를 마감하게 된다. 하지만 렘베티카는 이후 그리스 대중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며, 보다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면모를 지닌 라이카라는 음악으로 발전한다. 다음 글에 소개하게 될 그리스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비롯해 현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리스 대중음악의 대부분이 이 라이카 음악이라 할 수 있다.

렘베티카는 부주키(Bouzouki)라는 악기와 함께 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 음악에 사용되면서 그리스 고유의 색깔을 지니게 하는 감초와도 같은 악기이다. 부주키는 동방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화적 산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2세기 초 터키 서해안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추방당해 그리스 본토로 들어올 때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주키는 타원형의 몸체와 긴 목을 지닌 류트형의 악기이다. 복현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현은 때론 청승맞게, 때론 발랄한 울림으로 연주되면서 그리스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소리로 평가받고 있다.

부주키는 미키스 데오도라키스나 마노스 하지다키스와 같은 그리스 현대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 음악 속에서 그리스 민중의 애환을 담아내는 악기로 사랑받아 왔다. 미키스 데오도라키스가 음악을 담당했던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명배우 안소니 퀴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춤을 추었던 인상적인 장면에서 흐르던 '조르바의 춤'이라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바로 부주키이다. 지금도 그리스의 관광지구나 시골의 선술집에서는 해가 떨어질 무렵부터 부주키가 연주되고 그 선율에 맞춰 전통적인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스의 블루스라고 불리는 렘베티카와 그 선율을 엮어 나가던 부주키의 울림, 그리스 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은 일상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삶의 활력을 찾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오아시스 심포니). 지난 2006년 5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첫 발을 내딛은 오아시스 심포니는 지난해 봄부터 찾아가는 음악회와 사랑나눔무대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오아시스 심포니는 현재 60여명의 정단원과 50여명의 배움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다른 연주단체와 달리 2~30대 회원들이 많아 오아시스 심포니는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예비단원이라 할 수 있는 배움단원은 여느 아마추어 연주단체에는 없는 오아시스 심포니만의 자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배움반은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트럼펫, 색소폰, 플루트 등 각 파트별 전문연주자들이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음악에 대한 열정만 있었지 한번도 악기를 접해보지 못한 초보자들에게는 편하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오아시스’인 셈이다. 충분한 실력을 쌓은 배움단원들은 일정기간 후 정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오아시스 심포니는 매주 토요일 오후 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관에서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는다. 요즘은 6월 20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창단연주회를 앞두고 수시로 파트별 연습모임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휘자 김하균 씨가 상임지휘자를 맡아 오아시스 심포니를 이끌고 있다. 오아시스심포니는 편곡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하균 씨가 직접 편곡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창단연주회에서도 생일축하곡을 다양한 장르로 편곡한 ‘생일축하곡 변주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2006년 창단 이후 크고 작은 무대에 서온 오아시스 심포니는 지난해 6월 아동시설인 ‘애아원’ 연주회를 시작으로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음악을 통한 사랑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반

송종합복지관, 성바로 아동요양원 등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사랑나눔연주회를 가져왔다. 지금은 사회복지단체인 ‘희망을 여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정기적으로 음악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는 음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아시스 심포니 단장으로 있는 염준영 씨. 8년전부터 취미로 트럼펫을 배워오다 지난해 봄 오아시스 심포니와 인연을 맺었다는 그는 한 가족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오아시스 심포니만의 장점으로 꼽는다.

“생활의 활력으로 시작된 오케스트라 활동이 연주에 대한 부담감을 넘어서 이제는 삶의 위안이 된다”는 류혜경 씨. 오랜 시간 취미로 플루트를 배워오다 올해 초 인터넷을 통해 오아시스 심포니에 가입했다는 그는 다른 단원들과의 호흡을 위해 개인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요즘에도 하루 3~4시간 연습시간을 갖는다는 그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실력이 부쩍 늘었다.

단원 김성란 씨 역시 오아시스 심포니에서 플루트를 연주한다. 대학에서 피아노와 플루트를 복수로 전공했던 그는 앙상블의 매력에 빠지면서 올해 2월 지인의 소개로 오아시스 심포니와 인연을 맺었다. 두돌이 지난 어린 애기를 둔 엄마라 주말에 시간내기가 쉽지 않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을 얻는다는 그는 앞으로 오아시스 심포니가 지역의 실력있는 연주단체로 성장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문의/오아시스 심포니오케스트라(cafe.daum.net/OasisEnsemble)

홀눈의 현실, 겹눈의 그림

-방정아 개인전 <어둠>, 4월 4일 ~ 6월 27일, 김스아트필드-

김만석 _ 미술평론가



방정아 작
재개발구역

시골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지 삼십 여년이 훌쩍 넘고 있다. 개발독재로 유실된 농촌이 말 그대로 폐허가 되고 있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농촌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공간' 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휘황찬란한 시가지였던 '도심'조차 인구의 급감과 더불어 조금씩 '슬럼화' 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마치, '태백'이 한국사회의 산업변동으로 인해 몰락했으며 자신들의 삶의 장소를 '관광화'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인구가 도시에서 거주하는 한국사회의 공간적 속성을 떠올려보면 도시 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많은 개별자들 역시 이러한 과정에 내몰려 생존을 위한 아슬아슬한 악전고투를 거듭하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런 악전고투의 삶과 일상은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서둘러 이는 홀눈으로 세상을 보아서다. 아니, 스펙터클과 스타일에 이끌리는 눈은 그러한 삶을 배제하거나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현실은 지각 불가능할 정도로 재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나 혹은 도시와 그 일상은 '빛' 대신 '어둠'에 더 근접해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아니, 근대 자본주의(제국주의, 식민주의)가 100여 년 전부터 '비서구 세계'를 '암흑'과 '야만'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남루한 '일상'은 온통 '어둠'으로 처리되어 볼 수 없도록 통제된다는 것이다. 노숙자와 행려들은 비오는 날 대체 어디로 가 있거나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때문일까? 방정아의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눈/붓이 포착하는 것은 허망하게 사멸해버리는 일상을 부여잡은, 빛이 거세되기 직전의 위태로운 삶의 자리로 자꾸만 읽힌다.

그러니까, 방정아의 회화가 포착한 그 삶은 광포한 현실논리가 지워버리려는 것이며 동시에 화폭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둠의 영토로 내몰리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빛과 어둠의 어느 쪽에도 완전히 발붙일 수 없는 후줄근한 존재에게 자본주의의 빛과는 다른 '빛'을 부여했기에 이를 화폭에 옮길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그녀의 인물들이 언제나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은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다른 곳을, 즉 일상과 삶을 다르게 바라보라는 일종의 요청일 수 있다. 그래서 초기 그녀의 작업이 주로 인물을 초점화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 그녀의 작업에서 인물만큼 비중이 큰 핵심적인 응시의 대상이 인물에서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가령, 그녀의 <세계> 시리즈는 격렬한 기억으로 가득한 '거리'를 다시 정치적으로, 삶으로 되돌려주려는 시도라는 것.

이 시리즈는 <재개발 구역>에 이어지는데, 하수구와 두 인물에 함께 초점을 부여하면서 하수구와 이 두 인물을 연동해서 바라보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수구에 쓸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위태로운 삶, 하수구에서 올라와도 지워질 위험에 처해진 삶이라는 것. 물론 그녀가 이 삶/세계를 포착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파괴적이고 억압적 현실 속에서 모종의 희망을 상상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저 '어둠'이 밝히는 세계와 '함께' '생존'해야 함을 망각해서는 안 될 터이다. 그러니 '홀눈'이라는 지배적인 스펙터클에 매혹되는 대신 '겹눈'으로 지워진 세계를 만나는 일이, '겹눈'을 뜨게 만드는 캔버스에 유혹되는 일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지독하고 순수한 두 편의 독립영화 〈똥파리〉와 〈오디션〉

김희진 _ 영화감독

최근 한국 독립영화가 일종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상업영화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과정과 그리 다르지 않다. 역시 영화는 흥행과 수익이라는 차원에서의 성공이 가장 돋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이나 담론이 만들어지기 보단 스포츠 신문식의 가십형 읽을거리만이 쓰여 지고 소통되는 측면이 있다. 결국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영화는 대중의 관심에서 쉽게 잊혀지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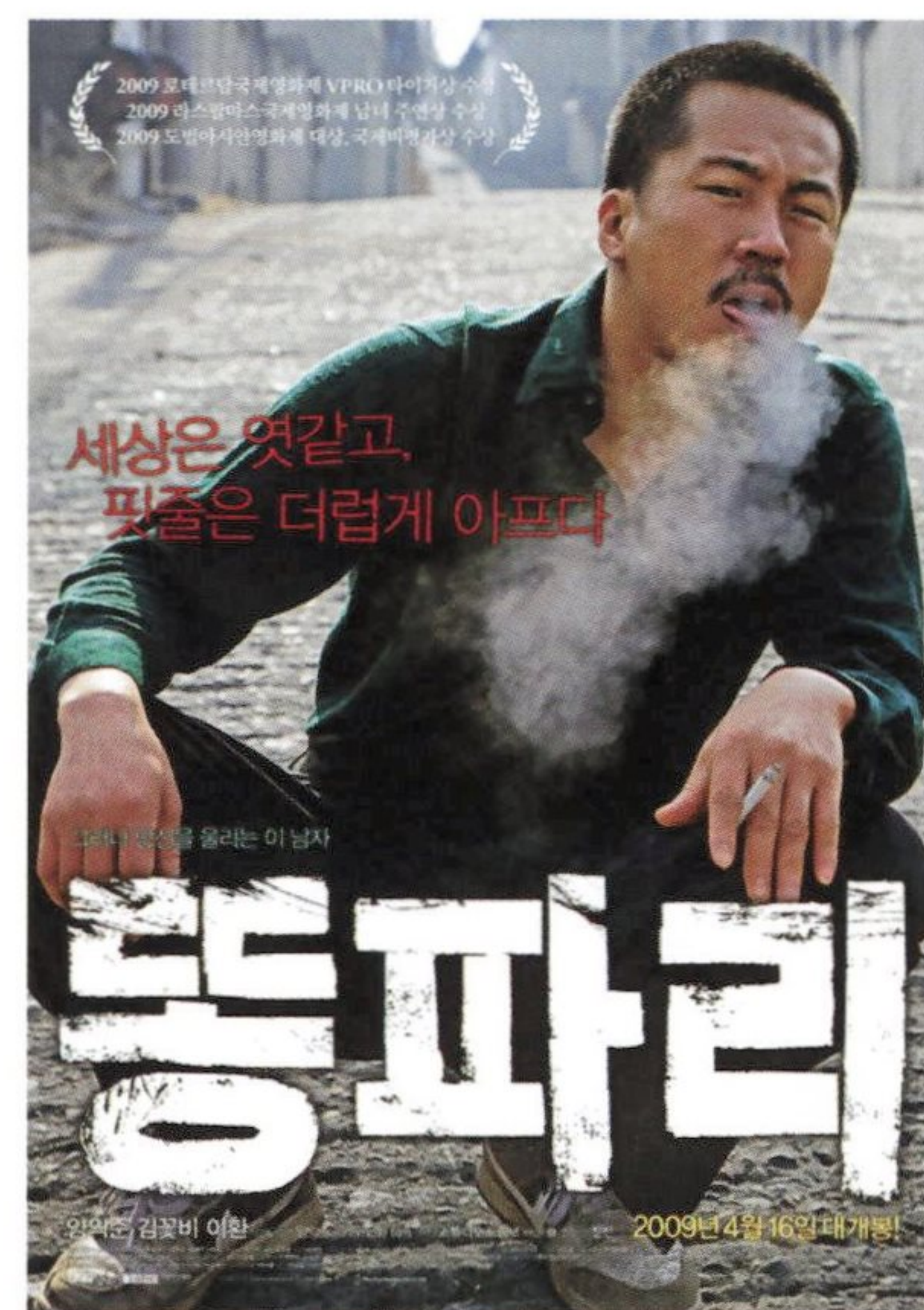
〈위낭소리〉만큼의 성공은 아니지만 해외영화제에서의 수상 소식을 알리며 십만 관객을 넘긴 〈똥파리〉 역시 그런 주목을 받으며 출발했다. 영화를 본 이들은 〈똥파리〉가 가진 대중적 요소가 상업영화 못지않다고 말한다. 주인공이 거칠게 뺏어내는 육두문자와 친아버지에게 가하는 폭력이 중심이 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막나감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야기 구성이 있기에 가능한 평가라고 보아진다. 특히 남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연기가 각각의 캐릭터를 분명히 하고 있음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부산에서 제작되고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오디션〉은 정식 개봉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작품이다. 비보이 댄서인 남자와 청각장애를 지닌 여자의 성장 영화라고 할 이 작품은 〈위낭소리〉나 〈똥파리〉와 같은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오디션〉은 〈위낭소리〉가 가진 보편적 삶의 정서와 〈똥파리〉가 가진 성장통의 청춘이 겪는 갈등과 현대 사회 속 가족의 애환을 다 담고 있는 작품이다. 어떤 면에선 비보이의 모습에 대한 강렬한 영상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나 세련되게 표현하지 못한 연기로 인해 큰 호응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디션〉은 〈위낭소리〉가 연출로 가공해낸 소통의 감정이나 〈똥파리〉가 결국 답습하고 있는 이야기 영화의 전통적 전략에서는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는 점에서 순수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디션〉이 대중적인 상영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 한국에서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위낭소리〉와 〈똥파리〉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 배급의 현실은 여전히 독립영화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영화 또는 예술영화를 배급하는 몇몇 군소 배급사들은 여전히 악전고투 속에 있으며 상업영화의 배급구조는 여전히 부가가치만을 염두에 둔 영화만을 고려하고 있다.

시대적 정서가 우연히 운동적 마케팅의 바람을 일으켰던, 어찌 보면 소 뒷걸음질이 잡아낸 흥행인 〈위낭소리〉나 영화제 수상이라는 스포츠 경기식 기록주의의 바람을 타고 한 젊은 감독의 열정이 알려지게 된 〈똥파리〉 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많은 독립영화들이 대중과 만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오디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영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좀더 보편적으로 인식 되었으면 한다. 결국 대중적으로 성공한 독립영화만 기억에 남게 되는 경쟁적 결과론이 독립영화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똥파리



오디션



전통한옥의 맥을 잇는다

청도한옥학교

자연과 소통하는, 자연을 닮은 집 한옥.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우리의 전통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한옥을 손수 짓고 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바람을 담아 이 시대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가치를 되살리는 한옥학교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난 2003년 문을 연 청도한옥학교는 우리 전통한옥의 맥을 잇고 있는 대표적인 한옥학교이다.

청도군청 뒤 약대폭포 길을 따라 오르다보면 야트막한 산자락에 위치한 청도한옥학교를 만날 수 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있는 일주문을 지나면 여기서부터가 바로 청도한옥학교이다. 한옥학교에 들어서면 너와지붕이 인상적인 한옥 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바로 한옥학교의 강의실 겸 사무실로 쓰이는 자하원. 넓은 마루로 된 자하원 강의실에는 앉은뱅이 책상과 방석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입구 맞은편 정면의 큰 창밖으로는 청도 화양읍 전경이 환하게 내려다보인다. 비탈진 지형을 이용해 지은 교사(校舍)는 밖에서 보면 단층인데, 들어와 보면 이층건물이다.

청도한옥학교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변숙현 씨가 우리민족의 삶과 지혜가 담긴 한옥의 아름다운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그의 고향인 청도에 문을 연 한옥교육기관이다. 재학시절 정작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물인 한옥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던 그는 결국 직접 한옥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사재를 털어 고향 청도에 한옥학교를 지었다.

현재 한옥학교는 2만평 부지에 강의실을 중심으로 3곳의 실습실과 기숙사, 식당과 함께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은 사모정, 육모

정, 팔모정 등 정자들과 황토집이 곳곳에 들어서있다. 한옥학교 입구에 들어서자 전통툽 돌아가는 소리와 망치질소리가 연신 귓전을 울린다.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속에서도 수강생들의 부지런한 손길은 멈출 줄을 모른다. 허름한 작업복에 연장을 든 모습은 모두가 목수이다.

한옥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목수양성과정과 소목과정, 스스로집 짓기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수양성과정은 손수 집을 짓거나 목수로의 전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주 5일 총 16주 과정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한옥용어의 이해에서부터 손연장 및 전통공구 다루기, 지역별 사괘맞춤, 초익공 실습을 통한 기법습득과 먹농기, 실측 및 설계, 주제별 실습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목수양성과정이 집을 짓는 목수를 키워내는 과정이라면 소목과정에서는 창호나 가구, 공예품 등 한옥의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목수를 양성한다. 역시 주 5일 16주 과정으로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또 최근에는 자기 집을 손수 지으려는 일반인들이 늘면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스로집짓기 주말과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주말을 이용한 주 2일, 12주 과정으로 매년 3월과 9월 개강한다. 이밖에도 단청과정, 단청소품반, 구들특강 등 단기교육과정도 수시로 열린다.

한옥학교 교수진 역시 탄탄한데 변숙현 교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고의 대목장 김창희 선생 등 대학강단과 건축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목장 김창희 선생은 창덕



궁 복원의 도편수로도 참여했으며, 부석사 무량수전, 불국사, 관음사 등 수많은 문화재 증축과 보수에 참가한 한옥 건축의 거장이다. 청도한옥학교의 일주문 역시 김창희 선생의 작품이다.

한옥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연령과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한옥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연령도, 직업도 각양각색이지만 한옥학교에는 제 2의 인생을 꿈꾸는 수강생들로 열정이 넘쳐난다. 지금까지 한옥학교를 거쳐간 졸업생 수만 500여명이 넘는데, 그중에서도 150여명은 현장에서 대목수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도한옥학교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실업자 훈련교육 대체기관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기관으로 승인되면서 수업료를 지원받게 되어 수강생들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청도한옥학교에서는 한옥교육과정 외에도 가족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옥체험학교를 열고 있다. 한옥의 이해를 돕는 강의와 더불어 창살만들기, 먹놓기, 초익공 해체 조립, 황토벽돌만들기 등 간단한 실습과정도 체험할 수 있다.



■문의/청도한옥학교(054-373-8555~6, www.hanokschool.net)

- ① 청도한옥학교 전경
- ②~⑤ 수업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
- ⑥~⑦ 한옥체험학교에 참가한 시민들
- ⑧ 대목장 김창희 선생이 작업한 청도한옥학교 일주문
- ⑨ 청도한옥학교 상량식

동의대학교 제 5회 피아니스트 동문연주회

6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동의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의대학교 동문들이 들려주는 동의대학교 피아니스트 동문연주회.

2005년 결성된 동의대학교 동문 피아니스트협회는 현재 45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이탈리안 콘체르토 BWV 971
리스트/리골레토 패러플레이즈
피아졸라/탱고
미요/스카라뮤슈 작품 165

연주

양광기, 이은정, 서양지, 서숙지, 서영란, 김성희, 안진숙, 신진희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동의대학교 동문 피아니스트협회(010-9470-0094)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뮤클합창단 제 4회 정기연주회

6월 6일 토요일 오후 7:30



‘뮤지컬, 클래식 공연은 뮤클과 함께 공연장에서’라는 취지로 출발한 공연감상 동호회 뮤클(뮤지컬 클래식 부산 동호회) 회원들로 구성된 뮤클합창단 정기연주회.

뮤클합창단은 2005년 제 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3회의 정기연주회와 뮤클 5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호스피스 음악회 등을 가져왔다. 이번 무대는 엄현섭의 지휘로 모차르트 ‘레퀴엠 K.626’을 들려준다.

- 지휘/엄현섭 · 반주/이은혜 · 오르간/변경숙
- 소프라노/김민지 · 오프/성미진
- 테너/서민규 · 베이스/심정보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강영옥(010-2307-6922), 조원호(010-9058-3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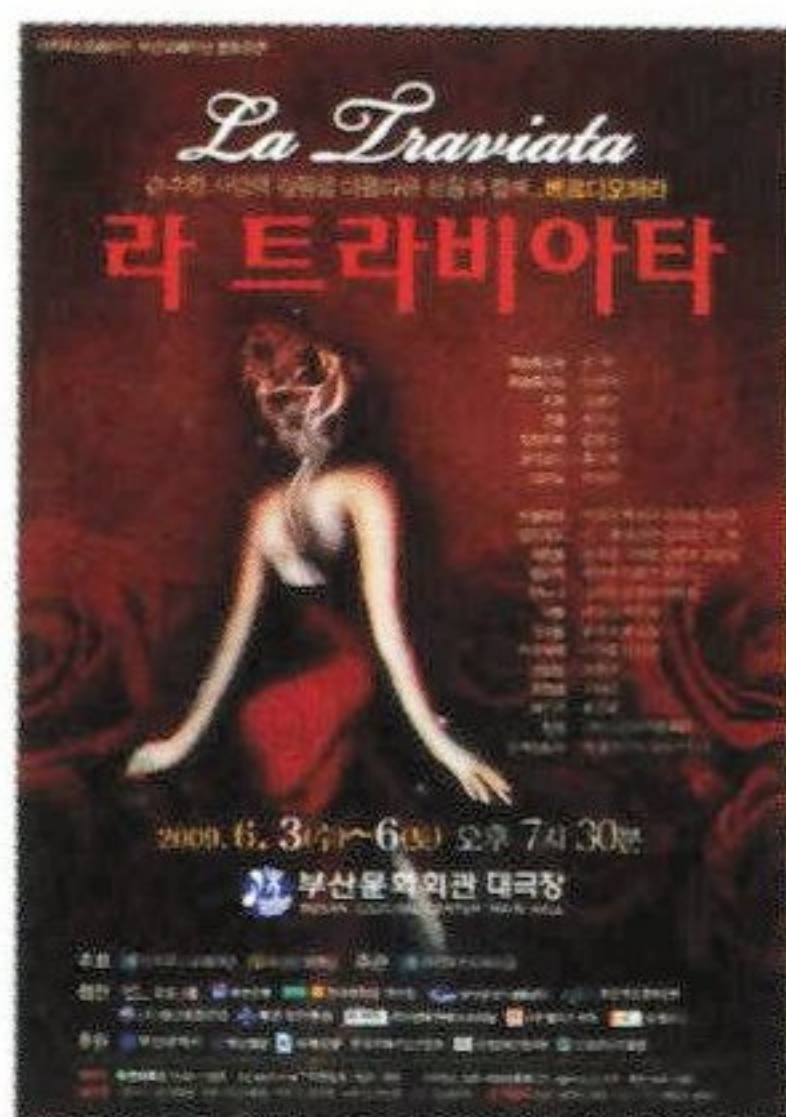
CBS 여성성가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6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1982년 5월 창단된 이래 성가합창제, 부산합창제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복음성가를 들려준 CBS 여성성가단 정기연주회.

부산광역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아지무스 오페라단 제 9회 정기공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6월 3일-6일 수-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광역시 전문예술단체 법인으로 선정된 아지무스 오페라단의 제 9회 정기공연 ‘라트라비아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무대에 올려지는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는 뒤마의 소설 ‘춘희’를 소재로한 작품으로 1853년 3월 베네치아에서 초연되었다. 파리 사교계의 미모의 무희 비올레타와 프로방스 출신의 순정적인 청년 알프레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이 작품은 ‘축배의 노래’ ‘아, 그 사람인가’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 ‘영원한 이별이여’ 등 유명한 아리아와 ‘집시들의 합창’ ‘투우사들의 합창’ 등이 사랑받고 있다.

- 지휘/김봉미(서울필하모닉 전임지휘자)
- 연출/최이순
- 합창지휘/김명규(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 YMCA오페라합창단 지휘자)

출연

비올레타 김방술, 비올레타 백선아, 비올레타 장은영, 알프레도 김경, 알프레도 김지호, 알프레도 박찬, 제롬 강재권, 제롬 강경원, 플라라 전연숙 외

- 관람료 VIP 150,000원 · R석 10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가족할인 이벤트-VIP석과 R석 가족 4인중 1인은 무료, 부부동반 이벤트-부부가 함께 관람시 20% 할인, 기업단체 이벤트-기업에서 단체 관람시 30인 이상 20% 할인)
- 문의 인터파크(1544-1555), 티켓링크(1588-7890)
아지무스오페라단(526-4048, 011-9520-4649, www.agimus.co.kr)

제5회 부산국제무용제 땅, 하늘, 바다의 축제-그 전설의 시작 ‘天馬’

6월 3일-4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부산국제무용제 2009년 무대. 바다위의 춤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한국, 미국,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호주, 홍콩 10개국 56팀 70작품이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와 부산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에서 펼쳐진다.

- 6월 3일(수) 오후 7:30
 - 축하공연 아일랜드 Iseli-Chiodi Dance Company ‘You and Me Seeing’
 -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신무섭 ‘Carmen’ 김영진 ‘Take Two’ 하정오 ‘Poisoning(중독 [中毒])’

- 6월 4일(목) 오후 7:30
 - 공식 폐막식 및 AK21 국제안무가 육성 공연
 - 축하공연 아르헨티나 La Compania ‘K. Impression’ 심새인 ‘통, Reorganization’ 이경은 ‘굿, Night’ 김형남 껍질
 - 축하공연 캐나다 ZOGMA ‘Excerpt From Rapailé’
 - AK21 국제안무가 육성 공연 장학금 시상식-최우수상 천마상, 우수 백마상, 장려 흑마상
 - BDF 폐막선언

- 관람료 균일 30,000원(할인권 지참시 15,000원)
- 문의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515-2949)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프로그램

성가합창/영원히 주 찬양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치
럼 사랑하사, 믿음 안에
서, 내 주님 가신 길
가스펠 솔로/친구야,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등 수곡

- 지휘/이외군 · 반주/김은경
- 특별출연/윤향기(목사), 주현(트럼펫), 삼손중창단

- 관람료 초대
- 문 의 김혜정(010-9607-3044)

조영문, 차미소란 피아노 듀오 콘서트

6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조영문

차미소란

동아대학교 교수
로 재직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영문,
차미소란 교수가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연주회.

부산음악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조

영문, 차미소란은 부산의 피아노 음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라벨/스페인광시곡
바흐/칸타타 아리아 중

- 관람료 초대
- 문 의 조영문(011-9529-1784)

피아니스트 박미은 독주회

6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대학교, 독일 쾰른 국립음대 피아노
솔로,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가곡 반
주과를 졸업하고 현재 고신대, 울산대, 동
서대 대학원 등에 출강하고 있는 피아니
스트 박미은 독주회.

수차례의 독주회와 협연 무대 등 200여
회의 연주활동을 펼쳐온 박미은은 3장의
반주 CD를 출판한 바 있다.

프로그램

스카를라티/소나타 L. 413, L.465

부산시립극단 제35회 정기공연 지금...여기!(Ce Formidable Bordel)

6월 4일-6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4:00 소극장



연출 김지용

루마니아 출신의 프랑스 작가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부산시립극단 제 35회 정기공연 '지금...여기!'.

한국 초연작품 '지금...여기!(Ce Formidable Bordel)'는 평범하기 그
지없는 주인공 황창기가 로또에 당첨되고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감언이
설로 유혹하나 그는 그들을 비웃으며 사라진다. 단순한 일상 속에서 지쳐
가던 중 천사 같은 여지선을 만나 같이 동거를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곧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그의 사랑을 원하던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
하는 그에게 이별을 고한다.

연출가 김지용은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극작/연출가
로 제 23회 부산연극제 희곡(PLAY-Oasis), 2006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 당선(가출소녀 우주 여
행기), 제 24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희곡상, 연출상(PLAY5-Mankind history), 제 24회 전국
연극제 금상, 2008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그 섬에서의 생존방식)당선 등 다수 수상한 바 있다.

· 작/E. 이오네스코 · 번역/정보임 · 연출/김지용

출연

박찬영, 유성주, 이돈희, 정행심, 이현주, 김은희, 염지선, 황창기, 이혁우 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6137)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2009 웰빙 콘서트 시리즈Ⅲ 오페라와 11시에 만나요! '푸치니의 여인들'

6월 9일 화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
해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09 웰빙콘서
트 시리즈 3번째 무대 '오페라와 11시에 만나요!-푸치니의 여인들'.

부산시립극단 배우들이 펼치는 재미있는 콩트로 시작되는 이번 무대는 오페라의 거장 푸치니의
주요 오페라에 등장하는 사랑의 장면을 소프라노 김유섬, 이정아, 테너 김지호, 전병호, 홍지형의 화
려한 음성으로 들려준다.

해설을 맡은 장일범은 월간 객석 기자를 역임하고 현재 KBS 클래식FM '장일범의 생생 클래식',
CBS-TV On stage 'Forte', 고양아람누리 토크쇼 '장일범의 예술가와 만나고 싶다', 성남아트센
터 '마티네 콘서트' 등 진행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마농 레스코/ '간주곡' '일찍이 보지 못한 미인'
라 보엠/ '그대의 찬송' '내 이름은 미미' '사랑의 이중창'
나비 부인/ '핀커톤과 초초상의 이중창'
투란도트/ '들어주십시오' '류여, 울지마라!'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해설/장일범 · 콩트/부산시립극단
- 협연/소프라노 김유섬, 소프라노 이정아, 테너 김지호, 테너 전병호, 테너 홍지형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이동신

장일범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17번 '폭풍'
 몬티/차르다시
 라벨/스카르보 등 수곡
 · 우정출연/백재진(바이올리니스트, 동의대학교 교수)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문화(633-8990)

부산시립극단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기획공연 젊은 연출가 공모 당선작 의자

6월 9일-10일 화-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연출 오치운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공연 작품 '의자'는 '인생은 한편의 코미디'라는 설정의 작품으로,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 끝없이 놀이를 펼치는 인물들이 이오네스코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지하의 공간에 갇혀 있는 두 사람, 너무 오래되었지만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그들은 구출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연한 시간을 견디면서 살아가기 위해 매일 그들의 놀이를 즐긴다.

- 작/E. 이오네스코
- 번역/오세곤
- 연출/오치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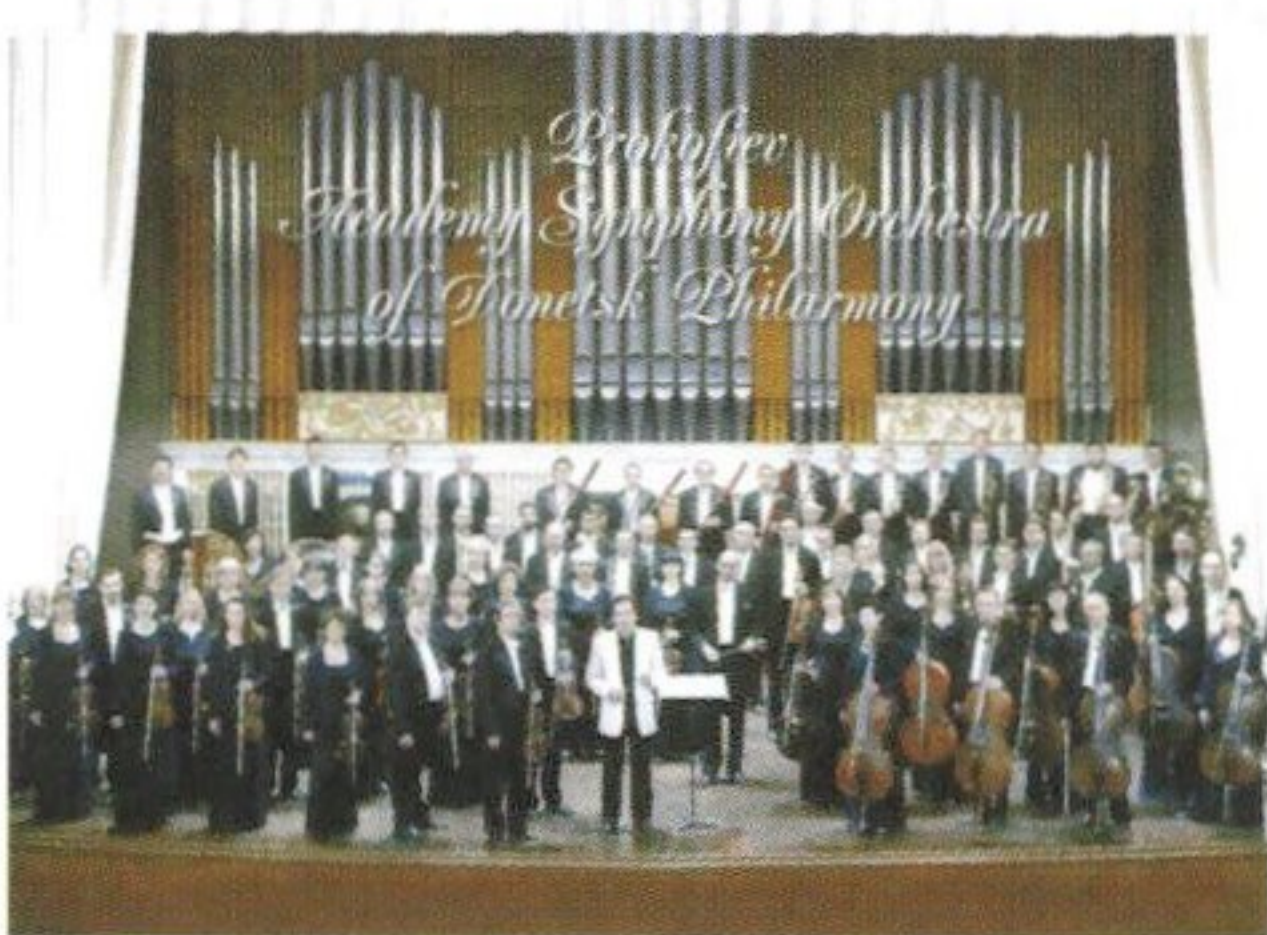
출연

양효윤(노인), 하현관(노파)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7)

한국-우크라이나 교류음악회

6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예프 필하모니가 들려주는 한국-우크라이나 교류음악회.

프로그램

멘델스존/서곡 핑갈의 동굴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3번
 라로/첼로협주곡

모차르트/모차르트 플룻협주곡 제 2번 라단조 K.314 등 수곡

- 지휘/돌린스키(상임지휘자)
- 협연/이승은(피아노, 신라대학교 4년), 박소영(소프라노, 부산예고 2년), 최단비(첼로, 부산예고 3년), 신서우(플루트, 부산예고)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622-3336, 010-9798-9434)

첼리스트 송영훈 오리지널 탱고 부산

6월 15일 월요일 오후 8:00 중극장

남미음악에 특별한 애정을 지닌 첼리스트 송영훈과 '탱고 황제'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 밴드의 피아니스트 파블로 징어(Pablo Zinger), 떠오르는 클라리넷 주자 호세 프랑크 발예스테르(Jose Franch-Ballester)가 들려주는 정통 아르헨티나 탱고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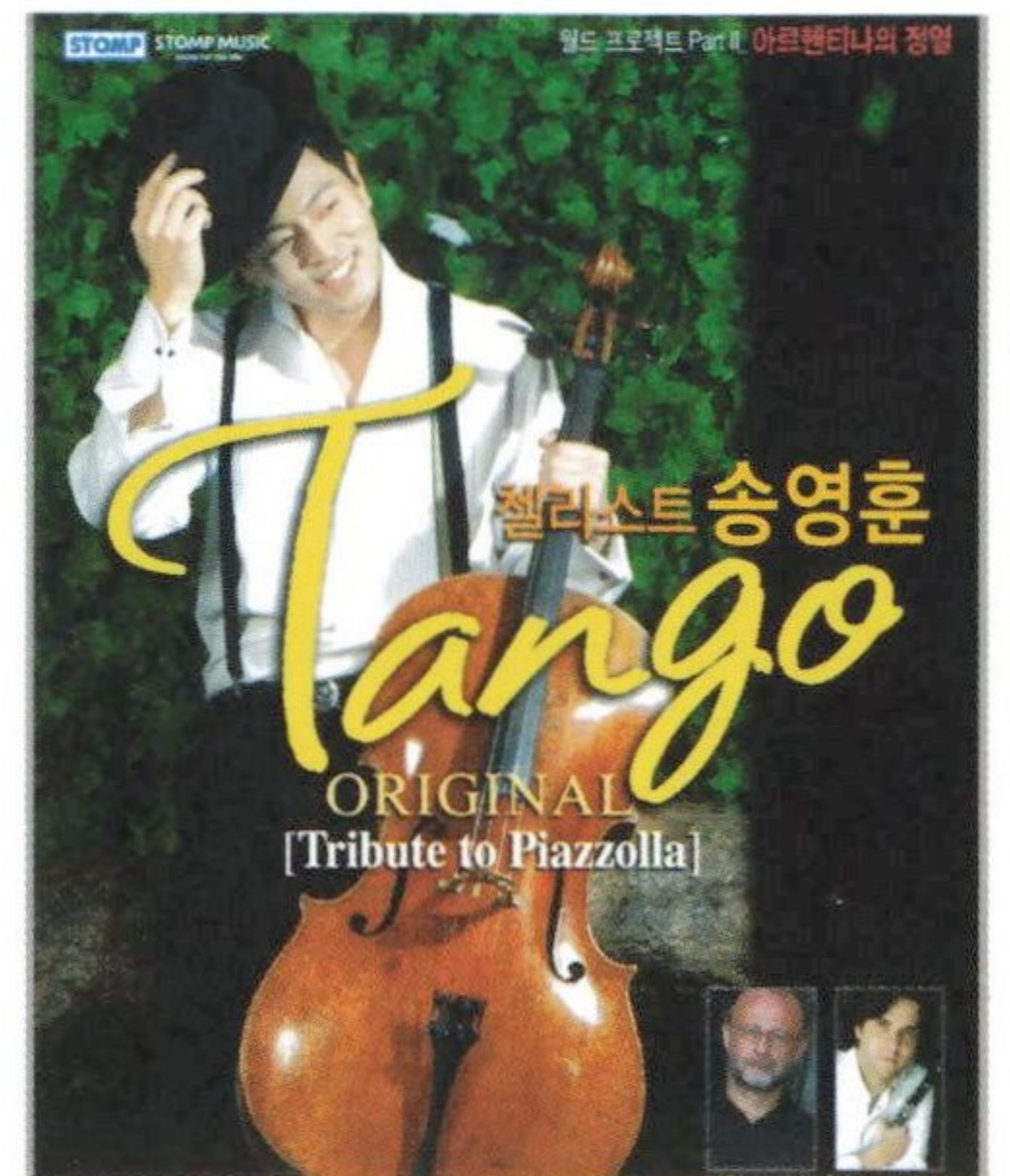
6월 초부터 대전, 대구, 부산, 전주, 서울 등 총 6개 도시에서 열리는 '오리지널 탱고'는 송영훈과 남미 본토의 피를 이어받은 두 연주자가 일상의 나른함에 지쳐 환상과 일탈을 꿈꾸었던 이들에게 탱고의 대명사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영상에서부터 <여인의 향기>,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카페> 등 탱고가 등장한 영화 음악 등 격렬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정통 아르헨티나 탱고의 정수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A Concagua
- Milonga Para Tres
- The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 New Melody of Old Tangos
- Bailongo
- Tango callejero
- Adios Nonino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 A석 22,000원

■ 문의 더 스톱프(02-2658-3546)



6월 한낮의 유콘서트 -재즈빅밴드와 떠나는 영화음악 여행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1:00 대극장

버클리음대를 졸업한 김남균 단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즈그룹 '서울재즈빅밴드'와 풀잎사랑의 가수 최성수가 들려주는 6월 한낮의 유콘서트-재즈빅밴드와 떠나는 영화 음악 여행.



서울재즈빅밴드



최성수

2007년 결성된 서울재즈빅밴드는 '해피재즈'를 컨셉으로 'Happy Jazz On Cinema', 'Happy Jazzday To You', 'Happy Jazz & Swing dance' 등 친근하고 즐거운 재즈공연을 선보여 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울재즈빅밴드 스타일로 새롭게 편곡한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의 'My One And Only Love', 영화 '카사블랑카'의 'As Time Goes By', 영화주제곡 메들리(미션임파서블, 007, 핑크팬더)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재즈로 재해석하여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들려준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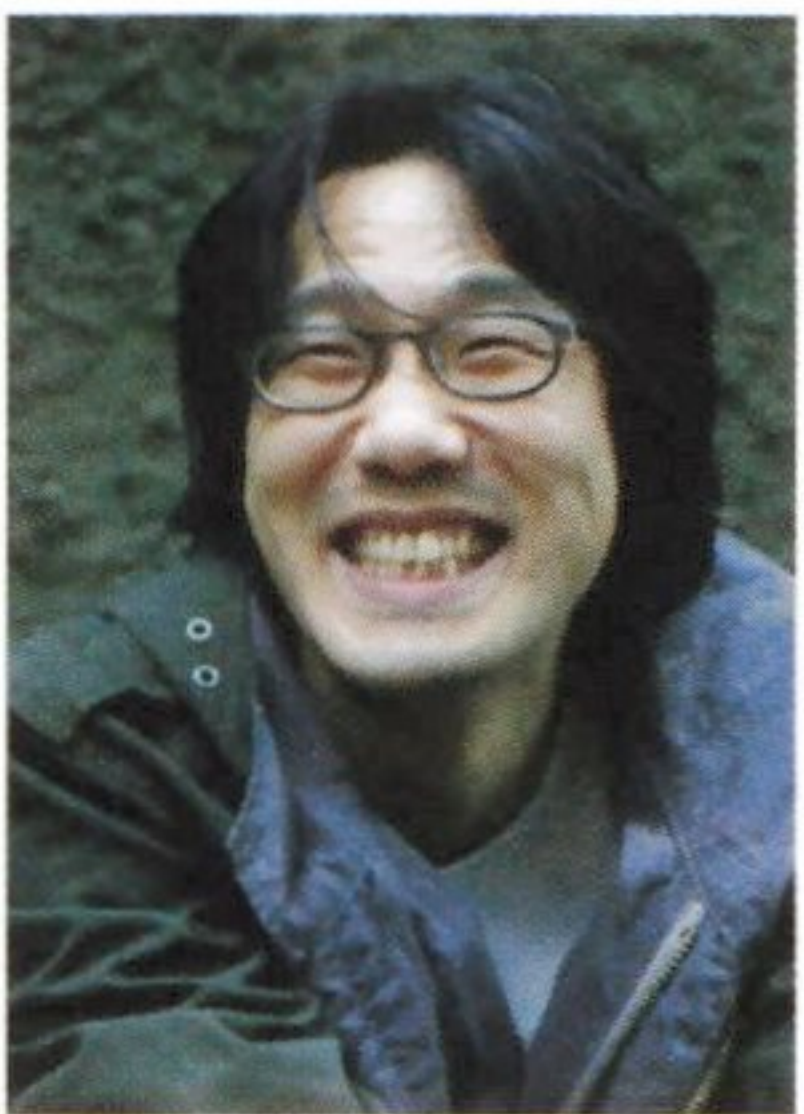
Take The 'A' Train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 중), Mo Better Blues(영화 '모 베티어 블루스' 중), As Time Goes By(영화 '카사블랑카' 중), Fly Me To The Moon(영화 '에반게리온' 중), La Vie En Rose(영화 '라 비앙 로즈' 중), My One And Only Love(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중), Theme From Mission Impossible(영화 '미션임파서블' 주제곡), 007(영화 '007' 중 제임스 본드 테마), 핑크팬더(영화 '핑크팬더' 주제곡), 해후, 풀잎사랑, 동행

■ 관람료 균일 15,000원(국제신문 구독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국제신문(500-5222)

부산시립극단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기획공연 젊은 연출가 공모 당선작 의무의 희생자

6월 12일-6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연출 구현철

슈베르와 마들렌 부부는 뜻밖의 손님 수사관을 만나 '말로'라는 인물 찾기를 강요 당한다. 극중극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은 끝도 없이 진행되며 만화경을 들여다보듯 해괴하고 신비롭고 우스꽝스럽다.

부산비평가그룹선정 '올해의 좋은연극상' 신인연출상 수상을 시작으로 제 16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제 18회 부산연극제 대상, 연출상, 제 21회 부산연

극제 대상, 희곡상을 수상한 구현철이 연출을 맡았다.

- 작/E. 이오네스코 · 번역/박형섭
- 연출/구현철 · 안무/강희정

출연

최웅, 진선미, 유재명, 유성주, 조문정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

제 19회 전국시낭송경연대회 부산예선

6월 14일 **일요일 오후 2:00** 소극장

아름다운 시의 감동을 전하는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 부산예선.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로 나뉘어 경연을 펼치고 최우수 수상자는 11월에 열리는 전국대회에 부산대표로 참가한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재단 법인 재능문화(862-5661)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 13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6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금난새

황세미

김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2009 다이나믹 부산 - 그랜드 콘서트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싱그러운 6월을 맞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특별연주회 '2009 다이나믹 부산-그랜드 콘서트'.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의 지휘와 부산의 대표적 민간오케스트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세계적 명성의 미국 커티스음대 단 첼코 교수의 바이올린, 테너 강학윤, 바리톤 박대용, 소프라노 김정아의 성악, 고신대학교, 경성대학교 합창단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클래식음악 팬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다이나믹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 차이코프스키/ '1812년' 서곡
-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 사단조 작품 26
- 비제/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 오르프/ '카르미나 브라나' 중 '운명의 여신이며' 등 수곡
- 지휘/오충근(수석 지휘자)
- 협연/단 첼코(바이올린), 김정아(소프라노), 강학윤(테너), 박대용(바리톤)
- 합창/고신대학교 페로스합창단, 경성대학교 합창단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010-8508-8310, 663-4918, www.bso21.com)



레이디스 필 앙상블 정기연주회 레이디스 필과 먼저 만나는 여름 이야기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소속의 여성 연주자들로 구성된 레이디스 필 앙상블 정기연주회.

탄탄한 연주력과 품격 있는 음악성을 바탕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레이디스필 앙상블은 2006년 창단 이후 정기 및 특별연주회를 통해 섬세하고 부드러운 실내악 특유의 아름다움을 선보여왔다.

부산문화회관 및 을숙도문화회관 초청 연주회, 태교 음악회, 학교 방문 음악회, 장애우를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정통 클래식은 물론 팝, 동요, 영화음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을 선보여온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오는 6월 정기연주회에 이어 2010년 2월에는 일본 아크로스 홀 초청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프로그램

- 안토니오 비발디/ '사계' 중 '여름' 작품 8-2,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 Rv.547
- 아스토르 피아졸라/ '사계' 중 '여름', D장조 밀롱가, A단조 멜로디, 탱고 발레

연주

김은정, 최방주, 한아름, 양혜원(이상 바이올린), 최영화, 박소영(이상 비올라), 전수정(첼로), 임미형(더블 베이스), 서송은(객원 첼리스트)

- 바이올린/김동욱 · 첼로/양욱진 · 해설/이동신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010-4564-7592)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2006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향 단원들과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주자 100여명으로 결성된 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U.K.O는 2006년 11월 9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창단연주회를 기점으로, 2007년 9월 부산과 LA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이루어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주회, 2008년 1월 제주 초청 연주회 등 현재까지 총 12회의 연주회를 가졌다.

프로그램

주제/ '경기병' 서곡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작품 622 중 제 1악장
생상/교향시 '죽음의 무도' 사단조 작품 40
사라사테/피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등 수곡
· 지휘/김난새 · 마림바/황세미 · 클라리넷/김한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정희재(011-589-3111)

부산시립극단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기획공연 젊은 연출가 공모 당선작 왕은 죽어가다-레퀴엠

6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외젠 이오네스코의 베랑제 연작 네 편 중 1편에 해당하는 '왕은 죽어가다-레퀴엠'은 베랑제 1세의 죽음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베랑제 1세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고 있다.

자기 삶의 왕인 한 인간의 의식의 흐름과 죽음의 수용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해본다.

연출 심문섭 · 작/E. 이오네스코 · 번역/오세곤

· 각색, 연출/심문섭

출연

강원재, 정애경, 박지현, 시립극단 단원 외 80명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7)

멜로매니아 창립 15주년 기념 제 15회 정기연주회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아마추어 남성성악가 그룹 멜로매니아가 들려주는 창단 15주년 기념 연주회.

의사, 교수, 사업가, 대학총장, 은행원 등 남성 전문직업인들로 구성된 멜로매니아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14회, 회원 독창회 6회 등에서

부산시립합창단 제 129회 정기연주회 펠릭스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Elijah)'

6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멘델스존의 탄생 20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아(Elijah)'.

독일 낭만파가 낳은 최대의 작품의 하나인 '엘리아(Elijah)'는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더불어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불리는 작품이다.

바하, 헨델의 종교 작품에 영향 받아 푸가를 이용한 충실한 구성미, 로맨틱한 선율, 색채적 관현악법이 조화된 극적 박력이 넘치는 이 작품은 구약성경의 내용을 그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다.

'엘리아'는 히브리말로 '여호와 신(神)이다'라는 뜻으로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 신앙을 잃지 않았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 협연/바리톤 정록기
- 특별출연/대구시립합창단
- 관현악/부산시립교향악단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5)



김강규

정록기

하이든 서거 200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0회 정기 연주회 제 10대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취임연주회

6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20세의 나이로 중국 센트럴 필하모닉, 상하이 심포니 등 중국 정상급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하며 촉망받는 젊은 연주자로 돌풍을 일으킨 리 신차오 취임연주회.

제 1회 중국 국립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제 45회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 결승에 올라 세계를 놀라게 한 리 신차오는 그동안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도 비범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1999년부터 중국국립교향악단을 지휘하고 있는 리 신차오는 2006년 중국국립교향악단의 한국과 미국 순회 연주회를 이끌었다.

특히, 리 신차오는 미국 연주 후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으로부터 '힘이 넘치는 지휘자 리 신차오는 이따금 그들만의 어법과 표현력으로 설득하면서도 여전히 서구 스타일을 놓지 않고 있다' '리 신차오는 고향에서 가져온 모든 것으로 훌륭히 적응하는 지휘자임을 증명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프로그램

R.슈트라우스/교향시 '돈 후안' 작품 20
하이든/교향곡 제 96번 라장조 '기적' 작품 1/96
말러/교향곡 제 1번 라장조 '거인'
· 지휘/리 신차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다수 연주무대를 통해 전문 성악가 못지 않는 실력과 열정을 쌓아왔다.

프로그램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안정준/가을의 기도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등 수곡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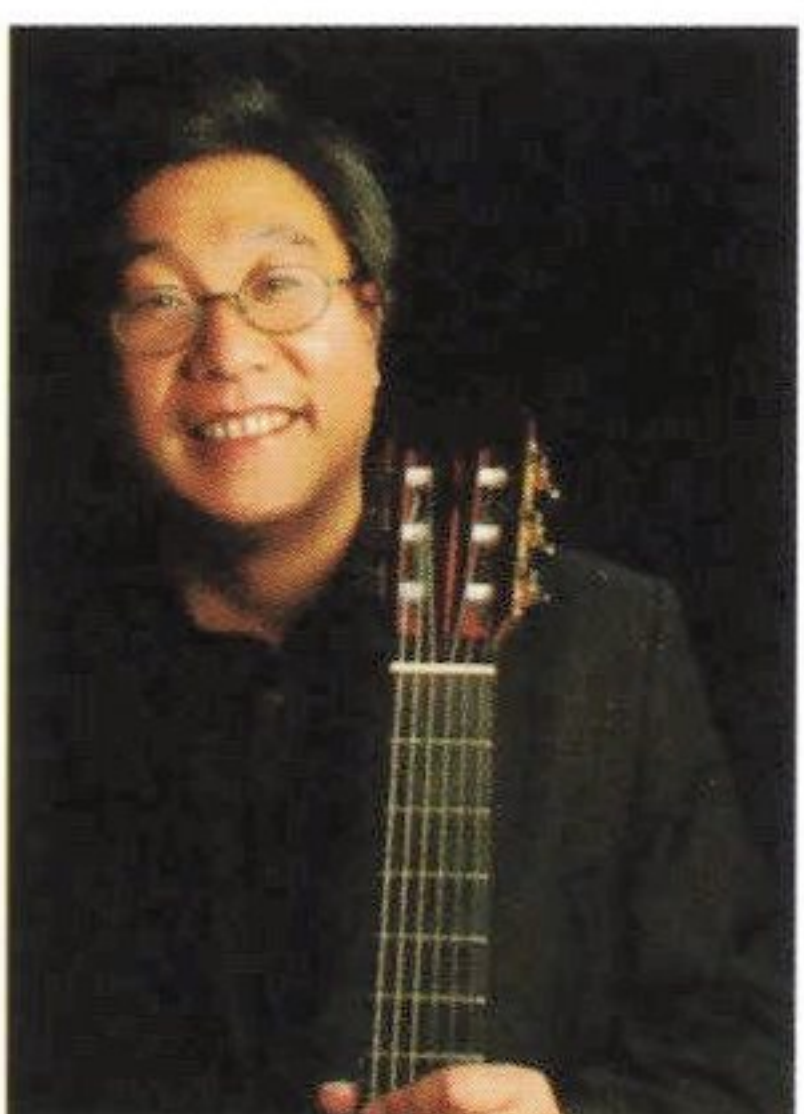
테너 차희중, 김덕영, 최성협, 오거돈, 원요한, 석동호
바리톤 한성권, 민정식, 김성홍
· 지도/박광하 · 피아노/곽윤희

■ 관람료 초대

■ 문의 멜로매니아 김성홍(011-9543-9378)

고충진 클래식기타 연주회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제 2회 대전일보사 주최 전국 클래식기타 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독주회.

고충진은 독일 알고우 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합창단, 루마니아 박카우 필하모니 등과의 협연무대, 브라만기타트리오 멤버로 푸쉬킨극장 초청 러시아극동지역 순회공연, 2008 대전 기타페스티벌, 2009 제주 기타페스티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귀도 산토르솔라/Preludio From Suite Antiga
텔레만(Arr:Carlo Marchione)/판타지아 제 7번 내림마장조
줄리아니/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듀엣 'Gran duo concertante'
작품 85

이동준/태극기 휘날리며 등 수곡

· 바이올린/조현미(신라대학교 교수)
· 하모니카/이성규(극단 에저또 음악감독)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 문의 부산문화(633-8990)

닥터스 빅 밴드(DOCTORS BIG BAND) 제 8회 정기연주회

6월 20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의사 밴드로 1999년 창단된 닥터스 빅밴드가 들려주는 제 8회 정기연주회.

2009 조지 윈스턴 내한공연 S.U.M.M.E.R.

6월 27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지난해 'Winter Concert'란 테마로 겨울의 애뜻함을 담은 곡들을 선보인 조지 윈스턴이 여름의 정서와 자연에 대한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Summer Concert'로 한국 팬들을 찾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Autumn' 'December' 'Forest' 'Montana - A Love Story' 등 기존 앨범의 수록곡 뿐만 아니라 'Beverly' 'Urban Lullaby' 등 새로이 발표할 곡들을 한국의 관객들에게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그 스스로 자신의 음악을 '전원적 포크 피아노 연주자(Rural Folk Piano Player)'로 표현하고 있는 조지윈스턴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연주의 피아니스트로 그동안 계절의 변화와 공기, 바람, 물과 같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깊고 따뜻한 울림을 가진 피아노 연주로 감동을 선사해왔다.

프로그램

New Orleans Shall Rise Again #4, Rain, It was a Short Summer Charlie Brown/Woodstock, Cat & Mouse, Hawaiian Slack Key Guitar Piece Opihi Moemoe, Fragrant Fields, Beverly, Urban Lullaby, Pixie 등 수곡

■ 관람료 VIP석 88,000원 · R석 77,000원 · S석 55,000원 · A석 33,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에스엠기획(1600-1602)

양욱진 첼로 독주회

7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화 경향콩쿠르, 예원콩쿠르, 줄리아드 콩쿠르에 우수한 양욱진은 줄리아드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KBS 교향악단,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New Amsterdam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 베토벤 첼로소나타 전곡연주회, 1 트리오 연주회, 2009 부산국제음악제 등에서 음악애호가들과 만나왔다.

미국 College of Morris에서 음악교수 겸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역임한 양욱진은 2007년 귀국,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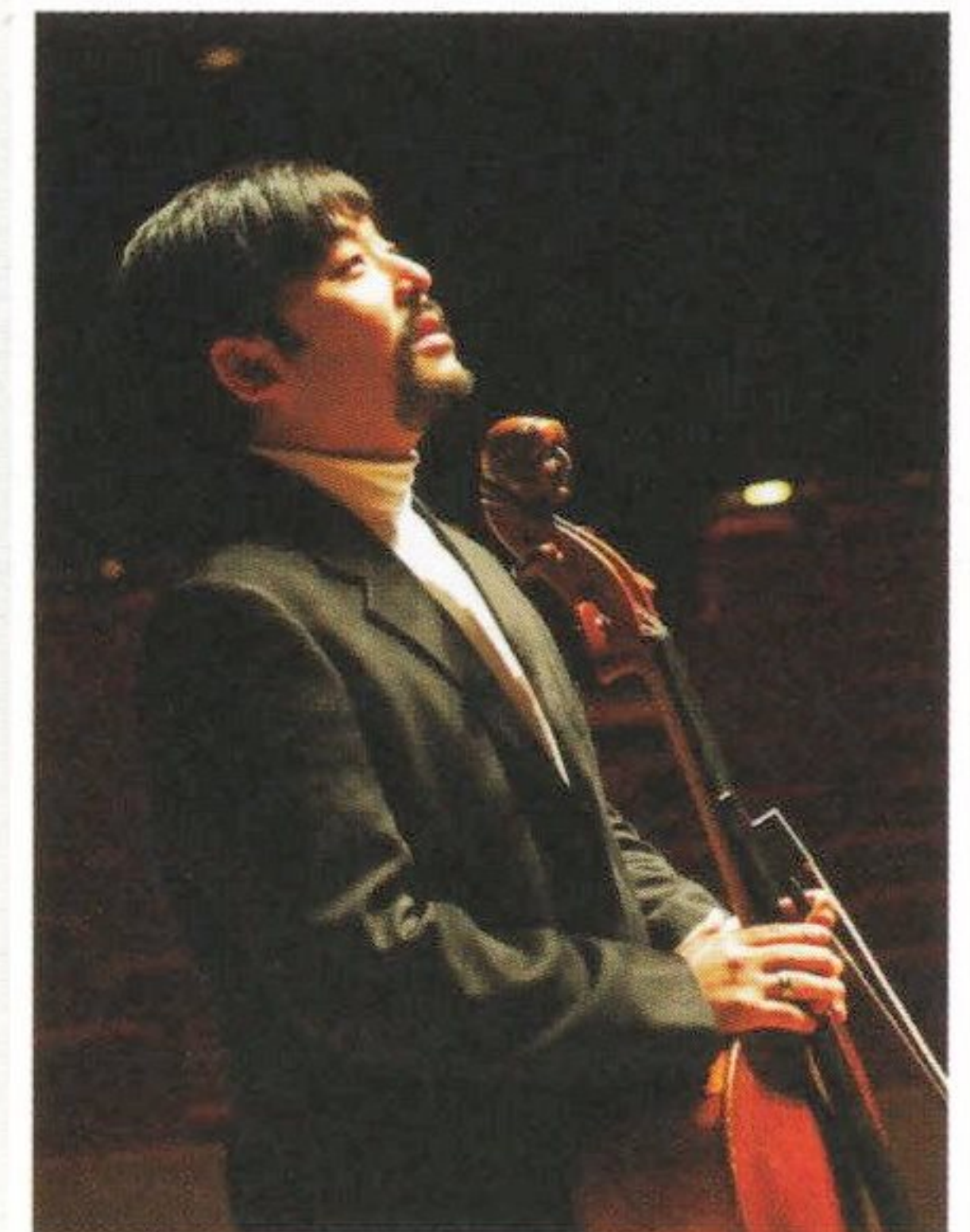
부산에서 가장 많은 음악팬을 확보하고 있는 양욱진은 이번 무대에서 현대작곡가인 리게티와 크롬브의 첼로 솔로소나타를 부산에서 초연하고 포퍼의 헝가리안 랍소디, 쇼팽의 폴로네이즈 블리란테, 부루흐의 콜 니드라이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첼로 소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포퍼/ 첼로솔로 소나타
크롬브/첼로솔로 소나타
쇼팽/폴로네이즈 블리란테
부루흐/콜 니드라이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현재 40여명의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닥터스빅 밴드는 부산시 의사회 학술대회, 온천천 환경, 문화축제, 부산 자갈치 축제, 환우를 위한 송년 음악회 등에서 흥겨운 Jazz와 대중음악들을 연주하며 음악으로 대중에게 봉사해왔다.

· 지휘/정흥기

■ 관람료 초대

■ 문의 닥터스 빅 밴드 강창욱(011-843-0987, cafe.daum.net/dbb1999)

오아시스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6월 20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2006년 다음카페에 '오아시스 앙상블'을 개설하면서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오아시스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음악나눔 연주회, 양산 유채꽃 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프로그램

드블락/신세계 교향곡

영화음악/The Entertainer(영화 스팅 주제곡), Gabriel's Oboe(영화 미션 주제곡), The Phantom Of The Opera(오페라의 유령), Pirates Of The Caribbean(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주제곡)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등 수곡

· 지휘/김하균

■ 관람료 무료

■ 문의 오아시스심포니오케스트라(017-575-5233)

부산모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6월 27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60명의 관현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단체 모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번째 정기연주회.

모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Mono'라는 이름에 걸맞게 직업, 나이, 전공 여부에 경계를 두지 않고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 왔다.

프로그램

주페/시인과 농부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 2번 제1악장

본 윌리엄스/English Folk songs 등 수곡

· 지휘/정흥기

· 협연/황희경

■ 관람료 초대

■ 문의 정흥기(016-561-6047)

강동환(010-2059-0097)

인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제 35회 정기연주회

6월 28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음악적 열정을 기초로 '열린' 오케스트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로시니/윌리엄텔 서곡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 5번

라벨/피아노협주곡 사장조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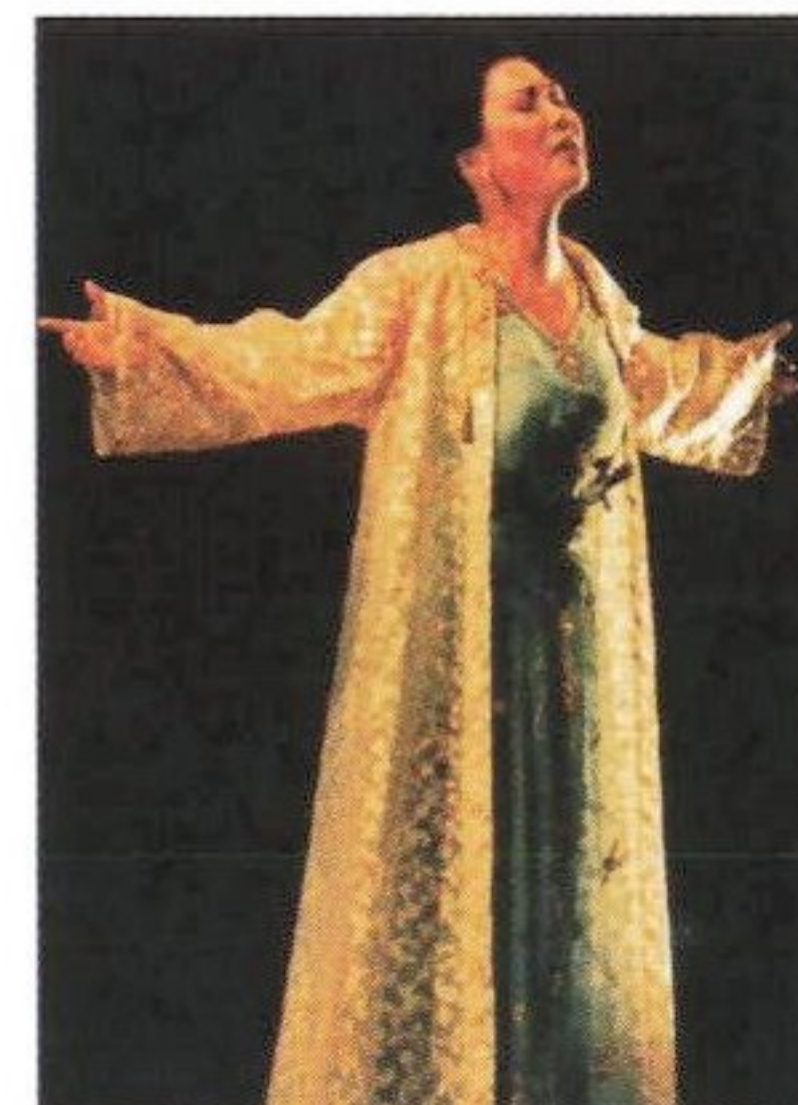
· 협연/장형준(서울대학교 교수)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장은정(017-842-6688)

소프라노 박은주 First Concert in Busan

7월 4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크리스탈 같은 음질과 때론 세련되고 우아하게 때론 거침없는 불꽃같은 열정적인 연기력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소프라노 박은주 부산 독창회.

· 특별출연/테너 이정원

· 피아노/알렉산더 빈터스

■ 관람료 VIP 150,000원 · VIP 120,000원

R석 8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 문의 솔오페라단(1544-9373, 500-5222)

책사랑54년 대형서점

지하1층~지상5층

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과장아님)

국산/외국산 최상품 지구본 취급

▶국산·소·중·대·초대형·위성·지세·행정 20%할인
▶외국산·세계·매출·최고·독일·스텔라노바·소·중·대·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들고, 한·영문 지명·선물·최고(교구용)

지도의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

★정부발행지도 지정판매처!

▶1:3000도 판매 각처의 사용 용도에 맞게
주문하는 크기로 연결코팅해 드림

▶관내도, 금융기관, 부동산업, 각업소 참고도면
▶건설, 유통업, 택배, 기타 각업체 필요부분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지번도면 확대축소
★전국사·도별, 전국교통관광, 국내외 관광책자

대형액자지도, 지구본 매장관람환영!

초지일관 · 양심경영

○ 해사도서전문 취급 및 출판 ○ 전국 최고의 종합지도센터

Since 1955



각종일부안내

01 해사도서
기술전문서적,
국정교과서

02 경제경영일반,
03 서고, 컴퓨터관리실

04 문학, 청소년, 만화, 여성도서

05 각종지도
각종외국어서적,
각종사전

06 국산지구본,
수입지구본, 소·중·대형

07 아동, 유아, 잡지, 도서문화상품권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몰 건너편]

각종 공연예매처
CGV 10%적립, 통도환타자, 경주월드
할인판매처

음악

제 3회 꿈유빌로합창단 정기연주회

6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다성음악 전문합창단인 꿈유빌로합창단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팔레스트리나의 6성부 미사곡 'Quinti Toni'를 한국 초연으로 들려준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이경춘(011-862-4031)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 2일 세르게이 클라체프 피아노 독주회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콘서바토리를 졸업하고 Voronezh Art Academy 피아노과 교수로 활동했던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클라체프 독주회. 세르게이 클라체프는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피아노과 객원 교수로 있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소나타 내림나장조 D.960
리스트/소나타 내림나단조

■ 9일 고전과 낭만의 밤 '6월의 세레나데'

피아니스트 이정화와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트럼피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가 함께하는 듀오무대.

■ 16일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3 '나비부인'

소프라노 김유진, 메조소프라노 이민정, 테너 양승엽, 베이스 김정대가 들려주는 오페라 '나비부인' 갈라콘서트.

■ 23일 Angelis 앙상블 정기연주회



2008년 1월 동래성당 미사 반주자들로 결성된 Angelis 앙상블은 그동안 소외된 우리이웃을 찾아 음악사랑을 펼쳐왔다.

■ 30일 부산색소폰콰이어 초청연주회

2006년 창단이후 2차례의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색소폰의 활성화에 힘써온 부산색소폰콰이어 초청연주회.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가톨릭센터(441-3788)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3일 I 트리오 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 양욱진, 피아니스트 정성흡으로 구성된 I 트리오 연주회.

프로그램

피아졸라/사계
차이코프스키/피아노 트리오 가단조 작품 50

■ 10일 피아니스트 김성숙, 안준희의 프로젝트 콘서트 '듀오음악의 세계-프랑스 편'



김성숙

안준희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성숙과 안준희가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음악의 세계.

비제와 드뷔시, 라벨, 포레 등 프랑스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 17일 아르스 현악4중주단 정기연주회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와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부수석 권남희,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이성호, 신라대학교 외래교수인 첼리스트 하경희로 구성된 아르스 현악4중주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있는 하피스트 김영립이 함께 하는 정기무대.

프로그램

힌데미트/현악 4중주를 위한 Minimax
헨델/하프협주곡 내림나장조 작품 4 제 6번 등

■ 24일 범음 & 가곡의 향연 '3인의 소리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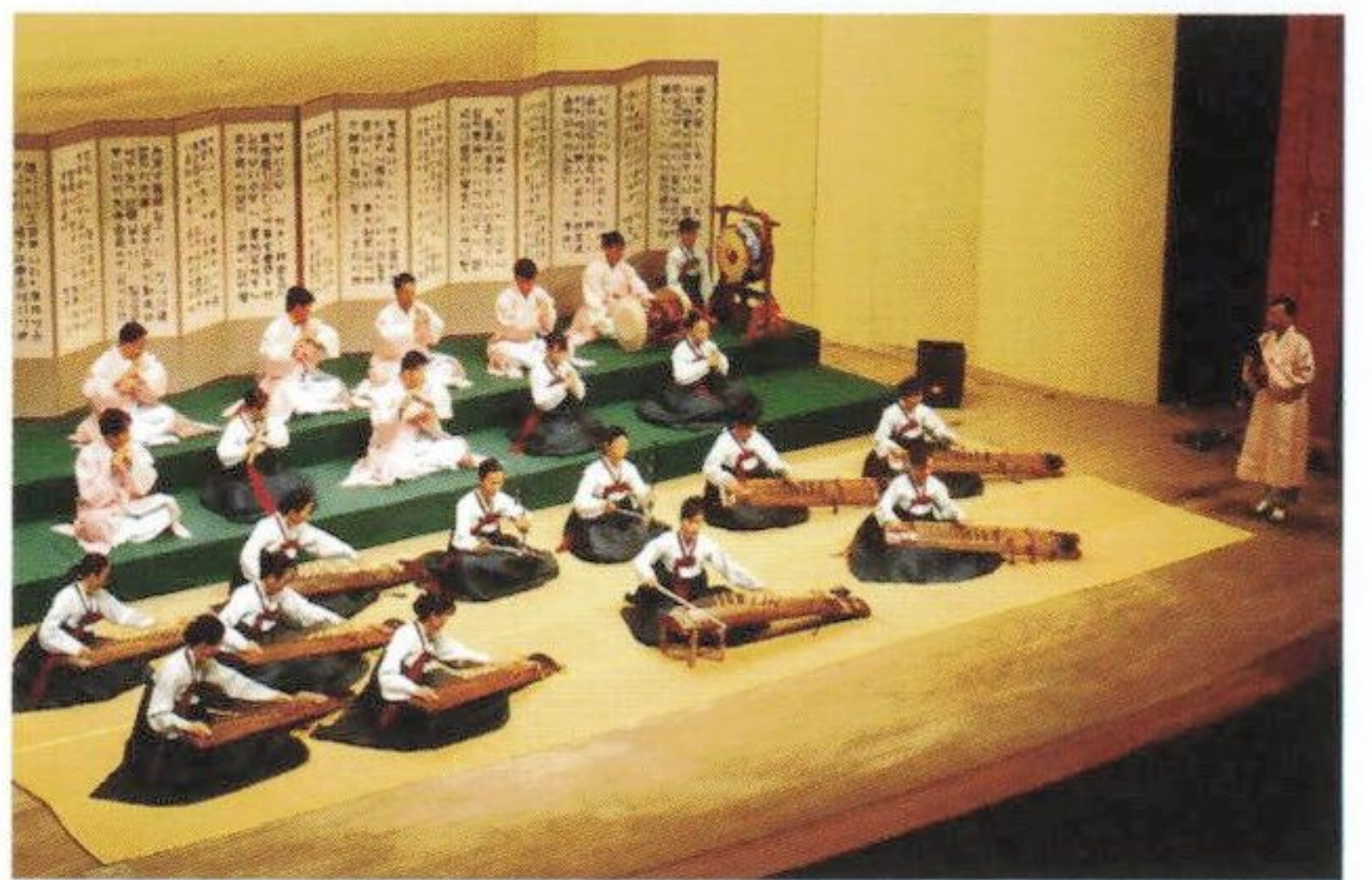
부산여자대학 교수이자 법연원 지휘자로 있는 바리톤 김성국과 메조소프라노 박명란, 바리톤 정성민이 들려주는 범음과 가곡의 향연.

- 피아노/이경진
- 찬조출연/통도사 포교원 불지사 어린이합창단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교사국악회 그루터기 제 7회 정기연주회 추스름-몸과 마음을 다잡으며

6월 4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 및 경남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결성된 교사국악회 그루터기의 7번째 정기연주회.

정악 및 민속악, 창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수연장지곡, 강백천류 대금산조, 세악 '태평가', 가야금 제주 '하마단', 관현악합주 '신푸리', 민요 '태평가, 뱃노래, 자진뱃노래' 등

- 관람료 무료
- 문의 박의택(016-278-8995)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제 2회 Aria's Festival

6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6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지역 성악가들과 성악전공자들이 출연, 국내외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5일 출연/테너 강승완, 강정결, 강홍모, 소프라노 구예윤, 전수경, 박영은, 정정임

· 6일 출연/소프라노 정명지,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임충진, 베이스 김정태
· 특별출연/신곡 '노래좋아' 어머니합창단

- 관람료 균일 5,000원(6일은 균일 10,000원)
- 문의 문대진(011-9526-8929)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제 14회 정기연주회 Catch me if you can!!

6월 7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96년 창단 이후 100여회가 넘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사랑받은 국내 최고의 클라리넷 4중주단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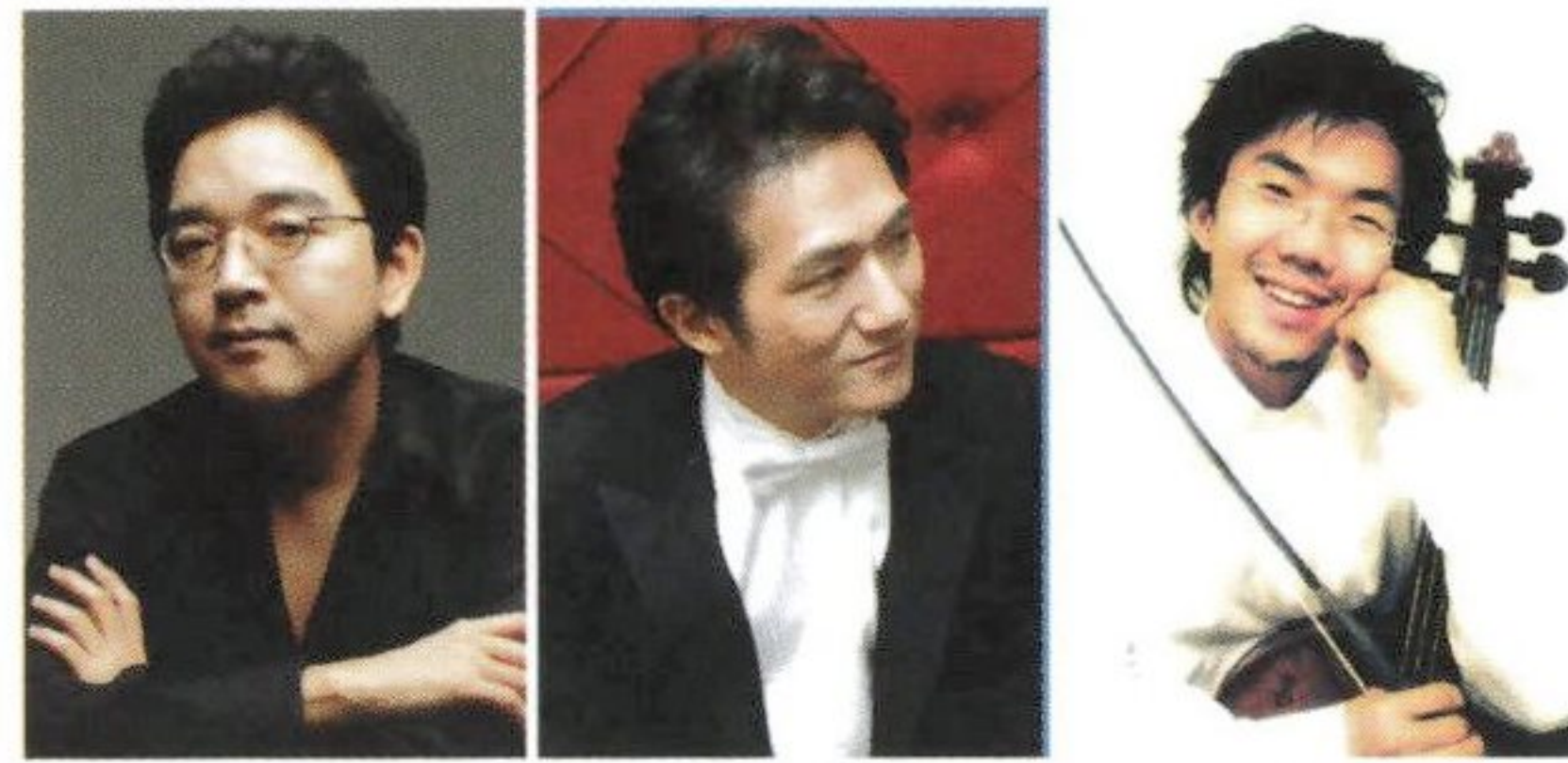
J. 윌리엄스/Catch me if you can
모차르트/5중주 등 수곡

· 연주/김태훈(리더), 권병욱, 박아름, 이성관
· 특별출연/김재현(클라리넷)

- 관람료 균일 10,000원(전화 예매시 20% 할인)
- 문의 부산클라리넷콰르텟(010-2962-5082)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66회 정기연주회

6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김동욱 유영욱 전준승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과 '한국의 베토벤' 피아니스트 유영욱, 첼리스트 전준승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슈베르트/피아노 소나타 제 5번 등

· 지휘/J. M. 스토쉬(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 문의 김영희(010-8519-0448)

Celebration of Contemporary Piano Music

20세기 피아노 음악과의 만남

6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김복수 서양지 임성아

동덕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복수와 임성아, 신진희, 서양지와 함께 하는 20세기 피아노 음악과의 만남.

헝가리 작곡가 바르톡, 불가리아 작곡가 블라니게로프와 카잔지예프, 일본 작곡가 토루 타케미츠, 러시아 작곡가 카발렙스키 등 20세기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임성아(010-2939-1227)

동래문화회관 토요일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2:00 동래문화회관 놀이마당

13일 토요일상설무대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삼남지방의 남도민요, 우아하면서도 격조높은 동래학춤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

20일 토요일상설무대

2008년 5월 클래식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창단한 동래구여성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클래식음악으로의 여행.

27일 토요일상설무대

서로 다른 장르와 조화로운 움직임을 통해 상상력과 재미를 더해주는 로맨틱 코미디 무용 '최재언의 감성유발자'.

- 관람료 무료
-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에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33년 창단, 75년의 역사를 지닌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에프 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무대.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에프 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다양한 해외공연을 통해 우크라이나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연주단체로 평가받아 왔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음악을 향한 열정과 에너지 김진희, 임효진, 최민경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6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김진희 임효진 최민경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부산예고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진희, 임효진, 최민경이 함께하는 듀오 리사이틀.

김진희는 미국 보스톤콘서바토리과 보스톤대학교를, 임효진은 부산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독일 쾰른국립음대를, 최민경은 부산대학교와 독일 트로빙엔 국립음대,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빈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슈베르트/환타지 바단조 D.940
스트라빈스키/페트루슈카에 의한 3개의 악장
브람스/헝가리무곡 등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최민경(010-9496-2687)

암스테르담 뤼키 스타더스트 퀸텟 내한공연-부산

6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리코더 앙상블의 살아있는 전설 암스테르담 뤼키 스타더스트 퀸텟의 첫 내한공연.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는 암스테르담 뤼키 스타더스트 퀸텟은 이번 무대에서 르네상스와 바로크시대부터 피아졸라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들려준다.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문의 한국바로크악기(02-582-1011)

벨리시미와 함께하는 오페라 속의 연인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신라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동문들로 결성된 벨리시미가 들려주는 오페라 아리아의 밤.

벨리시미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이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아름다운 아가씨여'
도니제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산들바람에게 물어보세요'

도니제티/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중 '그 누가 나의 슬픔을 거두어주리' 등 수곡

- 연출/안주는
- 출연/소프라노 이은미, 장은영,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이승우, 이정환, 바리톤 심정보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이은미(010-8277-4746)

제 475회 가람화요음악회 이유미 피아노 독주회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00 가람아트홀



세종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피아니스트 이유미 독주회.

이유미는 세종대학교 신인음악회, 부암아트홀 주최 신인음악회 등 부산과 서울, 미국에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프로그램

맥도웰/숲속의 스케치 작품 51

베토벤/소나타 작품 109 마장조
멘델스존/무언가 작품 30 등

- 관람료 균일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문의 가람아트홀(621-6669)

부산챔버싱어즈 창단연주회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7년 창단된 후 그동안 부산교통공사 초청연주회, 부산정가협 초청연주회, 국가보훈처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아마추어 여성합창단 부산챔버싱어즈 창단연주회.

- 지휘/김현식 · 반주/최은진
- 특별연주/권성은(오보에), 부산남성합창단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현식(011-566-4172)

제 1098회 MBC 목요일음악회 밤의 세레나데

6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1995년 피아노 트리오로 시작,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음악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비루투오조 앙상블 초청연주회.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녹음홀 · 연주홀

GloVil Art Hall

대관 녹음 음반제작
음악영재대안학교 **사론국제음악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장**
음악목사 찬양사·교육기관 **미네소타찬양신학대학원**
말씀·찬양·시편의 교회 **살롬채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T.051-505-5995 Fax.051-505-5935
www.glovil.org email:glovil@paran.com



프로그램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K.525
엘가/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
차이코프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작품 48
등 수곡

- 지휘/윤상운
- 연주/백재진(리더), 이은옥, 조혜운, 하소연, 박광식, 김도경, 조미혜(바이올린), 김은진, 최영식, 임정은(비올라), 정준수, 이예성, 배성아(첼로), 정지원(더블베이스)
- 찬조출연/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초여름 밤의 음악산책

6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심포니 퀸텟 김태형 안성민

피아니스트 박인선,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실, 이지윤, 비올리스트 허유라, 첼리스트 박준형으로 구성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피아노 5중주단이 들려주는 초여름 밤의 음악산책.

관객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영화 주제곡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선율에 맞춘 시조시인 이말라의 시낭송과 풍부하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의 베이스 김태형, 기품과 열정의 소프라노 안성민, 팝페라 재즈싱어 최대호가 출연, 초여름 밤의 낭만을 더해준다.

- 해설/오동주
- 관람료 무료
-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

프라미스랜드 문화프로젝트 목요무대 박은숙 오키리나 연주회

6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프라미스랜드

대청동에 위치한 프라미스랜드에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마련하는 문화예술한마당.

현재 오륙도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오키리나 연주자 박은숙의 오키리나 연주로 마련된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포스커뮤니케이션(010-8422-55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7회 정기 연주회 풍향

6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우리 국악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전 국립국악원 원장 김철호의 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7회 정기연주회 '풍향'.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김희조, 김대성, 백대웅, 이준호의 다양한 창작음악과 부산대학교 박환영 교수가 편곡하고 협연을 맡은 이생강류 대금산조 협주곡 '죽향(竹香)'을 들려준다.

객원지휘자 김철호는 청주시립국악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휘자를 역임하고 2008년 한국예술문화대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 김희조/합주곡 1번
- 김대성/관현악 '선부리'
- 백대성/연변목가
- 박환영(편곡)/이생강류 대금협주곡 '죽향(竹香)'
- 이준호/생황협주곡 '풍향'
- 지휘/김철호
- 협연/박환영(대금, 부산대학교 교수)
허지영(생황, 경기도립국악단 단원)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울속도문화회관(220-5342)

부산교사합창단 제 14회 정기연주회

6월 27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1월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독일 4개 도시 순회연주회를 다녀온 부산교사합창단의 14번째 정기 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무반주 합창곡과 우리가곡, 최신 가요 등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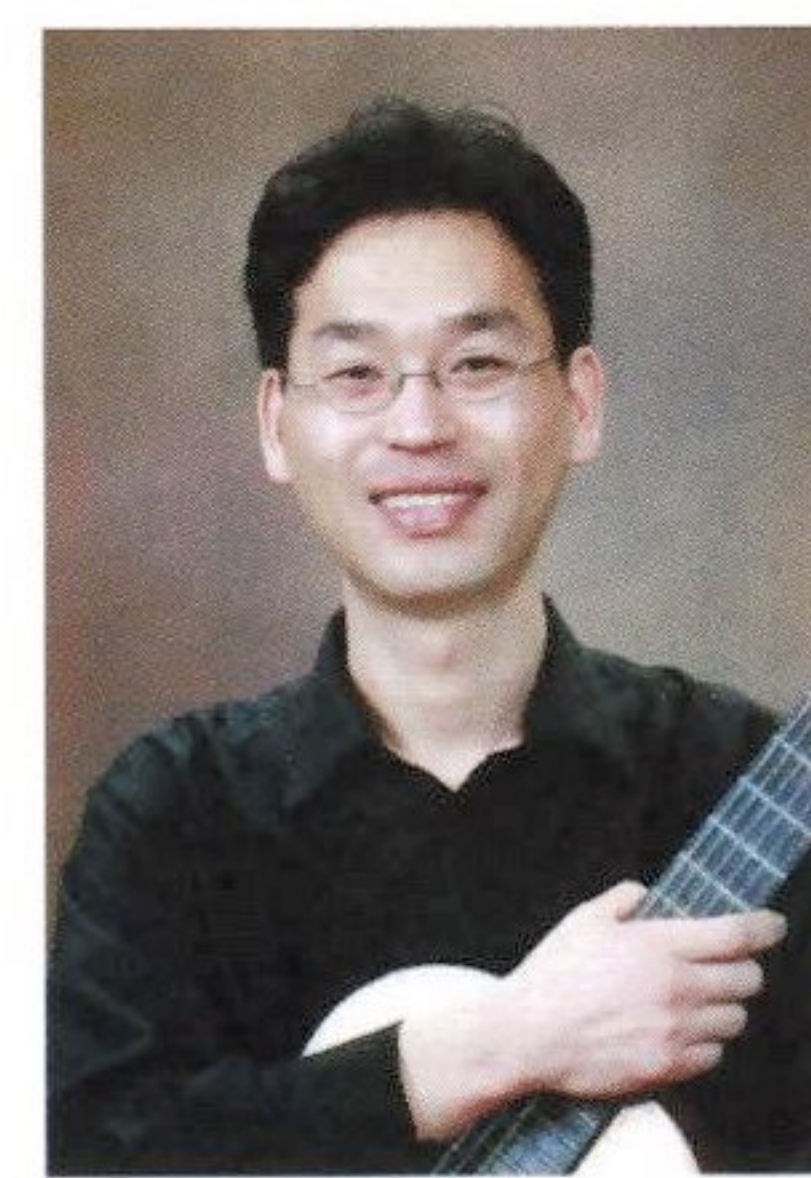
프로그램

- 바흐/모음곡 제 3번 라장조 'Air'
- 토마스 루이스 빅토리아/O Magnum Mysterium
- 올라 기에일로/Ubi Caritas 등 수곡
- 지휘/김강규 · 반주/박정호

- 관람료 초대
- 문의 이성환(010-7294-5088)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이 함께하는 제 18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아코디언 연주자 김의해, 클래식 기타리스트 윤병용 초청연주회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



윤병용

프로그램

- 카르도소/밀롱가
- 망고레/Vals No.3, Vals No.4 등
-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아코디언 연주자 김의해와 독일 로스톡음대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악장으로 활동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윤병용 초청연주회로 마련되는 글로벌 행복음악회.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피아니스트 최윤희 리사이틀 모차르트의 밤

6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최윤희 리사이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와 계명대학교 음악대학원, 프랑스 파리 에꼴노르말 음악원을 졸업한 최윤희는 귀국독주회를 시

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빠어난 감수성과 서정적 피아니즘을 사랑하는 피아니스트'로 호평받아 왔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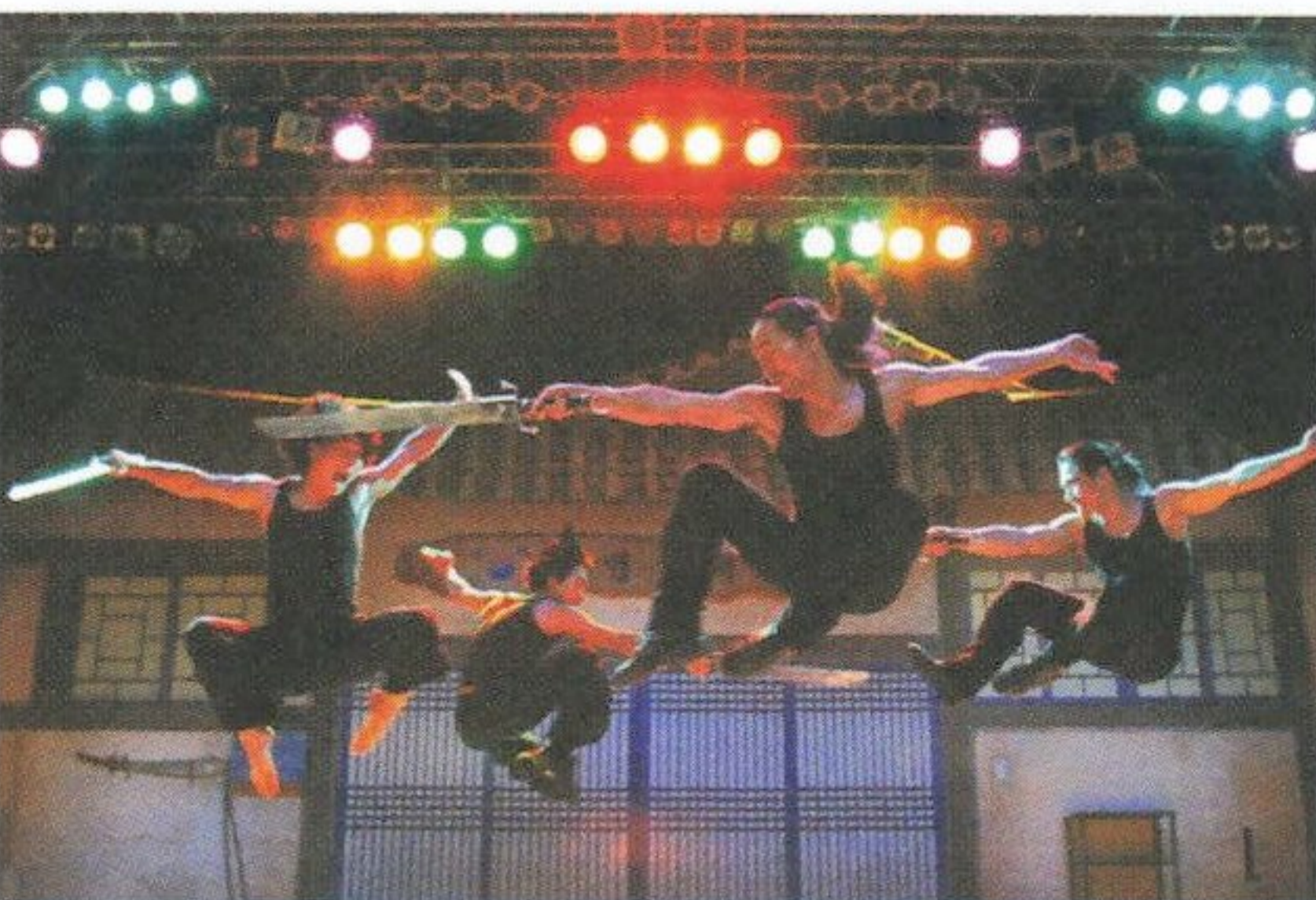
김중욱/The Old Rugged Cross
모차르트/'아, 어머니께 말씀을'에 의한 12개 변주곡
모차르트/소나타 가장조 K.V 331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클래식아트매니저(663-4820)

연극

2009 점프 부산

1월 1일(금)-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IBK 점프부산전용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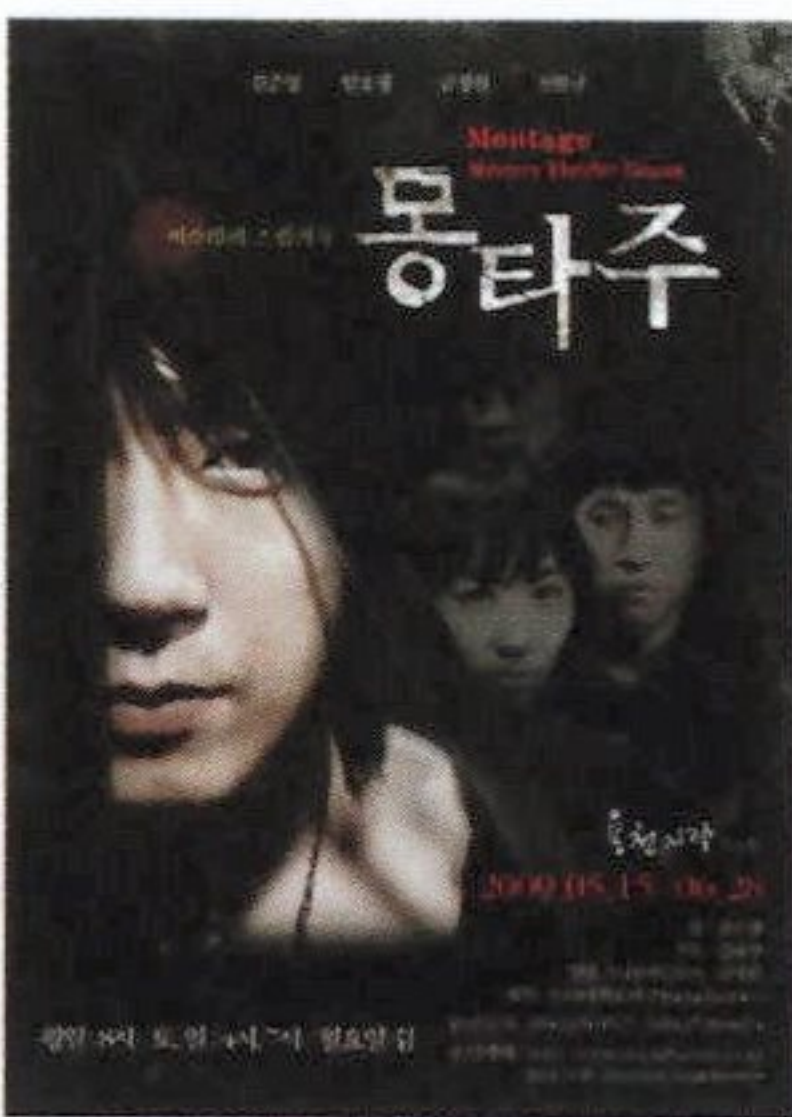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태권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난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주)아트포(744-4885)

미스터리 스릴러극 몽타주

5월 15일(금)-6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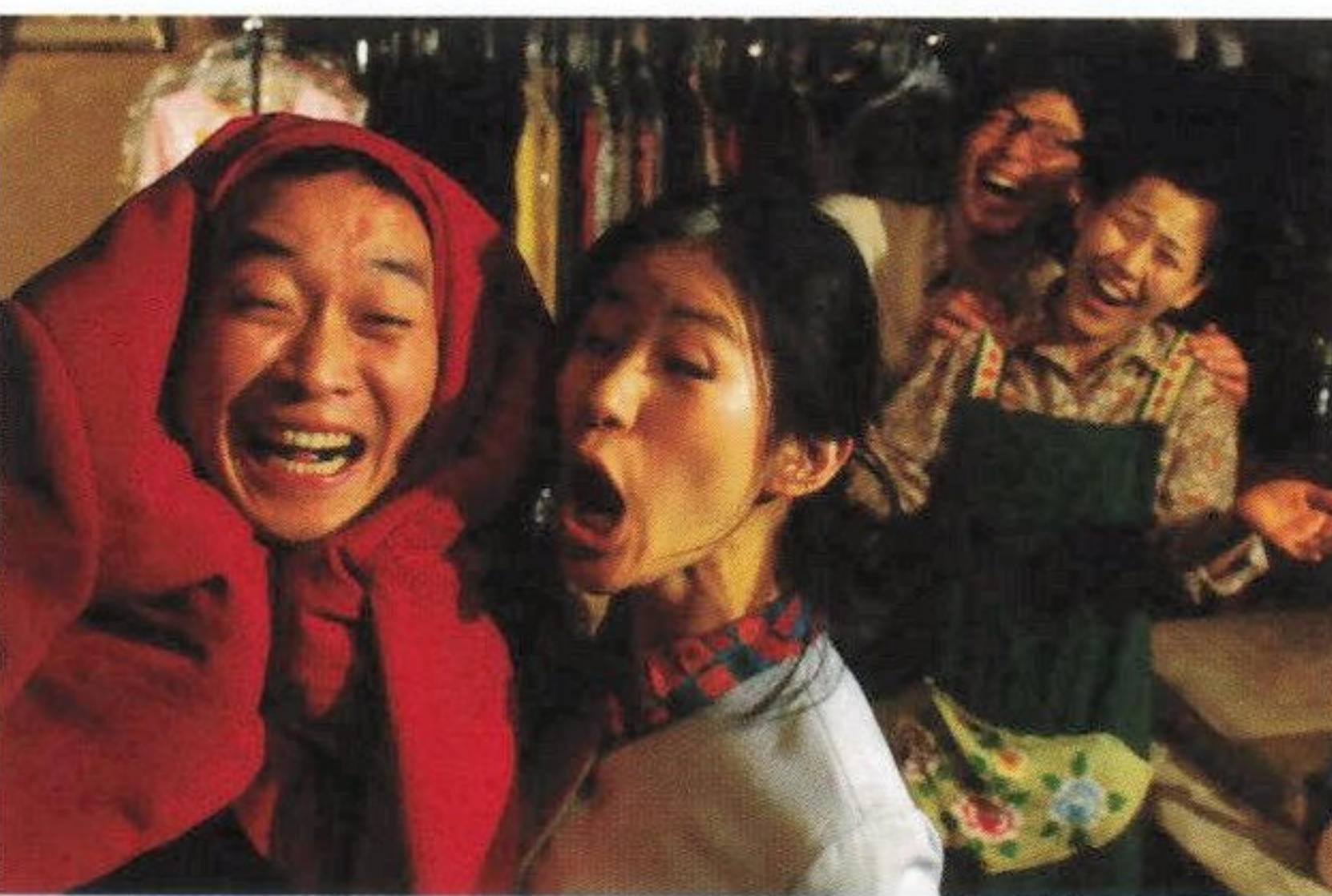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 범의 얼굴을 목격했던 천재 몽타주 화가 정민을 둘러싼 숨막히는 살인 퍼즐게임이 펼쳐지는 미스터리 스릴러극 '몽타주'.

· 작/김준연
· 연출/김세환

- 출연/김준연, 임호영, 신현규, 김정원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전화예매시 30%할인)
- 문 의 드라마팩토리 (625-0767, 010-2729-0074)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5월 22일(금)-6월 2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오아시스세탁소를 거쳐간 우리이웃들의 다양한 삶을 코믹한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연극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 작/김정숙 · 연출/권호성

-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권철의 모노드라마 호랑이 아줌마

5월 23일(토)-6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휴관) 공간소극장



2007년 서울 대학로에서 열풍을 일으킨 권철의 모노드라마 '호랑이 아줌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다리오 포 원작을 각색한 이번 작품은 마음 속 호랑이를 찾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열린소극장 개관 20주년 기념공연 환지통

5월 28일(목)-6월 20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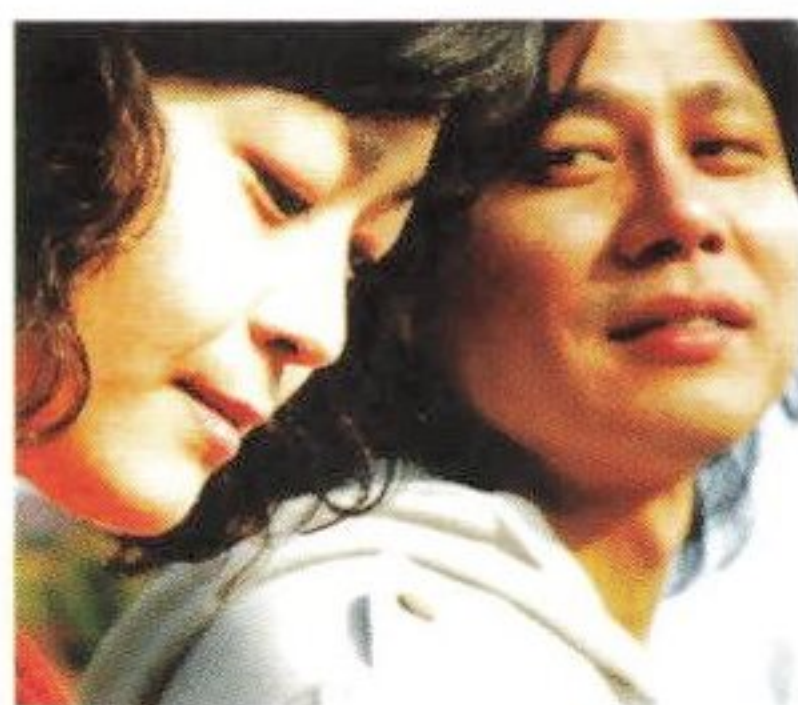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와 새로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한 여자의 이슬이슬한 일상을 통해 사람 관계에서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10인~100인)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연극 >>



환지통

2009.05.28 - 06.20

환지통은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MBC 롯데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생겨나는 '환지통'을 이야기한 작품.

- 작, 연출/김경화
- 출연/배진만, 손남숙

-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 (사랑티켓 참가작)

■ 문 의 열린소극장(555-5025)

MBC롯데아트홀 개관기념 개막작 로맨틱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5월 29일(금)-6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공휴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월요일 공연없음)

MBC 롯데아트홀



지역 최초로 문을 연 뮤지컬 전용극장 MBC롯데아트홀 개관 기념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한국뮤지컬대상 6개 부문을 수상한 이 작품은 시골학교에 부임한 새내기교사와 늦깎이 학생간의 로맨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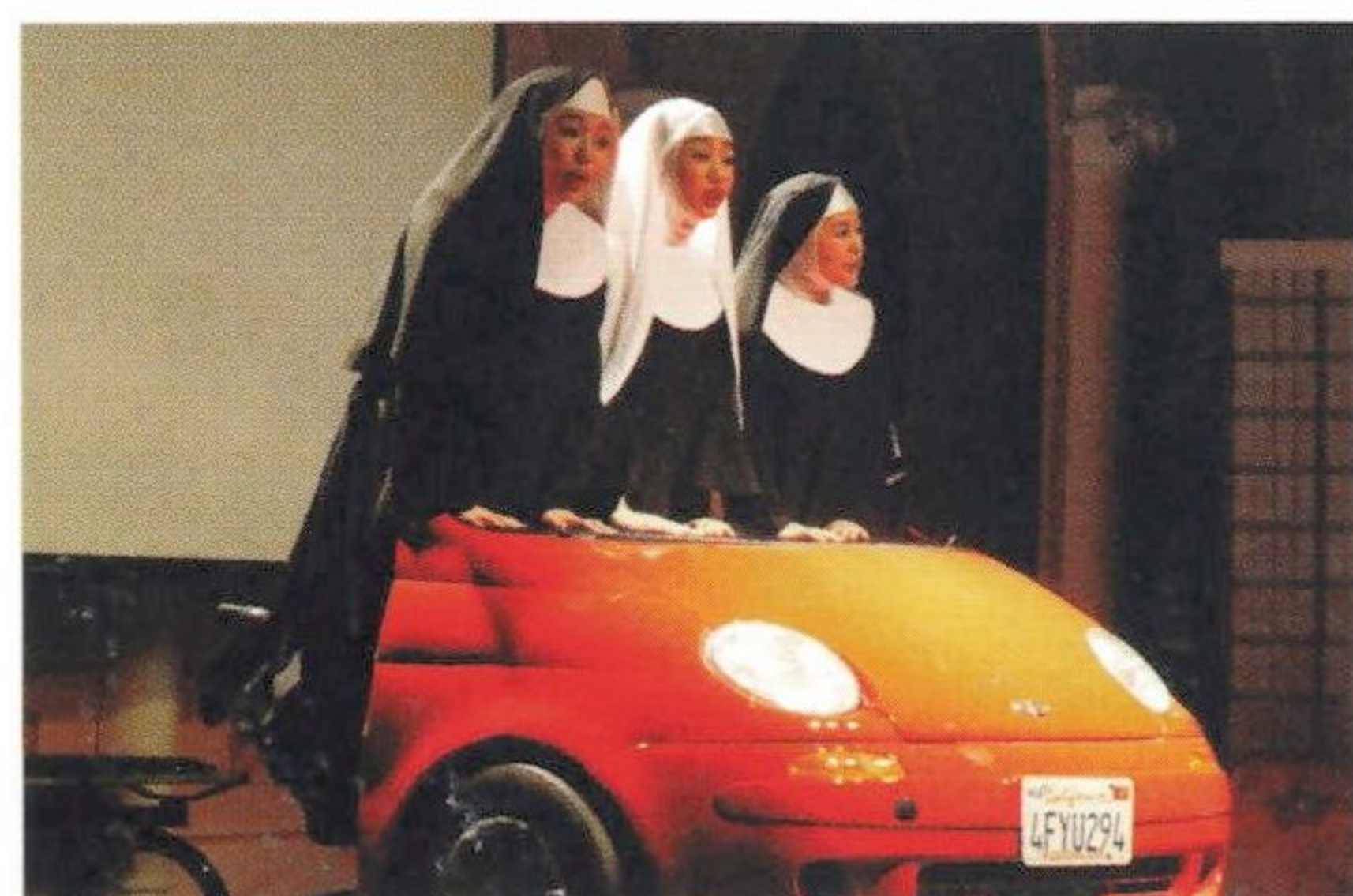
그린 로맨틱 뮤지컬로 가수 이지훈이 교사로 열연한다.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5,000원
- A석 35,000원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

6월 2일(화)-30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식중독으로 숨진 동료 수녀들의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섯 명의 수녀가 펼치는 이색 공연이 관

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

- 관람료 균일 35,000원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AN아트홀.Red(758-9035)

음악극 오래된 만남

6월 2일(화)-1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일터소극장



광주민주화항쟁의 아픈 역사의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기구한 만남과 죽어도 잊지 못하는 슬픈 사랑 이야기를 그린 음악극 '오래된 만남'.

- 작/반민순 · 각색 및 연출/김기영
- 출연/윤순심, 박성진, 김선관, 이수옥, 조기정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 초등생 10,000원(예매시 20% 할인)

■ 문 의 일터소극장(635-5370)

사랑은 비를 타고

6월 3일(수)-7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7년만에 만난 두 형제의 갈등과 가슴따뜻한 형제애를 그린 창작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 예술감독, 작곡/최귀섭 · 작/오은희, 최명섭
- 출연/김정연, 박은태, 손광업, 임춘길 외

- 관람료 균일 35,000원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거제동 가마골소극장 개관기념 공연시리즈 다시, 가마골연극4 손숙의 어머니

6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6일 토요일 오후 4:00, 7:30, 7일 일요일 오후 4:00

가마골소극장



연출가 이윤택의 실제 어머니를 모티브로, 일제강점기와 전쟁 속, 고난의 시절을 억척스럽게 살아낸 우리시대 어머니의 모습을 담아낸 연극 '어머니'.

초연 때부터 어머니 역할을 맡아온 배우 손숙씨가

강인하고 모진 우리네 어머니를 가슴 절절히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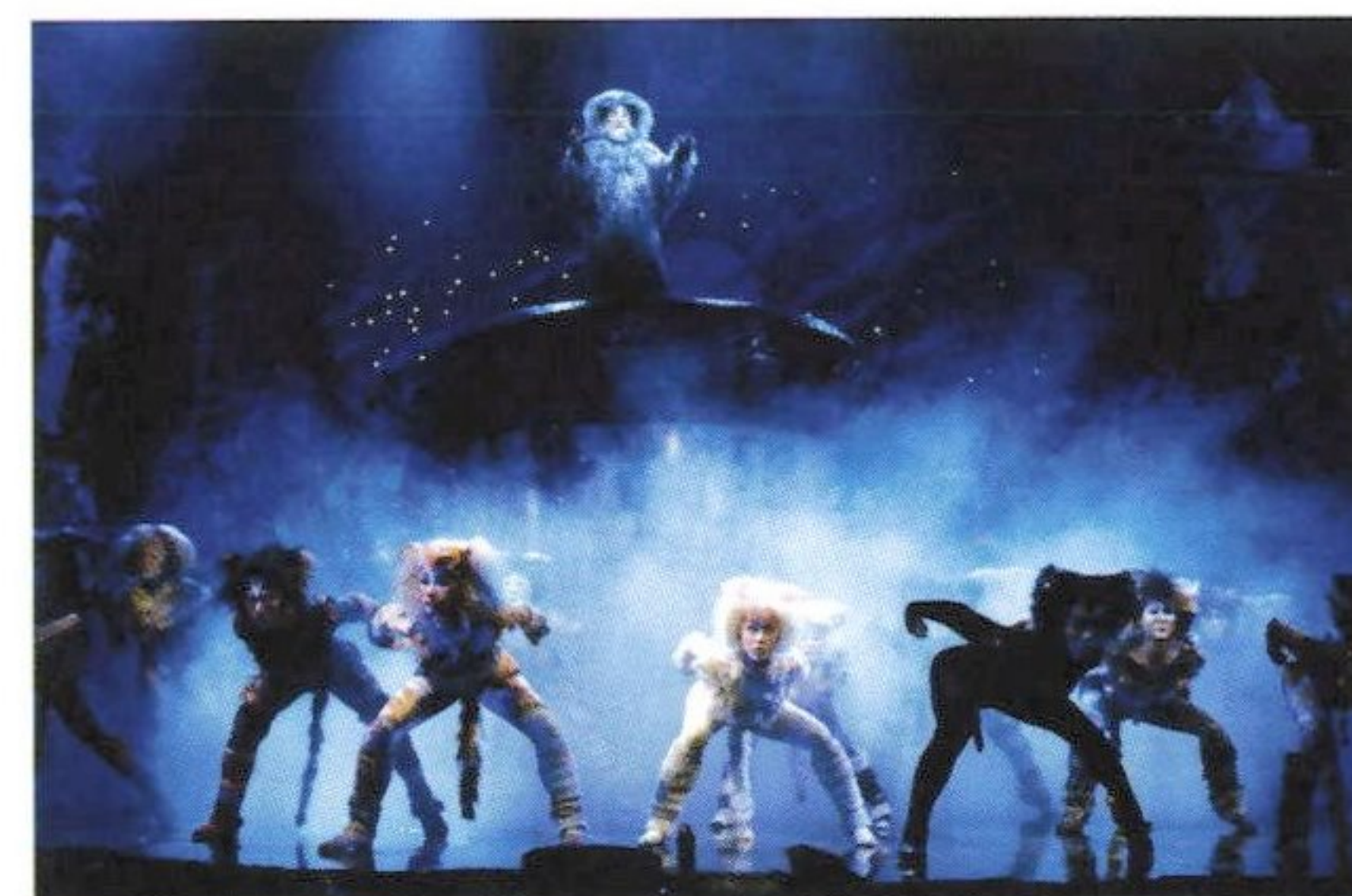
- 작, 연출/이윤택
- 출연/손숙, 하용부, 김미숙, 김철영, 홍선주, 변진호, 김하영, 조승희, 강영해, 신항주 외

- 관람료 일반 30,000원
- 중고생, 65세이상 어르신 20,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뮤지컬 캣츠

6월 6일(금)-2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8:00, 일·공휴일 오후 2:00, 7:00(월요일 공연없음) 시민회관 대극장



'캣츠' 탄생 27주년만에 최초로 한국어로 공연되는 뮤지컬 '캣츠' 부산무대.

고양이와 흡사한 분장의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댄스와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 시선을 사로잡는 환상적인 무대로 놀라운 환타지의 세계를 보여준다.

- 작곡/앤드루 로이드 웨버
- 출연/신영숙, 옥주현, 김진우, 라준, 이희정, 홍경수 외

- 관람료 VIP 120,000원 · R석 100,000원
-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 B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주)AN시티(1644-448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연극 >>

웃찾사&개그콘서트-폭소질주

6월 6일 토요일 오후 4:00, 8:00 KBS 부산홀

TV방송 3사의 대표적인 개그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그맨들과 관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개그 종합 콘서트.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 문의 MR엔터테인먼트
(731-6119, 070-7136-3119)

어린이 감성뮤지컬 꼬마우체부 복극곰 몽치

6월 6일 토요일 오후 2:00, 4:00, 7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지는 라이브연주와 동요부르기로 어린이에게 다가가는 감성체험 어린이 음악극.

- 작, 연출/이재원
- 출연/김민식, 한수연, 송주영, 박채원, 백승숙
-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 문의 DUBU기획(02-2654-6854)

거제동 가마골소극장 개관기념 공연 시리즈 다시, 가마골연극6 챗 온 러브(Chat on love)

6월 10일(수)-2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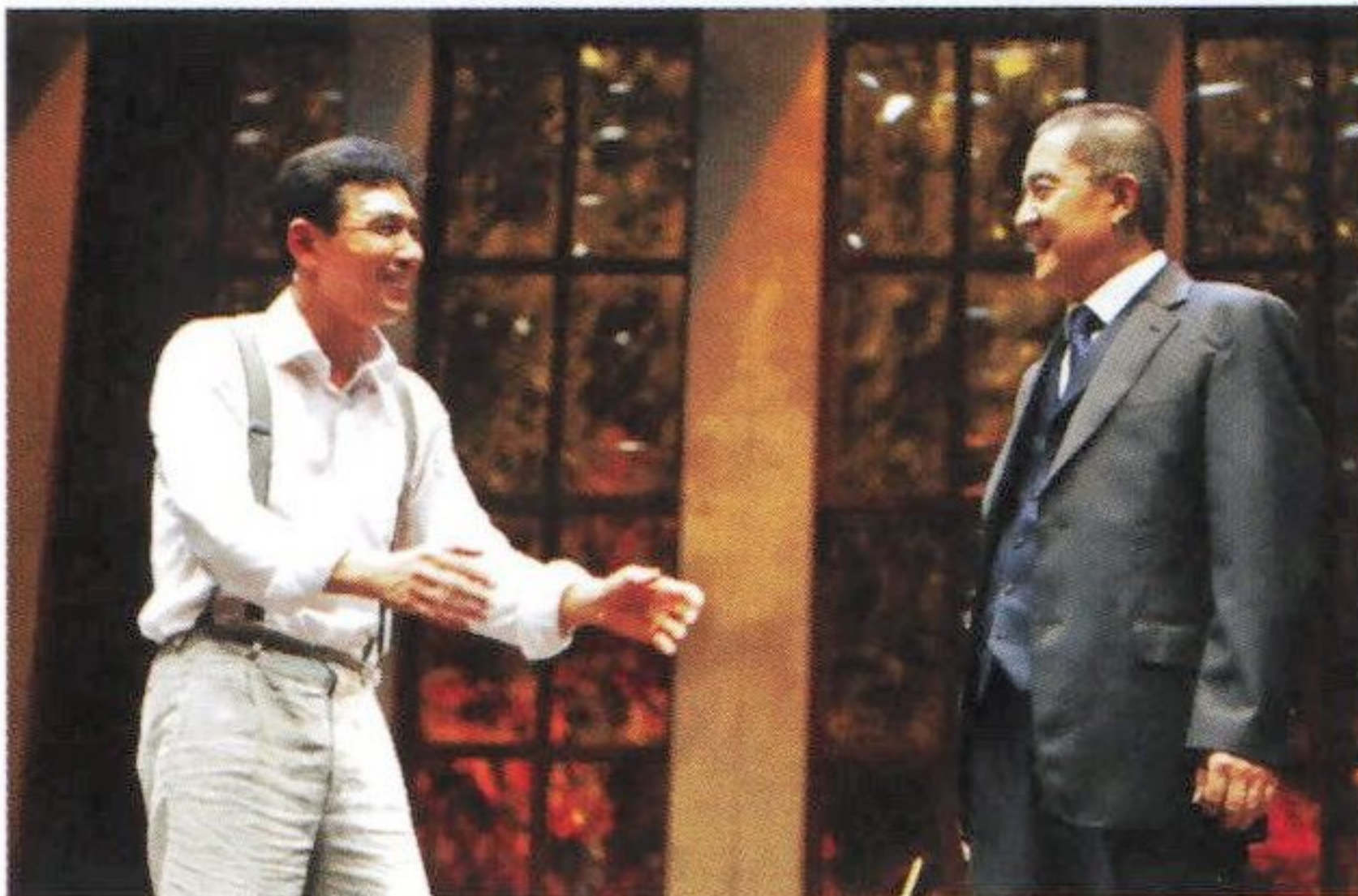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여자는 다 그레)'를 새롭게 각색, 오늘날 젊은이들의 사랑과 삶의 성장을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

- 작/이재경 · 연출/남미정
- 출연/변진호, 홍선주, 황혜정, 배보람, 정영미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연극 웃음의 대학

6월 12일 금요일 오후 8:00, 1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4일 일요일 오후 2:00, 6:00
MBC롯데아트홀



웃음을 잃어버린 비극의 시대를 배경으로, 웃음을 사수하기 위한 작가와 웃음을 삭제하기 위한 검열관의 고군분투를 유쾌하게 그린 연극 '웃음의 대학'.

믿음가는 배우 송영창과 오랜만에 연극무대로 돌아온 배우 황정민의 불꽃튀는 연기 대격돌이 펼쳐진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연극 일주일

6월 12일(금)-2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공간소극장



인기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를 무대화한 연극 '일주일'.

자살을 일삼던 주인공이 앞으로 살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새롭게 삶에 눈뜨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 원작/파울로 코엘료 · 연출/양지웅
- 출연/김아름, 추영빈, 강부현, 김민정, 황자미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전화예매시 30% 할인)
-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년버벌 퍼포먼스 뮤지컬 드로잉 쇼

6월 13일-14일 토-일요일 오후 1:00, 4:00,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미술과 무대의 환상적인 만남, 세계 최초의 드로잉 퍼포먼스 '드로잉 쇼' 부산공연.

무대를 화폭 삼아 드로잉에서부터 조소, 스템핑, 프로타주, 마블링 등 다양한 미술테크닉으로 완성한 10여개의 미술작품을 선보인다.

- 관람료 R석 35,000원 · S석 30,000원
- 문의 (주)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극단 새벽 창단 25주년 레퍼토리 기획시리즈 3 연희극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

6월 18일(목)-7월 4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월-수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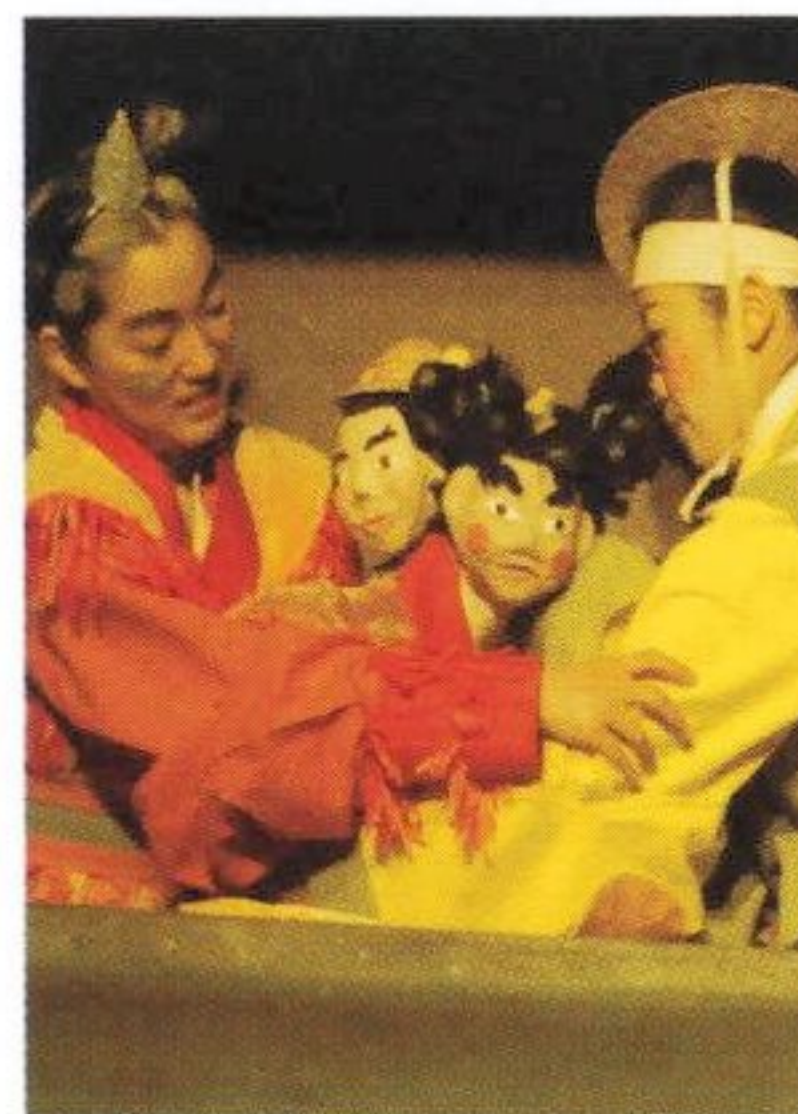


비무장지대 어느 골짜기를 둘러싼 소유권 논쟁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남북분단 상황을 그린 연희극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

- 원작/브레히트 · 재구성, 연출/이성민
- 출연/유미희, 변현주, 이현식, 김재형, 임태성, 안정진, 유창민, 이도현, 최원준, 김보현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 문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어린이 국악뮤지컬 덩실덩실 깨비깨비

6월 20일 토요일 오후 2:00, 4:00, 21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설화 속 이야기에 우리의 전통국악과 전래놀이를 접목시킨 '덩실덩실 깨비깨비'는 순진하다 못해 바보스러운 친구 봉달이와 친구 도깨비를 통해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묻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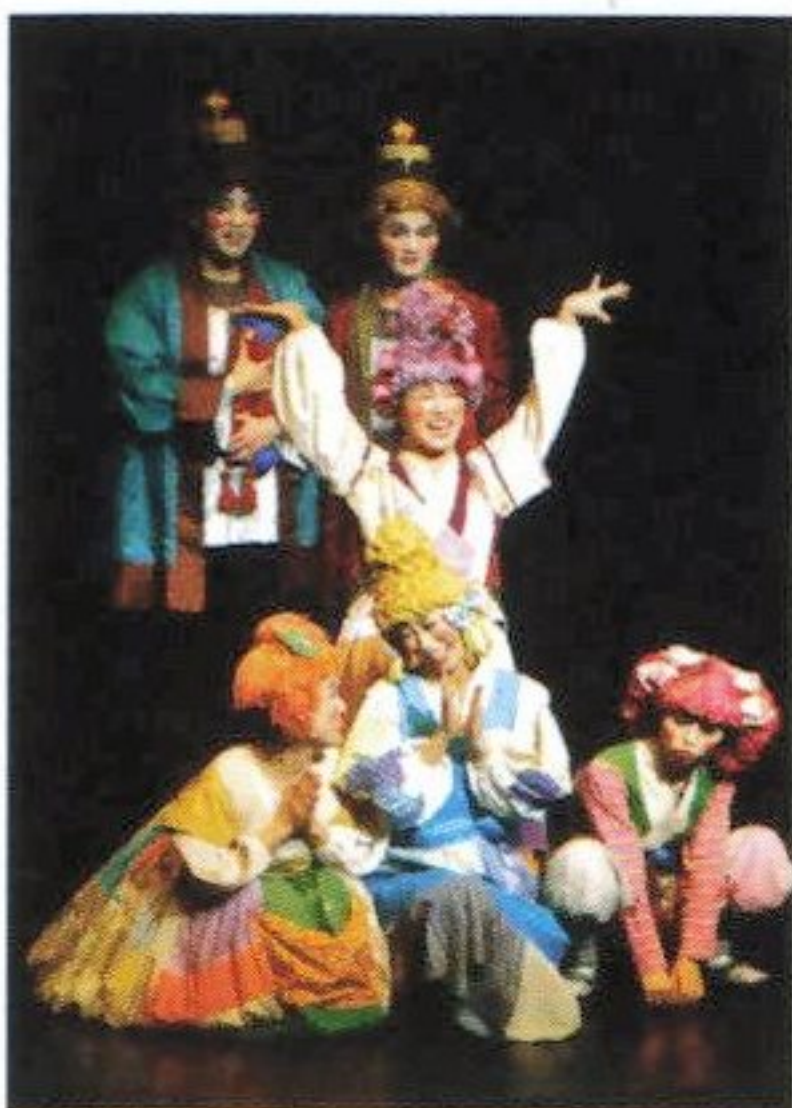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 문의 DUBU기획(02-2654-685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연극 >> 무용 >>

가족뮤지컬 신데롤라

6월 20일(토)-28일(일) 화-수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목-금요일 오후 4:00, 7:30, 주말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MBC롯데아트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작동화를 현대사회에 걸맞게 새롭게 해석한 가족 뮤지컬 '신데롤라'.

스스로 삶을 개척해나가는 독립성 강한 주인공 '신데롤라'의 새로운 가족 만들기와 사랑이야기가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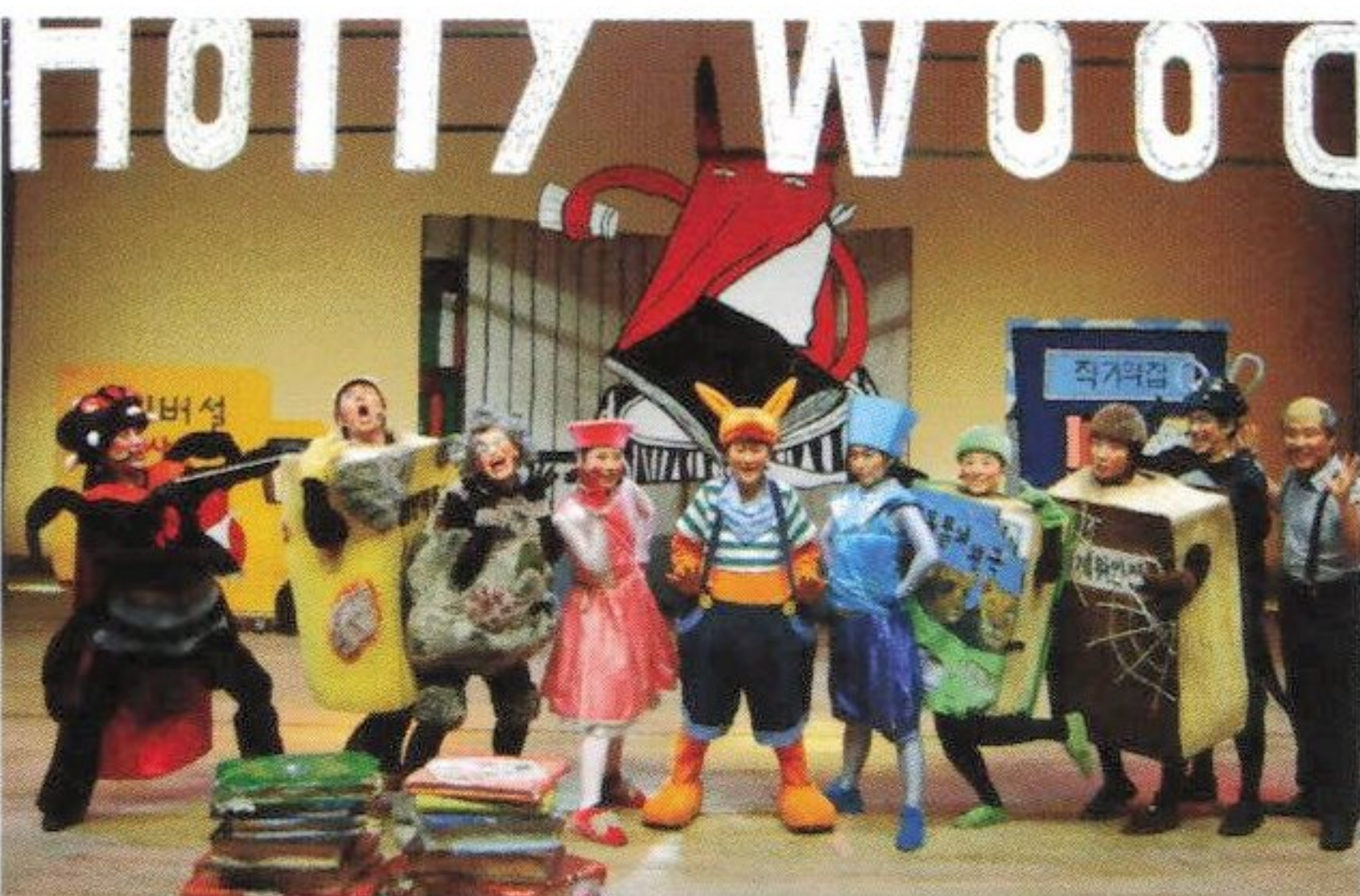
려한 볼거리속에 함께 펼쳐진다.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A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어린이 캐릭터 뮤지컬 책먹는 여우

6월 2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1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소극장



독일작가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그림책을 무대화한 어린이 캐릭터 뮤지컬 '책먹는 여우'.

책을 너무나 좋아해 읽고나서는 먹어치우는 여우의 이야기가 신나는 노래와 춤속에 펼쳐진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인터넷 예매시 30% 할인)
■ 문의 가람뮤지컬(1544-4852)

극단 하늘개인날 옛날 남자, 지금 여자

6월 26일(금)-7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휴관) 공간소극장

과거에 잘나가던 인기배우인 남자주인공과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초년배우 여주인공이 2인극을



준비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통해 연극인들의 애환과 환희를 그린 작품.

· 작/윤수진
· 연출/김태호
· 출연/권철, 이용희

■ 관람료 균일 2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어린이 주크박스 플라잉 뮤지컬 구름빵

6월 26일(금)-7월 12일(일) 오후 2:00, 4:00
(토요일 오전 11:00 공연 추가, 월요일 공연없음)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



베스트셀러인 동명의 동화를 무대화한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노란우비를 입고 하늘을 나는 귀여운 흥비, 흥시의 환상의 대모험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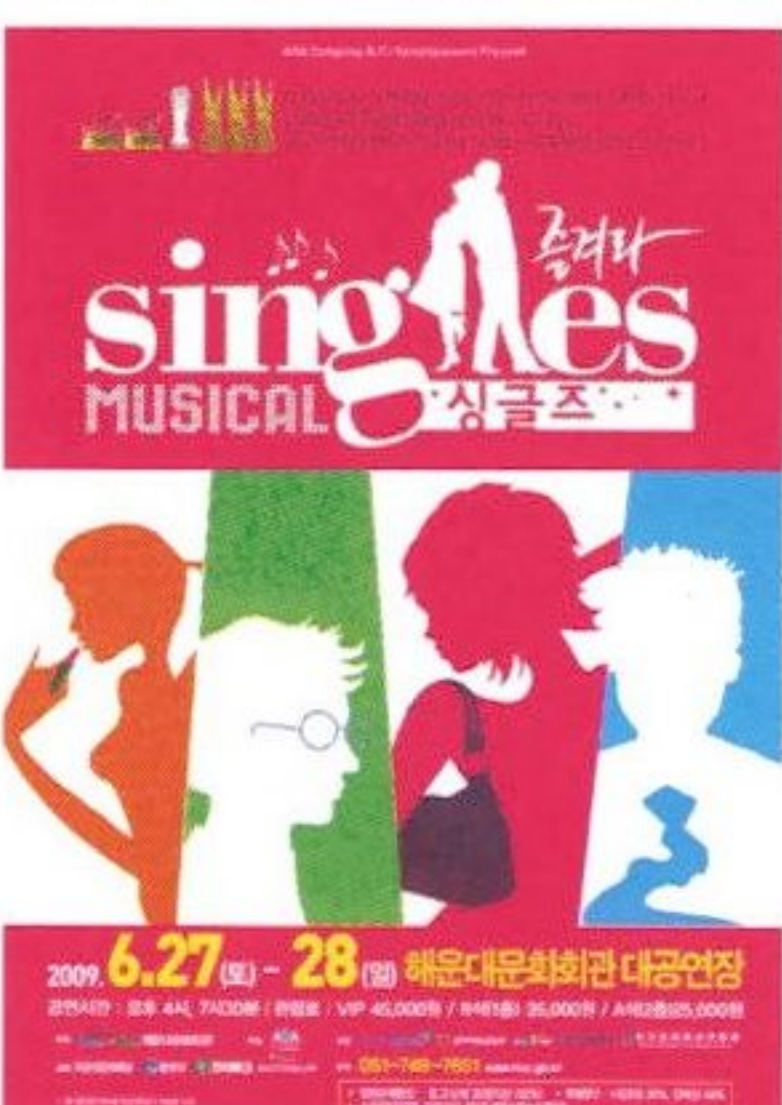
· 원작/백희나
· 극본/박새봄

· 연출/허승민

■ 관람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 문의 (주)뮤지컬구름빵무화산업전문화사
(1577-7905)

뮤지컬 싱글즈

6월 27일-28일 토-일요일 오후 4:00,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톡톡 튀는 감성으로 '싱글'이라는 새로운 문화코드를 만들어낸 동명의 영화를 무대화한 뮤지컬 '싱글즈'.

스물 아홉 살 생일날, 직장에서는 좌천당하고 애인에게서 버림받은 주인공 나난과 그의 친구들이 펼치는 일과 사랑,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A석 25,000원(중고학생 20% 할인)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영어뮤지컬

Twelve Singing Animals

7월 2일(목)-5일(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 MBC롯데아트홀

영어연극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영어뮤지컬 'Twelve Singing Animals(노래하는 열 두 동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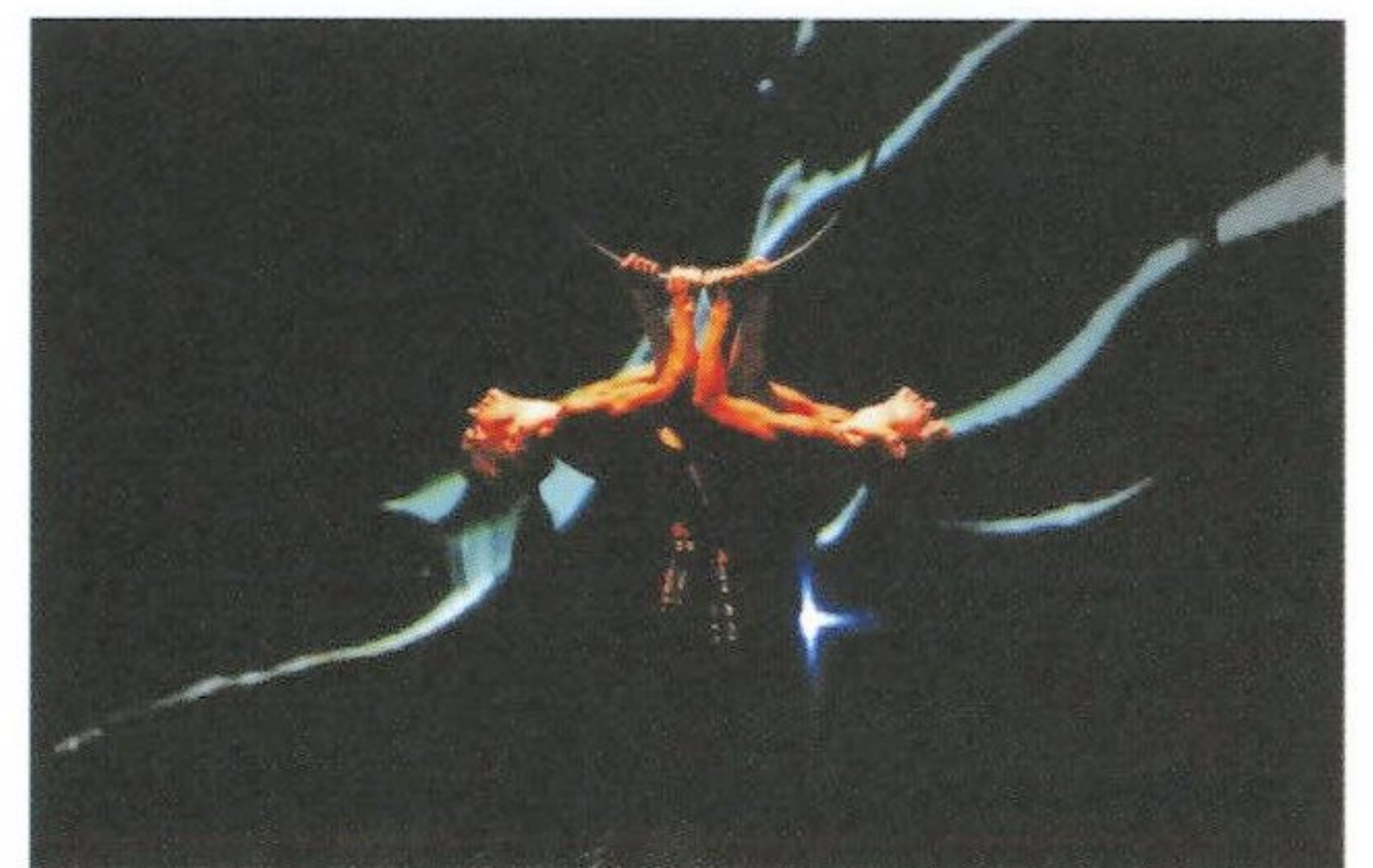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무용

제 5회 부산국제무용제 땅, 하늘 바다의 축제-그전설의 시작 '天馬'

5월 31일(일)-6월 4일(목)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부산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외



세계 10개국 56개팀이 참가하는 2009 부산국제무용제.

- 5/31일(일) 19:3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개막식
- 5/31일(일) 6/2일(일) 19:3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BIDF 공식초청작 공연
- 5/31일(일) 14:00 해운대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BIDF 국제포럼 '무용축제와 창조문화도시'
- 6/1일(월)-6월 2일(화) 17:0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IDF 열린춤무대(자유참가공연)
- 6/1일(월)-6/2일(화) 18:0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IDF 열린무대(탈장르 공연)
- 6/2일(화) 21:0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IDF 해변특설무대 폐막공연 '바다와 다함께 춤을'
- 6/3일(수)-6/4일(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K21국제안무가 육성 공연
- 6/4일(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식폐막식/AK21국제안무가 육성 공연/시상
- 문의 BIDF 사무국(515-2949, bidf.or.kr)

콘서트

유리상자의 특별한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주)AN시티(1644-4484)

바비킴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오후 7:30, 28일 일요일 오후 3:00, 7:00 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문의 (주)피케이미디어(1577-6366)

행사

제 84회 부산시울림 시낭송회

6월 3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김해경, 김순자, 김종일, 박재율, 신정민, 이선형, 탁영완, 허영숙
- 사회/한창욱
- 관람료 무료
- 문의 김예강(019-516-1867)

영광문화예술원 6월 특강 사진가 육명심과의 만남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문의 갤러리영광(816-9500~4)

전시

The Masterpiece展 II

3월 23일(월)-12월 31일(목)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에비뉴엘 라운지

- 문의 가양갤러리(752-7830)

최은호 2nd Solo Exhibition

5월 9일(토)-6월 7일(일) 오픈스페이스배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7:00(월요일 휴관)
- 문의 오픈스페이스배(724-5201)

작은그림 큰희망전

5월 12일(화)-6월 7일(일) 갤러리 예가

- 문의 갤러리에가 (624-0933)

페페로니 신드롬-매운맛좀 볼래!

5월 18일(월)-6월 6일(토) 맥화랑

- 문의 맥화랑(722-2201)

봄.바람 나다展

5월 22일(금)-6월 28일(일)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문화센터, 가양갤러리



자유분방한 번짐과 원색적인 색채감으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경남정보대학 명예교수 김태진의 작품 25여점 전시.

- 문의 가양갤러리(752-7830)

빛과 벽돌이 짓는 詩

5월 26일(화)-6월 28일(일)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특별전시장

건축을 '빛과 벽돌이 짓는 詩'라고 정의할 만큼 벽돌에 남다른 애착을 지녔던 건축가 김수근의 건축풍경을 조명하는 특별전.

- 문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340-7011)

윤석남 초대전

5월 27일(수)-6월 10일(수) 부산아트센터

- 문의 부산아트센터(461-4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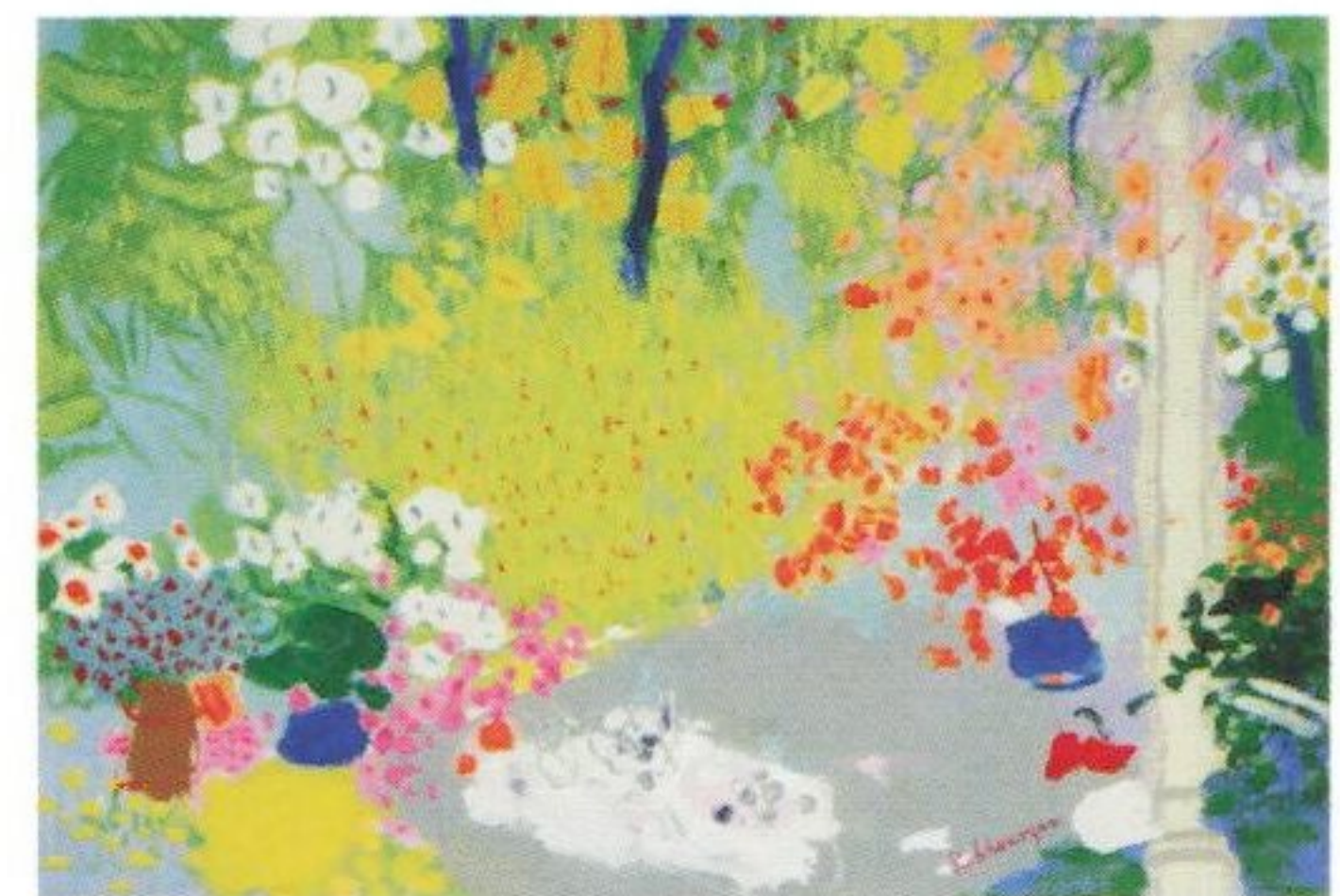
최진식 개인전

6월 1일(월)-6월 30일(화) 부산프랑스문화원

-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고혜련 초대전

6월 3일(수)-6월 11일(목) 타워갤러리



-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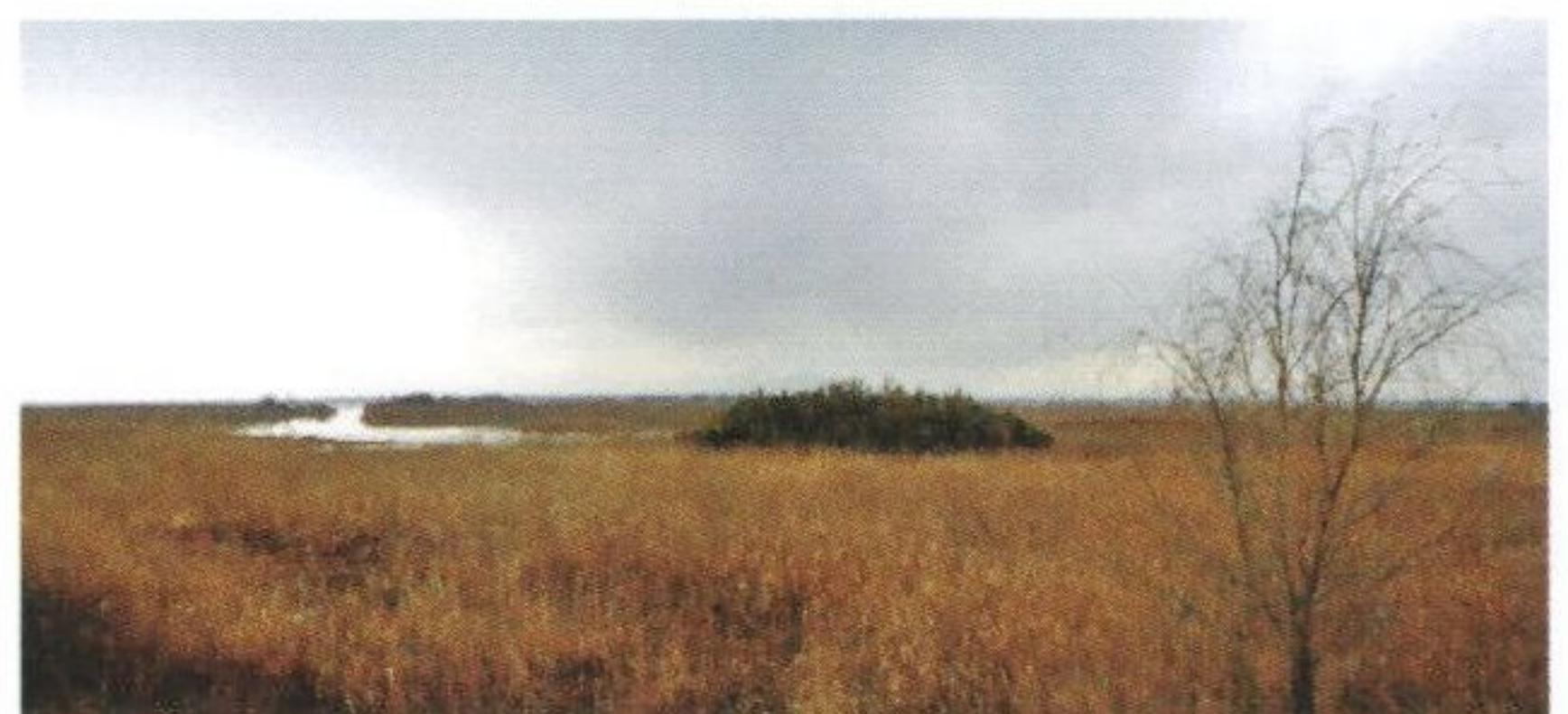
전명덕 개인전

6월 5일(금)-6월 11일(목) 롯데화랑 부산점

- 문의 롯데화랑 부산점(810-2328)

구주환 사진전 '텅 빈 충만감'

6월 9일(화)-6월 14일(일) 갤러리영광



- 문의 갤러리영광(816-9500~4)

안기모 도예전

6월 12일(금)-6월 18일(목) 롯데화랑 부산점

- 문의 롯데화랑 부산점(810-2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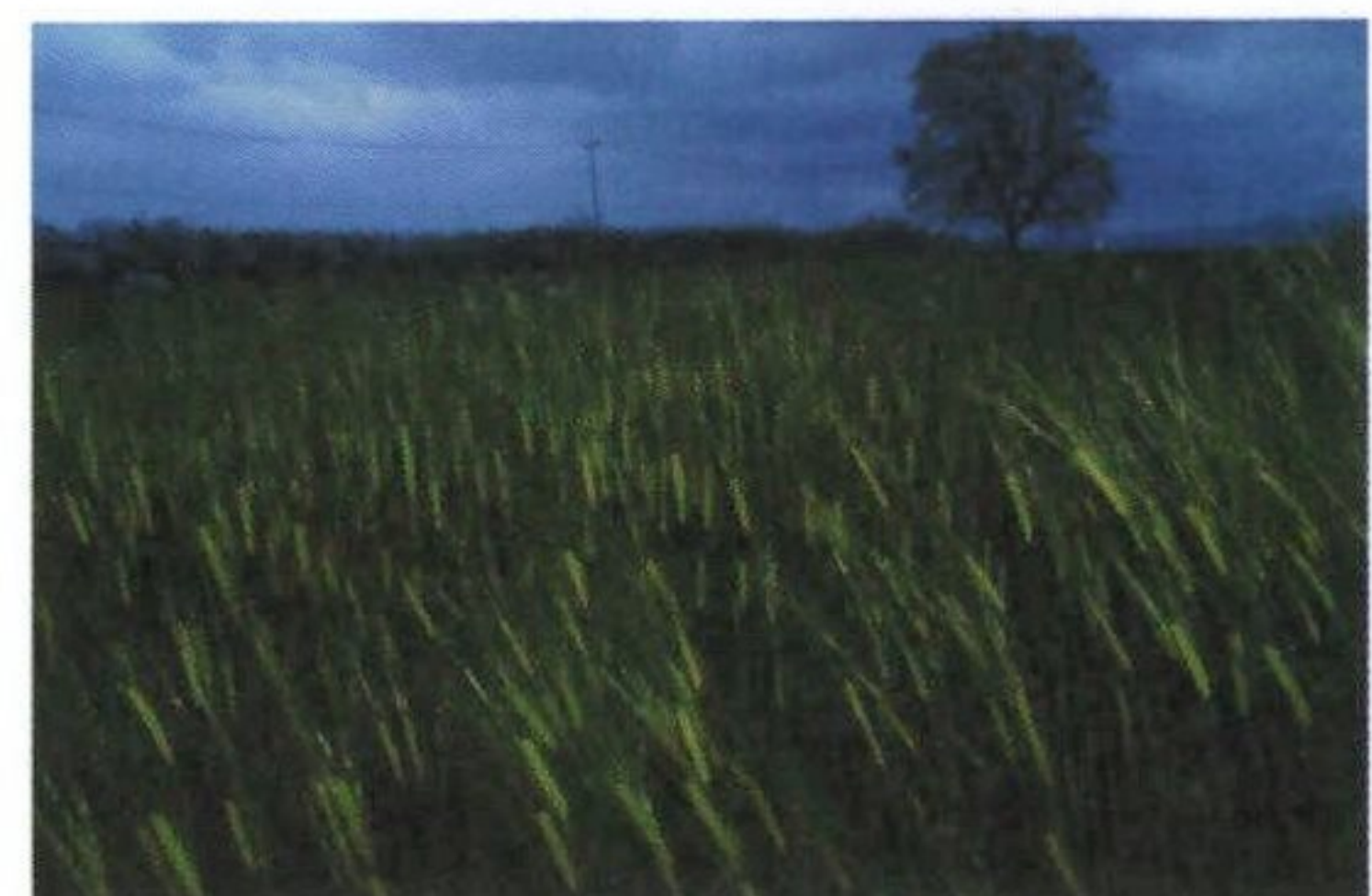
한국화, 서양화 작고작가전

6월 12일(금)-6월 30일(화) 타워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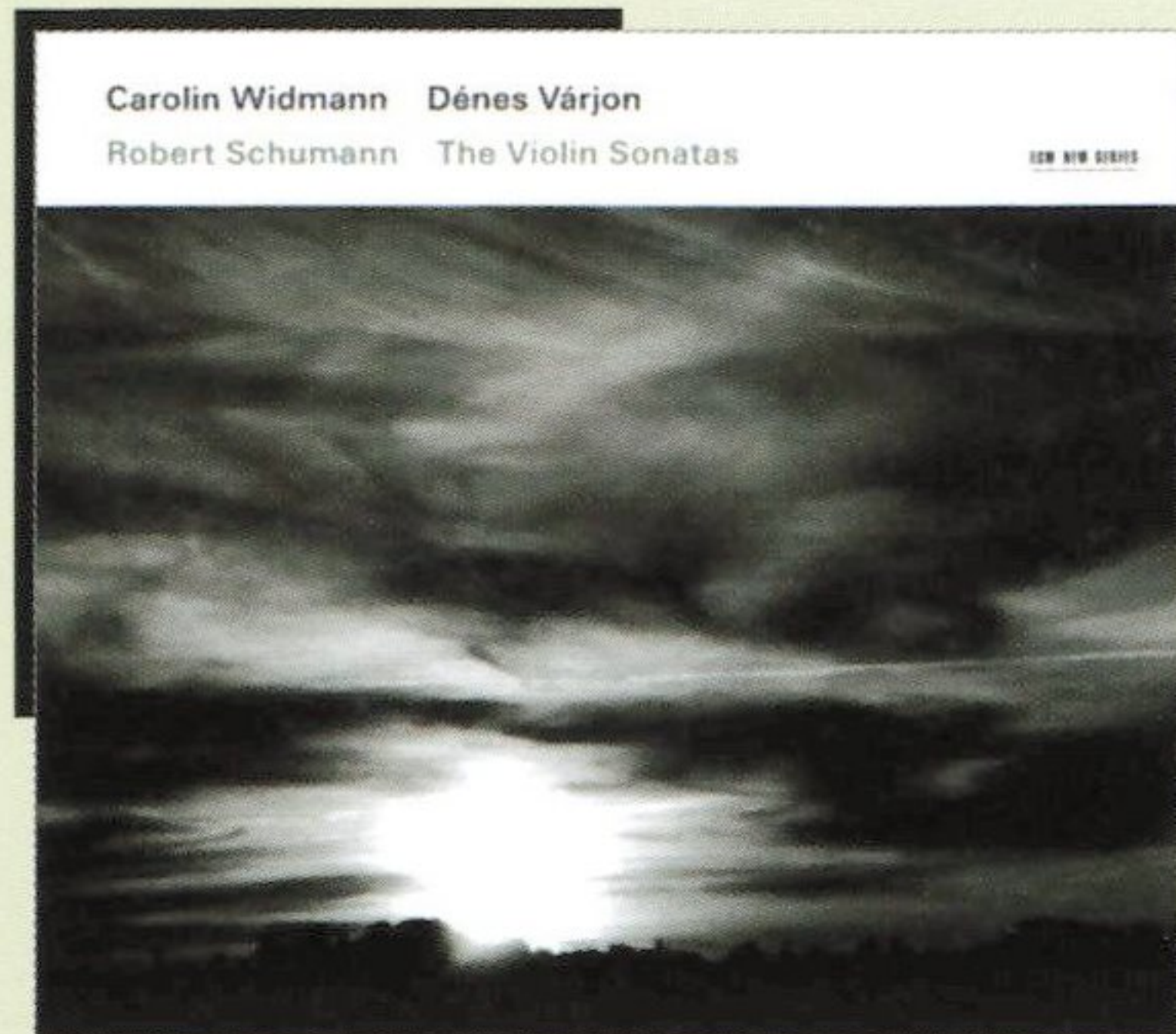
-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석용희 사진전 '풍경, 익숙한 혹은 낯선...'

6월 16일(화)-6월 21일(일) 갤러리영광



- 문의 갤러리영광(816-9500~4)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연주 : 카롤린 비트만(바이올린), 데네시 바운(피아노)

슈만의 음반 속 그녀를 만나다

따스한 겨울날 갑자기 피어난 개나리처럼 그녀는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예고 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단 한 장의 음반으로 그녀의 존재감을 알리는데 확실히 성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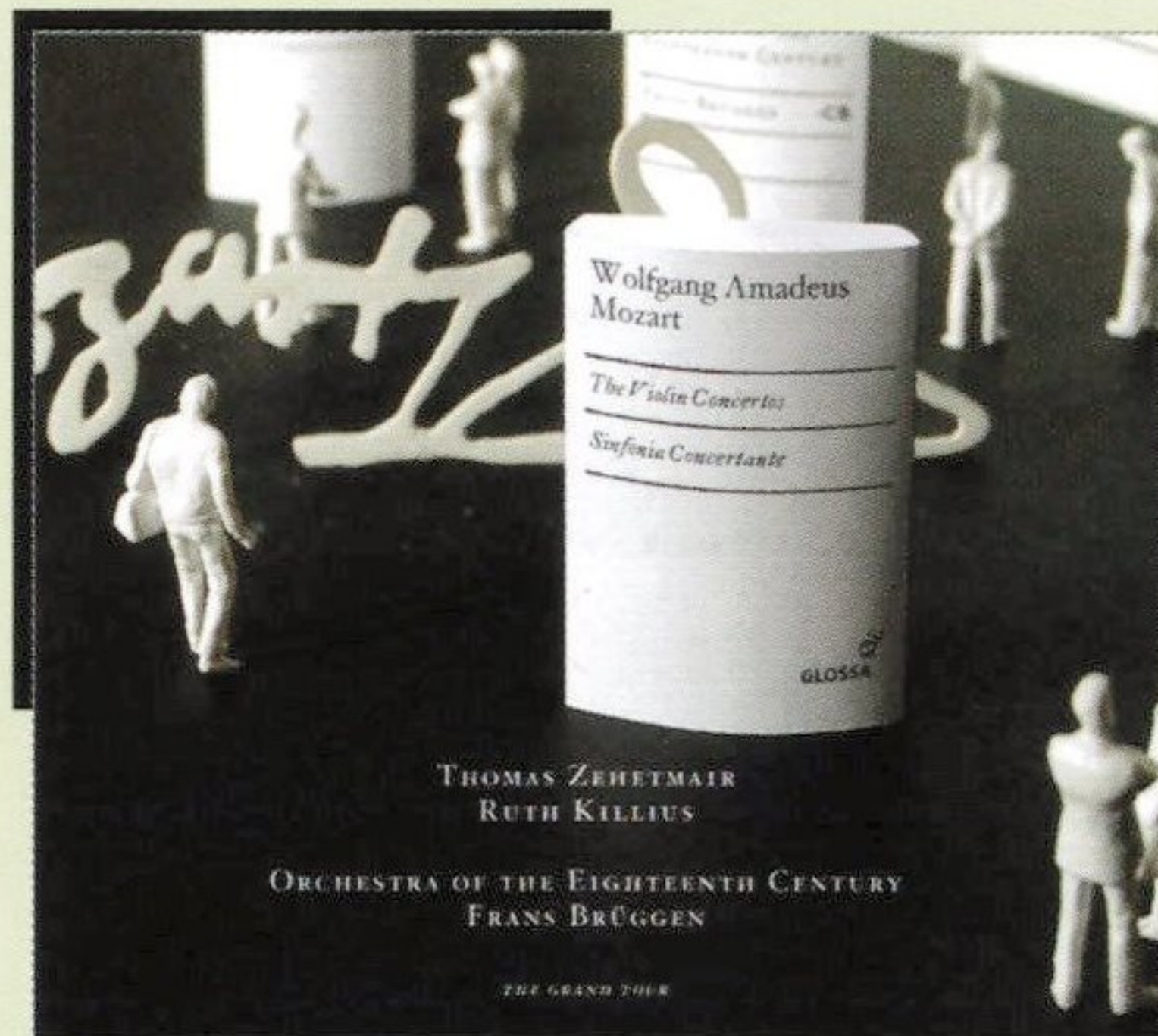
슈만의 섬세하고 꿈꾸는 듯 한 낭만과 때때로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순간들을 확신에 찬 울림으로 만들어 냈다.

슈만 후기 작품에 나타나는 묘한 분위기를 그녀는 아름답고 다채롭게 이끌어 낸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영혼의 방랑자, 일생을 비극으로 마친 낭만파 슈만을 행복한 외출로 인도한 것이다.

ECM의 탁월한 음색으로 듣는 카롤린 비트만의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는 위로가 필요한 따스한 봄날 슈만과 함께하는 행복한 외출에 자연스럽게 녹아 줄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준 그녀의 연주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KV364

연주 : 토마스 체헤트마이어(바이올린 & 지휘)/루트 킬리우스(비올라)

18세기 오케스트라, 프란츠 브뤼헨(지휘)

가슴을 파헤치는 진실한 설득력이 있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집이 나왔다.

이들이 연주하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체헤트마이어가 고전시대 스타일로 세팅된 스트라드로 모차르트를 연주했다.

이 음반을 내내 들으며 자연스럽게 한 계절이 지나간다.

행복한 봄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흐 소나타 BWV 1027~1029

프로그램 : 바흐 비올라 다 감바 소나타 BWV.1027~1029, 트리오 소나타 BWV.528, 583, 코랄 변주곡 <오라 이교도의 구세주여> BWV.659, <지고하신 하느님께 영광> BWV.711,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BWV.649,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 BWV.645

연주 : 부르노 콕세(바로크 비올라, 바로크 첼로 외), 베르트랑 킬러(하프시코드, 오르간), 리차드 미론(콘트라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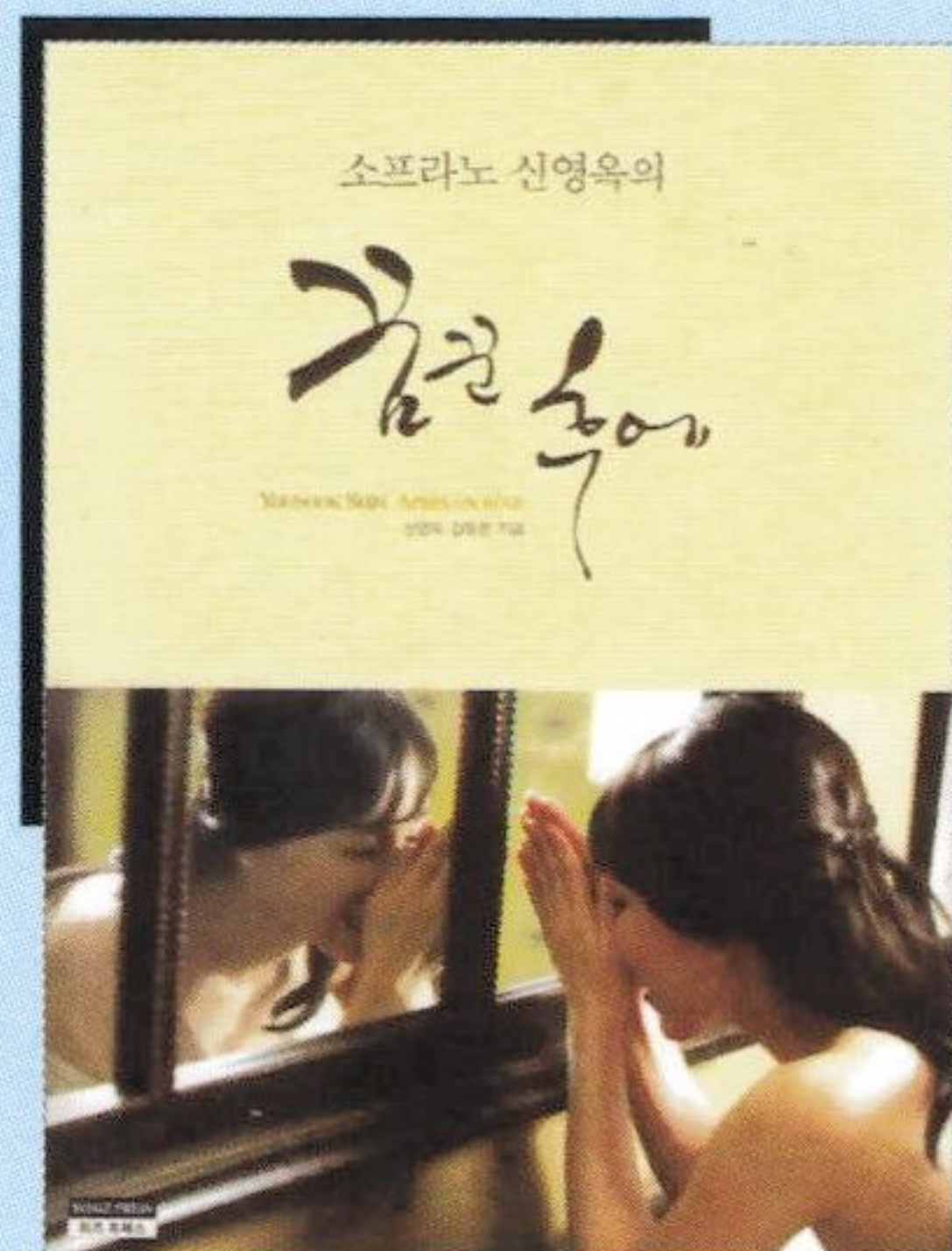
이 음반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은 멋스러움 그 자체였다.

악기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에서 그냥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표현이 어떨까?

흔들림 없이 뽑아내는 연주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한다.

곳곳에서 녹아내리는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은 듣는 이를 겸손하게 한다.

바흐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음반이 나와 더욱 반갑다.



소프라노 신영옥의 꿈꾼 후에

신영옥 · 김동환 지음
휘즈프레스 / 483p / 15,000원

국제무대와 비평가들 사이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정상급 오페라 가수,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신영옥의 인생과 무대이야기. 신영옥은 만 네 살 무렵에 노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0년, 남들보다 늦은 스물아홉이었다. 늦긴 했지만, 이때 그녀는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으로 손꼽히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입성하면서 화려한 무대 인생을 시작했다. 이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중심으로 영역을 넓혀간 그녀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등 세계 정상급 음악가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세계의 유명 오페라단과 페스티벌, 콘서트, 리사이틀 무대에서 연이은 성공을 거두며 오늘에 이르는 것이다. 노래는 그녀에게 있어 인생의 시작이자 전부였고, 지금까지도 노래를 삶의 한가운데 놓고 사는 것은 변함이 없다. 신영옥은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노래를 하려거든 오로지 노래만 바라보며 수녀처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스승의 말을 되새기며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한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애뜻한 사랑이야기나 사생활이라 할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 중학생 시절부터 신영옥의 팬이었던 김동환 씨가 지켜본 음악여정이 책의 2부를 빛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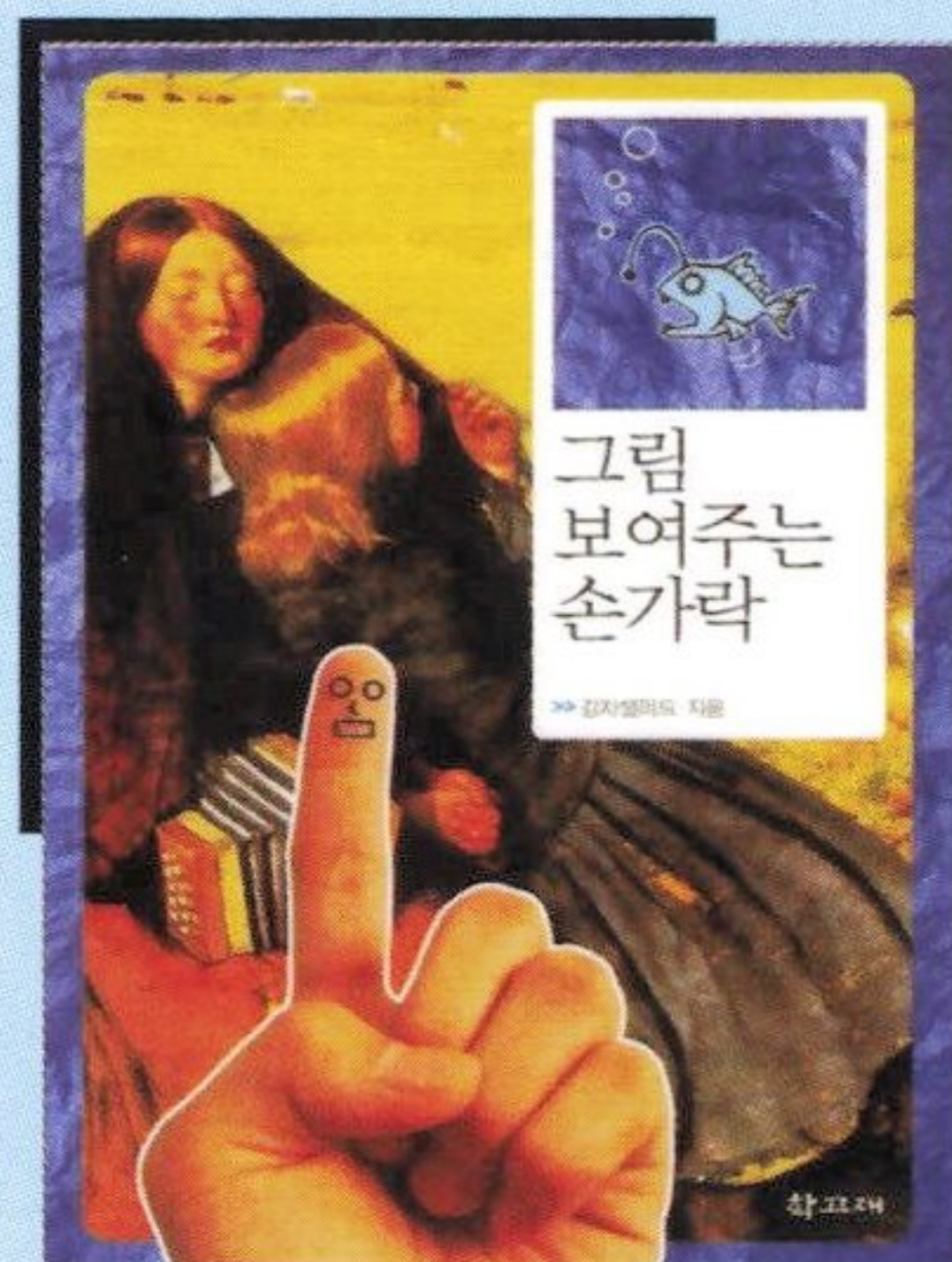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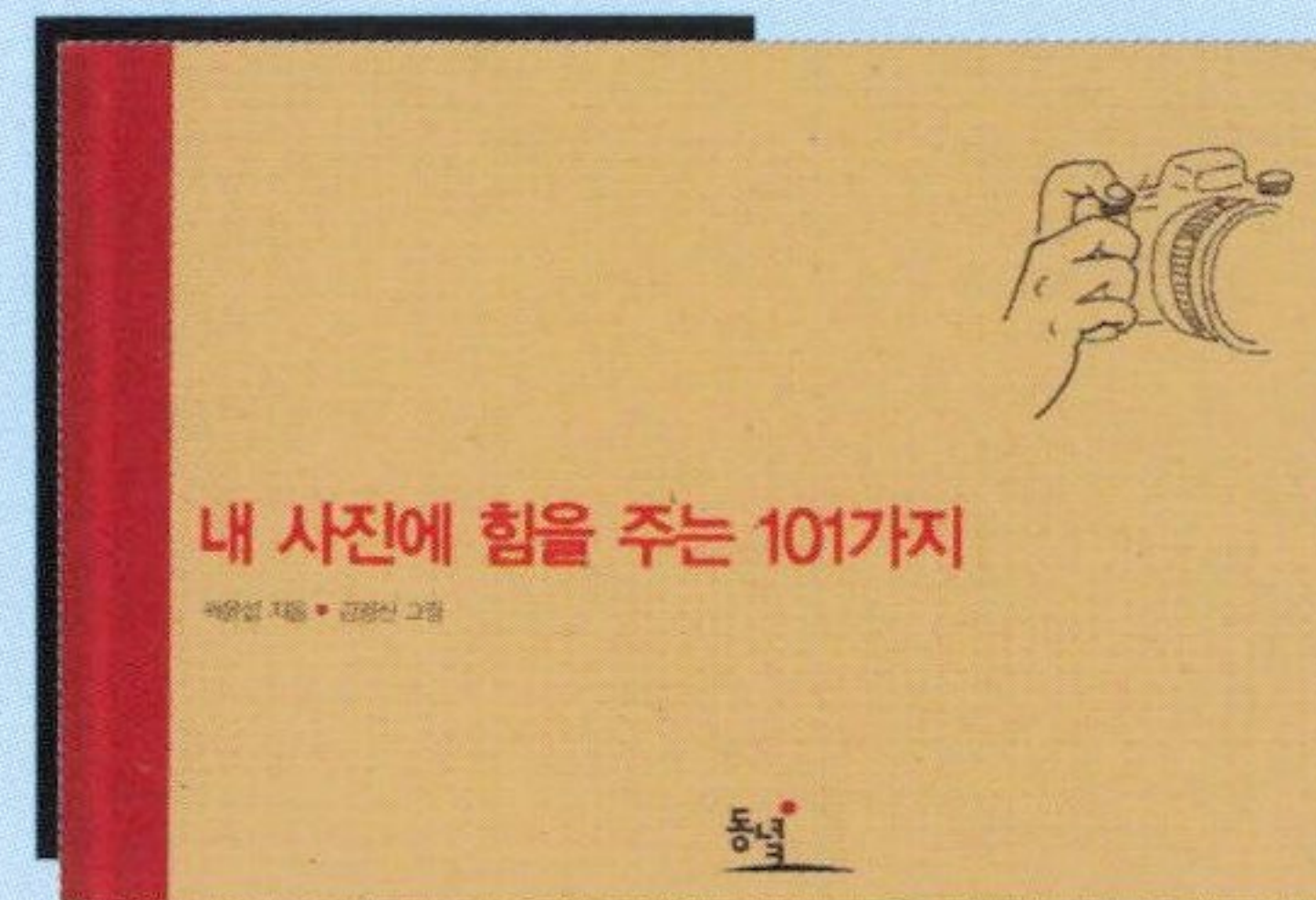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

김치샐러드 지음
학고재 / 325p / 9,800원

개인 블로그에 담긴 영화 소개 이야기가 3백만 블로거가 방문할 정도로 짙은 감동을 주었고, 마침내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기존의 영화해설서가 영화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만 접근했다면 27세의 윤영진 씨가 영화를 소개하는 방식은 특별하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네티즌들의 어법(패러디, 합성 이미지 등)과 만화 형식으로 영화를 소개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열화와 같은 공감을 끌어낸 것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날로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현대인은, 특히 젊은이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을 스스로 견디어내느라 힘들다. 저자의 블로그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은 인터넷 세상에서 부유하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위로했고, 수많은 네티즌들을 감동시켰다. 저자의 영화 소개방식은 영화와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자료와 이미지들을 사용한 새로운 형식의 '그림 드라마(영화+이야기)'이다. 총 12화에 걸쳐 그림 이야기와 삶과 죽음, 진로, 인터넷 문화에 관한 고민이 생생한 캐릭터의 힘을 빌려 전개된다. 네티즌들이 감동한 교감의 흔적들은 책의 각 에피소드 말미에 수록한 '덧글/작가 이야기 및 관련 미술관 사이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내 사진에 힘을 주는 101가지

곽윤섭 지음, 김경신 그림
동녘 / 101p / 10,000원

휴대폰에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사진은 너무나 흔해져 버린 세상이다. 하지만 마음에 꼭 드는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사진 잘 찍는 방법을 다룬 책과 포토샵에서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을 다룬 책까지 관련도서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모두가 값비싼 DSLR 타령에, 구도 잡는 법, 노출 맞추는 법, ISO 조절하는 법 등 수도 없는 많은 기능들의 설명이 나열되어 있다. 게다가 화려하고 잘 찍은 사진에 기가 죽을 지경이다. 하지만, 이 사진 책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진이 한 장도 없다. 사진 대신 간략한 그림과 간결한 설명이 있다. 한겨레신문 사진기자인 저자는 “이 책엔 사진을 한 장도 실지 않았다. 사진기술서와 이론서를 보면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의 자료사진이 등장한다. 아름다운 모델이나 멋진 풍경을 찍은 것이 많은데 그런 대상은 누가 찍어도 멋지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상황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를 자주 보았다. 그래서 이 책엔 그림으로 대신했다. 독자들의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목적이며 더 재미있고 쉽게 보여 주기 위해서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당장 사진을 찍으러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슈베르트 Franz P. Schubert,
1797. 1. 31~1828. 11. 19, 오스트리아

피아노 5중주 A major,
Op. 114 D. 667 '송어(Trout)'

김 중 옥_ 부산교통공사 전동차 음악방송제작단장

제가 소장하고 있는 LD(Laser Disc) 중 전설급 영상물을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LD는 작곡가 슈베르트가 가곡 '송어(1817년, D550)'의 선율을 테마로, 그의 나이 22살 때 작곡한 피아노 5중주곡 '송어'로 작곡자나 연주자들의 젊음이 신선하게 담겨진 실내악 작품입니다. 특히 이 영상물은 '살아있는 전설의 앙상블', '역사적 현장을 보는 영상물',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천연기념물감이다' 등등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는 명반으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연주자들이 다시는 결코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역사적인 현장의 소리를 녹음한 명반입니다.

이 LD에는 지금은 67세의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로 마에스트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니엘 바렌보임(Daniel Barenboim, 1942년 11월 15일~, 이스라엘)의 27살의 옛된 모습과 22년 전 불치의 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그의 부인이자, 완전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가볍고 섬세한 감정을 표출한다는 전설의 첼리스트 재클린 뒤 프레(Jacqueline Du Pre, 1945년 1월 26일~1987년 10월 19일, 영국)의 당시 24세 때 신혼시절(1967년 9월 결혼)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도 중후한 연주로 세계 음악인의 박수를 받고 있는 바이올린의 이자크 펄만(Itzhak Perlman, 1945년 8월 31일~, 이스라엘), 비올라의 핀처스 주커만(Pinchas Zukerman, 1948년 7월 16일~, 이스라엘), 그리고 20세기말의 세계적인 대 지휘자이자 동양의 3대 지휘자(우리나라의 정명훈, 일본의 세이지 오자와)인 주빈 메타(Zubin Mehta, 1936년 4월 29일~, 인도)의 더블 베이스(Double Bass) 연주 모습은 대가들의 미래를 보는 듯한 정확하고 명쾌한 연주력이 돋보이는 세기의 명반으로, 나의 애청음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가들이 한자리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영상물이지만 안방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연신 클리닝을 하며 시청을 하고 있지요. 이 LD는

1969년 8월 30일
런던 뉴 퀸 엘리자베스 홀(New Queen Elizabeth Hall)의 라이브 연주를 알레그로 필름(Allegro Films)이 영상으로 제작하고 다시 1990년 독일의 텔덱(TELDEC)에서 디지털로 재편집한 것으로 필자가 1991년 2월, 일본 출장 중 大阪, 梅田(Umeta), 지하상가에서 구입했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인 '송어(Die Forelle)'는 작품번호(D550)를 달리하여 피아노 5중주보다 2년 빠른 1817년에 작곡한 곡으로, 유쾌하고 명랑한 송어의 뛰노는 광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거울같은 강물에 송어가 뛰노네 / 화살보다도 더 빨리 헤엄쳐 뛰노네
나그네 길 멈추고 언덕에 앉아서 / 거울같은 강물에 송어를 바라보네
젊은어부 한 사람 기슭에 서서 / 낚싯대로 송어를 낚으려 하였네
그걸 내려보면서 나그네 생각엔 / 거울같은 물에서 송어가 잡히라
그 어부는 마침내 피를 내어 / 흙탕물을 일으켰노라 아 그 송어떼가
모여들어 이윽고 송어를 낚아 올렸네 / 마음이 아프게도 나는 그것을 보았네

피아노 5중주곡 '송어'는 5악장 전체를 통해 생기가 있고, 신선하고, 상쾌함으로 넘쳐 흐르고, 청년다운 생생함으로 가볍고 경쾌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입니다. 이 곡은 일반적으로 피아노,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5중주곡과는 달리 악기 구성에 더블베이스(콘트라베이스)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곡의 이름이 부쳐지게 된 4악장은 '송어'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다섯 개의 변주곡이 이어지며, 전 악장에 걸쳐 피아노는 아름다운 선율을 수놓고 주제와 쾌활한 성격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생기발랄, 풍부하고도 색채적인 인상을 남겨주는데 인색하지 않는 피아노 5중주의 최고봉이라 생각합니다.



한낮의 유 콘서트

오월! 일 년 중 가장 행사가 많은 달! 그런 가운데 유 콘서트는 나를 위한 행사였다. '스위트 홈 콘서트', 다양한 색깔의 음악으로 가족애를 이야기하며 감동을 나누려는 지휘자의 마음이 편안하게 전달되었다. 자연의 소리와 가장 닮아있는 오카리나와 오보에의 음색 또한 마음을 움직이는 잔잔한 물결이었다. 이날의 잘 차린 클래식 밥상 중에서도 특히 소프라노 이재운 씨의 '인형의 노래'는 실험적이고 색다른 맛이 정말 일품이었다.

- 최형화(금정구 장전2동)

부산시립합창단 '共感 7080 가요합창음악회'

부산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잊혀져 있던 아련한 추억들을 되새겨본, 가슴설레는 좋은 시간이었다. 또각또각 걸어오는 빨간구두 아가씨를 보며 쓰러지는 총각들, 머리에 빨간 리본 달고서 '꽃 사시오~'를 외치는 남성합창단을 떠올리며 절로 피식 웃게되는 부산시립합창단의 '共感 7080 가요합창음악회'는 나에게 있어 생활속의 또 하나의 활력제이다.

- 임은순(동래구 안락동)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연산'

폭군 연산일까? 성군 연산일까? 초등학교 두 아이들을 데리고 연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부산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 '연산'을 보고 연산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 세련된 무대와 강렬한 극적인 조명들, 그리고 단원 한 분 한 분의 춤 동작과 표정들이 어쩔 그렇게 멋있던지... 정말 한편의 뮤지컬을 본 느낌이 들었다. 벌써부터 하반기 정기공연이 기다려진다.

- 김정숙(남구 용호동)

연극 '염쟁이 유씨'

여러 사람의 입소문을 타고 타서 드디어 보러갔다. 우아~ 한명의 배우가 15역을 맡아 연기를 하다니... 모노드라마는 처음 접하는거라 처음엔 지루할거라 생각했는데, 배우 한명에게 완전 압도되었다.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관한 흔치않은 주제! 배우 유순웅씨 덕분에 잊지 못할 공연이었고 추억을 만들었다.

- 김현영(서구 서대신동2가)

연극 '라이어 1탄'

몇 년 전부터 재밌는 공연으로 유명해서 꼭 한번 보고 싶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소극장으로 갔는데, 처음부터 그 분위기에 사로잡혔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다. 스피드한 전개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게 많이 웃고, 많이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맘껏 웃기만 한 공연이었다.

- 김현주(부산진구 부암1동)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향 전문점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6077~8)

부산문화회관 극장 명칭 공모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산문화회관의 극장명칭을 극장 특성에 맞는 특화된 명칭으로 바꾸기 위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부산문화회관 극장 명칭 시민 공모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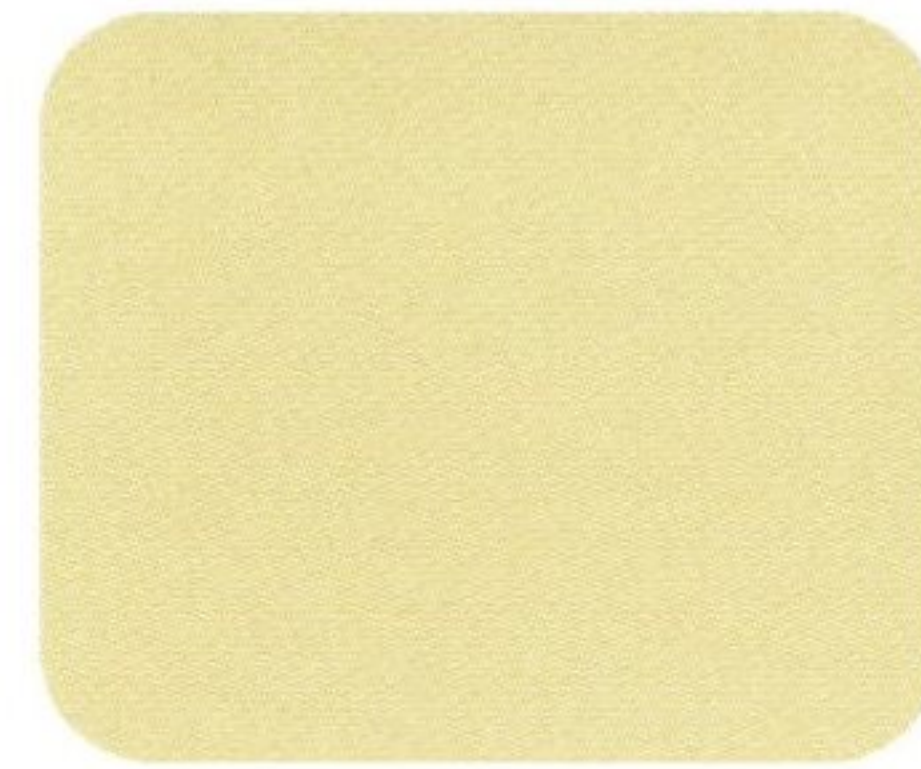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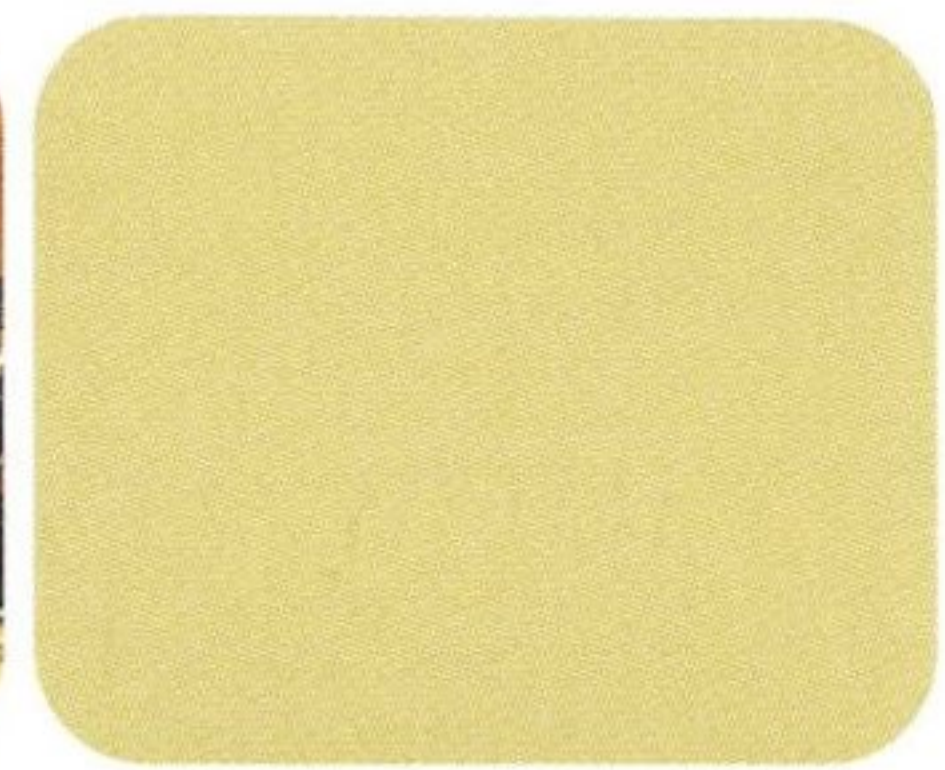
2008년 개관 20주년을 맞아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 중인 부산문화회관은 중, 소극장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되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극장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해 부산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5월 25일(월)~6월 12일(금)
- 주 제 : 부산의 대표적인 예술의 전당으로서 3개의 공연장(대·중·소극장) 특성을 부각시키고, 독자적이고 특화될 수 있는 명칭과 의미
예시) 대극장-환희홀(연주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고 베토벤을 연상케 함)
중극장-기쁨홀(사랑스런 연주인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음)
소극장-낭만홀(공연분위기를 함께 호흡할 수 있어 낭만을 느낌)
- 응모자격 : 부산시민 누구나
- 접수방법 : 1인 3작품이내
- 제출서식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ulture.busan.kr)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자유서식도 가능(자유서식은 명칭, 제안사유, 기본인적사항은 반드시 포함)

- * 당선작 발표 : 2009. 7.3(금)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 시상내역 : 당선작 1명 30만원(상당 문화상품권), 우수작 2명 각20만원(상당 문화상품권)
장려 5명 각5만원(상당 문화상품권)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051-607-6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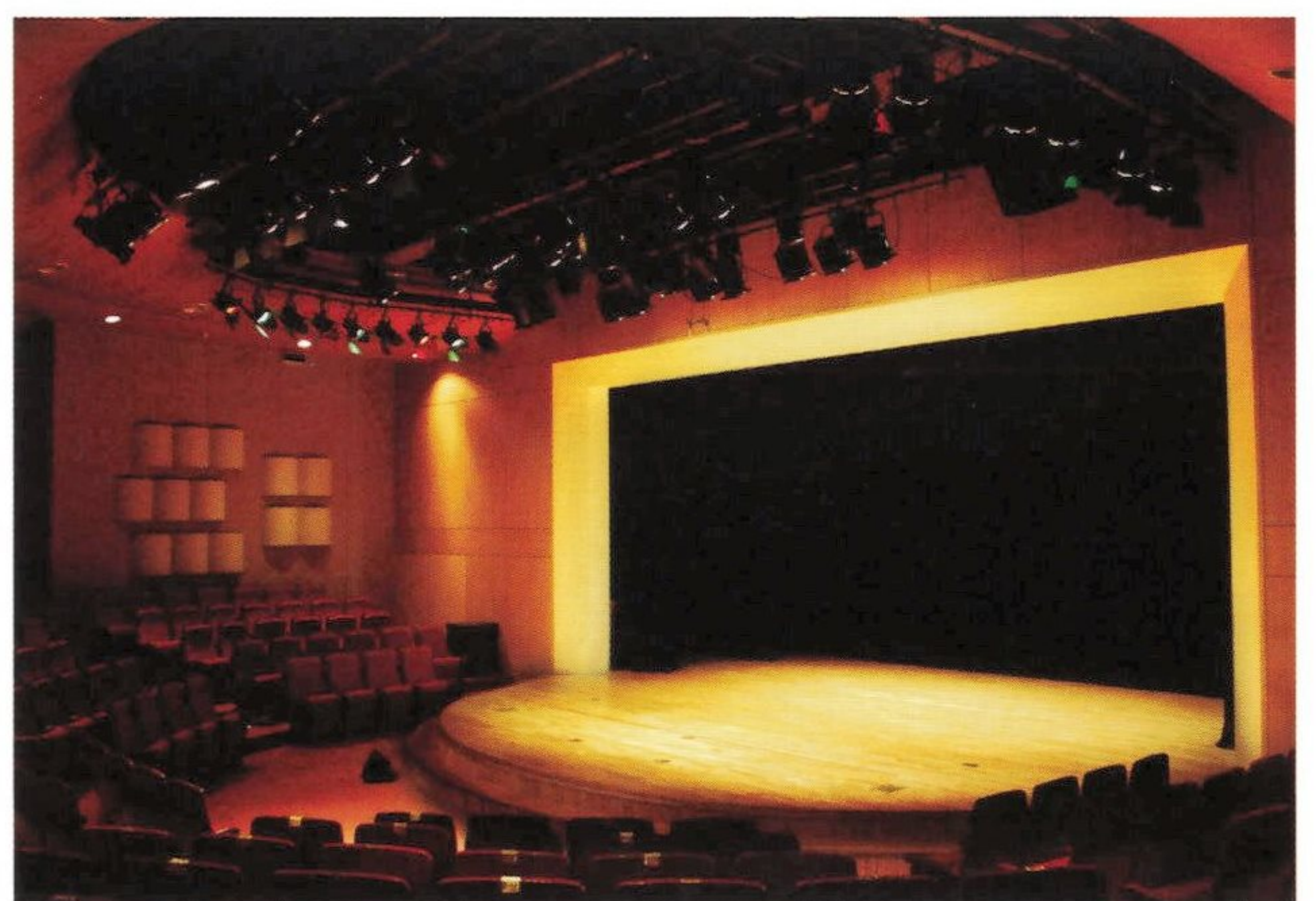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새롭게 단장

2009년 3월부터 2개월간 무대 보수공사를 실시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 부산국제연극제 10분 연극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새롭게 단장된 소극장은 공연 관람에 지장을 준 무대 높이 110cm를 45cm로 낮추어 관객의 눈높이에 맞추었고 노후된 음향설비를 전면교체하고 무대 고정 조명바튼은 자동바튼으로 교체했다. 또 무대 이동식 음향반사판을 설치해 연극은 물론 소규모 독주(독창)회, 판소리 공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다.

부산문화회관은 지난해 대극장 분장실을 리모델링한데 이어 2009년 7월에는 소극장 분장실을 전면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6월 공연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직접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6월에도 활발하게 펼쳐진다. 특히 6월 부터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현장을 방문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월 학교현장을 방문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장안제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경남고등학교, 남부민초등학교 등 7개교에서 펼쳐진다.

■ 찾아가는 예술단 6월 일정

- 6. 2(화) 14:30 홀로어른 위로 대잔치-롯데호텔(출연/국악관현악단)
- 6. 2(화) 18:00 함부르크 의장단 환영공연-롯데호텔(출연/국악관현악단)
- 6. 3(수) 13:40 지방세 발전포럼 기념공연-해운대 그랜드호텔(출연/교향악단)
- 6. 4(목) 14:00 부산진구청 초청공연-부산진구청 대강당(출연/국악관현악단)
- 6. 4(목) 19:30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천체관측회 축하공연-연천초등학교(출연/교향악단)
- 6. 5(금) 14:00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장안제일고등학교' (출연/교향악단)
- 6. 5(금) 15:00 중앙고등학교 초청 연주회(출연/국악관현악단)
- 6. 8(월) 19:30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천체관측회 축하공연-고리초등학교(출연/교향악단)
- 6. 10(수) 12:30 시청 로비콘서트(출연/국악관현악단)
- 6. 13(토) 15:00 국립국악원 연주회(출연/국악관현악단)
- 6. 15(월) 15:00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경남고등학교' (출연/교향악단)
- 6. 15(월) 15:00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남부민초등학교' (출연/무용단)
- 6. 16(월) 14:00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반송여자중학교' (출연/무용단)
- 6. 17(수) 15:00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양덕중학교' (출연/교향악단)
- 6. 19(금) 15:00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명호고등학교' (출연/교향악단)
- 6. 19(금) 15:30 신정고등학교 초청연주회(출연/국악관현악단)
- 6. 24(수) 12:30 시청로비콘서트(출연/무용단)

※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45)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5th ANNIVERSARY
유니버설발레단

도키호테

정려한 옷깃과 화려한 무대, 뛰어난 테크닉의 향연!
결혼 해프닝을 둘러싼 스페인풍의 유쾌한 희극 발레!

2009. 10.9(금) 19:30 ~ 10.10(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조기에매 20% 할인
빠른예매로 원하는 좌석을 짚 하세요!
기간 : 2009.6.8 (월) 10시 ~ 6.30 (화) 5시

*티켓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 6058 (전화예매한함)



울타리없는 박물관 경주 남산

31도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동남쪽 31도 방향은 바로 경주에서 동짓날 해가 뜨는 방위인데요, 해가 떠오른 그 순간 진리를 깨달은 싯다르타를 상징하죠.”

초여름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던 지난 5월 8일, 5월 테마여행에 참가하는 정기회원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5월 테마여행은 천년고도 경주 남산. 150군데의 절터와 120체의 불상, 96기의 석탑, 13기의 왕릉 등이 남아있는 경주 남산은 신라 천년역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울타리없는 박물관’이다. 가벼운 산행을 겸한 답사여행이라 경쾌한 등산복 차림으로 모인 정기회원 가족들은 화창한 날씨에 출발 전부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수석단원 장래훈씨가 함께 참여했다.

한 시간만에 도착한 경주는 짙어가는 녹음으로 싱그러움이 가득했다. 이번 테마여행에서는 깊이있는 해설로 답사여행을 이끌고 있는 ‘신라사람들’ 최승욱 문화유산해설가가 함께했다.

이번 답사여행의 첫 방문지는 일명 ‘부처바위’라 불리는 탑곡(탑골) 마애조상군. 높이 9m, 사방둘레 30m의 바위와 그 주변 바위면에 여러 부처상과 탑, 비천상, 승려 등 30여개가 넘는, 남산에서 가장 많은 도상이 새겨진 불교조각의 결정판이다. 마애조상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바위면인 북면은 석가여래가 설법을 하던 영산정토를 표현하고 있다. 연꽃좌상에 앉은 석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9층목탑과 7층목탑 그리고 불국토를 지키는 사자상 등이 새겨져 있는데, 특히 9층목탑은 기단과 탑신, 상륜부 등이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어 몽고군 침입때 불타버린 황룡사 9층목탑의 원형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다음 답사지는 통일신라시대 후반의 석불을 대표하는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보리사 석조여래좌상은 석굴암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동남쪽

아름다운 연화대좌에 앉아있는 이 석불은 자비가 넘치는 얼굴과 유려한 옷자락의 흐름, 화려한 광배(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것) 등 신라시대 불상 중 가장 완전하면서도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또, 특이하게도 광배 뒷면에는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 약사여래좌상이 가는 선각으로 새겨져있다.

오전일정을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본격적인 남산 답사에 앞서 콩나물비빔밥과 통밀 면발과 구수한 들깨가루가 들어간 경주의 별미 칼국수로 이른 아침 출발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오후일정은 신라 석불의 보고라 불리는 삼릉계곡. 출발지점인 삼릉에 가기 앞서 삼국시대 최고 걸작 중 하나인 배리삼존불에 들렀다. 원래 근처 계곡인 선방골에 떨어져 있던 세 부처상을 1923년 이곳으로 옮겨와 세운 배리삼존불은 7세기 신라초기 불상으로, 햇빛의 방향에 따라 부처의 미소가 달라진다는 신비스런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의 본존불은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양 뺨에 천진한 어린 아이의 얼굴처럼 보이며, 왼쪽 협시보살은 보름달 같은 얼굴에 뒤로 둥근 두광을 하고, 왼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어 관세음보살상이라고 불린다. 오른쪽 협시보살은 세 불상 중 조각이 가장 섬세한데, 굵은 목걸이와 긴 영락이 늘어져있고, 두광에는 꽃무늬와 다섯 개의 화불이 새겨져있다.

삼릉계곡에 자리한 부처님들을 만나러 가는 출발점이 되는 삼릉은 신라 8대 아달왕과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세 기의 능이 있어 ‘삼릉’이라 불린다. 사진작가들에게 인기많은 유명한 소나무숲을 지나 처음 만난 부처상은 냉골석조여래좌상. 머리없는 석불좌상으로, 기백넘치는 가슴과 넓은 어깨에서 당

당한 기백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옷주름과 가사끈의 매듭장식이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석조여래좌상 왼쪽 비탈로 오르면 기둥처럼 솟은 큰 바위에 새겨진 붉은 입술의 마애관음보살상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입술부분은 바위의 붉은 색을 그대로 살려 조각한 것이라는 최승욱 문화유산해설사 설명에 회원가족들의 탄성이 이어진다.

다시 석조여래좌상으로 돌아와 계곡을 따라 오르면 넓은 바위면에 여섯분의 부처를 새긴 선각육존불과 마주한다. 이 바위를 마주보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이번에는 높이 10m가량 되는 바위에 새겨진 선각여래좌상을 만날 수 있다. 고려시대 불상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얼굴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으로 그린 듯한 독특한 조각수법으로, 마치 부처가 바위속에서 얼굴만 내미는 듯한 모습이다.

삼릉계곡에서 만난 마지막 부처는 최근 복원공사를 마치고 공개한 삼릉계 석불좌상. 그동안 몇차례 복원공사를 가졌지만 정확한 고증작업을 거치지 않아 엉성한 모습이던 부처상을 최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얼굴 안면의 턱 부분과 깨진 광배를 보수해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부처상 앞에는 발굴될 당시와 이후 몇차례 복원 후 사진이 함께 전시되고 있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남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상선암과 높이 5.2m에 이르는 석가여래좌상을 지적에 앞두고 시간과 체력에 쫓겨 하산을 결정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신라의 과학기술이 결집된 포석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옮겼다.

“포석정하면 신라 경애왕이 이 곳에서 유흥을 즐기다 견훤에 사로잡혀 자결한, 신라 멸망의 상징적인 장소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포석정은 단순한 연희장소가 아닌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공간이자 신라의 과학기술이 결집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석정은 신라의 이궁에 있는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을 하던 유적이다. ‘유상곡수연’은 중국의 명필 왕희지와 친구들이 제사를 올린 후 개울 위에 술잔을 띄워 술잔이 자기 앞에 오는 동안 시 한수를 지어 읊었던 놀이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포석정의 좌우로 꺾어지거나 굽이치게 한 구조에서 나타나는 물길의 오묘한 흐름과 물의 양이나 띄우는 잔의 형태, 잔속에 담긴 술의 양에 따라 잔이 흐르는 시간이 일정치 않았다는 최승욱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에 정기회원 가족들은 다시한번 우리 선조들이 남긴 뛰어난 문화유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모든 답사일정을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래훈씨의 지도로 동래야류의 할미과장 한 부분을 따라 배우며 테마여행을 마무리했다. 답사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했던 정기회원 가족들에게 이번 테마여행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테마여행 협찬 : (주)레임 투어편



7월 함안 아라가야 역사기행

2009년 7월에는 **함안 아라가야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고,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6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6070)

6월 테마여행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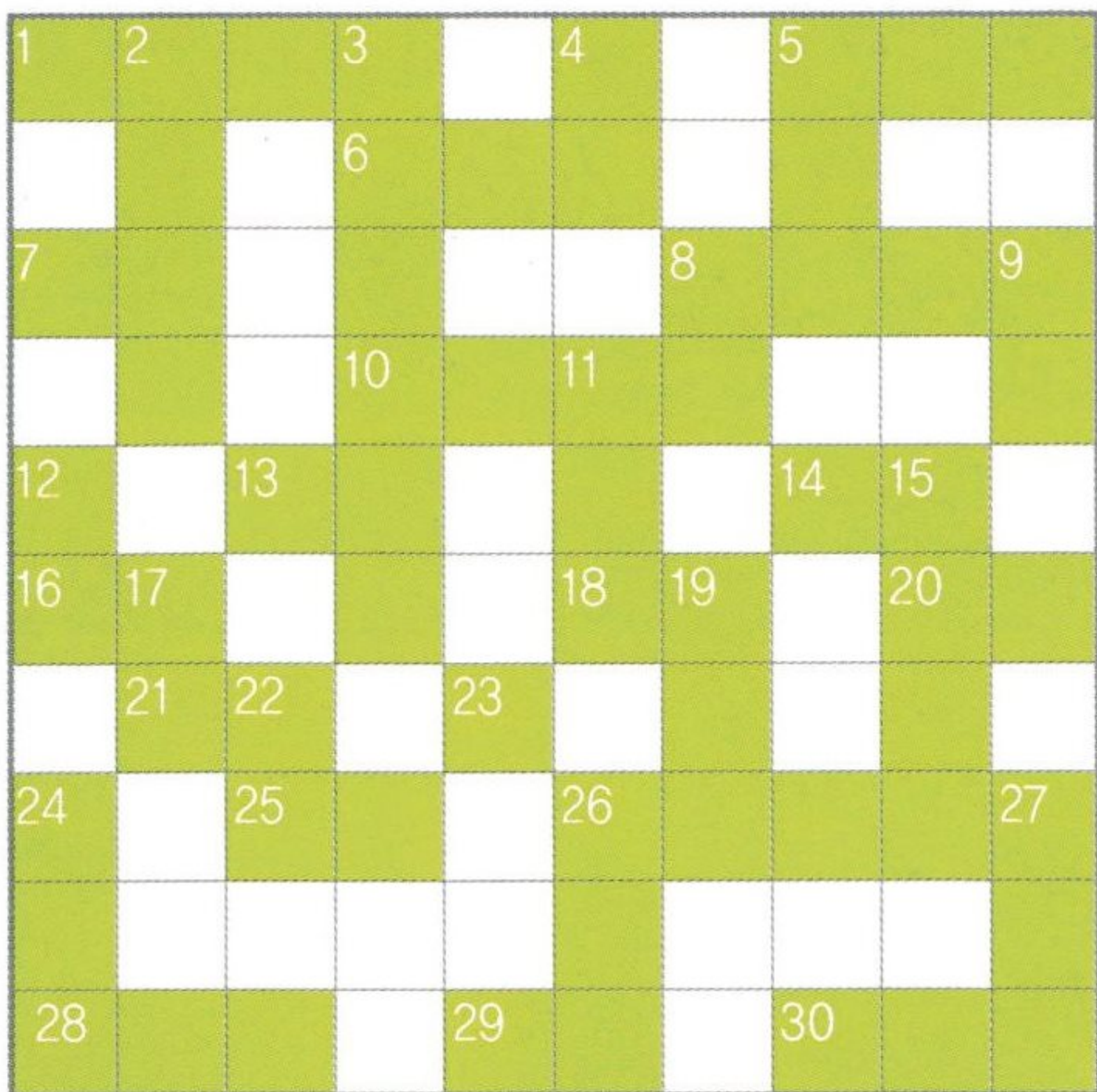
신규가입자

김미진(수영구 남천동)
김명애(금정구 청룡동)
김복래(연제구 거제3동)
김봉화(북구 화명동)
문소정(수영구 광안2동)
박영해(서구 서대신동 3가)
박성희(수영구 남천동)
성범용(연제구 연산7동)
이미정(연제구 거제2동)
홍정남(부산진구 양정동)

엽서당첨자

김충남(부산진구 연지동)
김백운(수영구 광안3동)
손정민(동래 사직동)
신기연(금정구 구서2동)
옥춘희(남구 용호1동)
이현령(남구 용호1동)
임서영(연제구 연산9동)
정창숙(연제구 연산9동)
최창식(남구 용호1동)
황광주(수영구 망미2동)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

- 6월 26일 취임연주회를 갖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10대 수석지휘자.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자 무인족(武人族). 활쏘기에 지장이 없도록 오른쪽 가슴을 도려냈다 하여 부처진 이름이다.
- 캄보디아의 수도.
-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연극. 무연극.
- 악보에서 악곡의 어느 부분을 되풀이하여 연주하거나 노래하도록 지시하는 기호.
- 뚝에 바람을 받아 파도를 타는 수상 스포츠로, 요트 타기와 파도타기를 결합시킨 운동경기.
- 일정한 장소에서 채로 공을 쳐서 가장 적은 타수로 홈에 넣는 경기.

- 농악대, 걸림패 등에서 상쇠의 목말을 타고 춤추고 재주 부리던 아이.
- 농가에서 음력 정월의 첫 자일(子日)에 쥐를 쫓는다고 하여 논둑이나 밭둑에 놓는 불.
- 알프스 지방에서 가성(假聲)을 섞어 특이한 소리를 내어 부르는 민요. 또는 그런 창법.
- 가야금이나 거문고 등의 악기를 타면서 자신이 거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름. 또는 그 노래.
- 1,000년(794년~1868년) 이상 황궁(皇宮)이 있던 일본의 옛 수도로,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이다.
- 한국영화 역대 흥행순위 1위를 기록한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 왕 연산과 궁중 광대 '공길'의 애뜻하고 미묘한 관계를 다룬 연극이다.
- 중세 독일의 옛 전설을 소재로 한 낭만발레의 대명사.
- 세종 때 부사(府使) 정동우가 계모의 학대로 억울하게 죽은 자매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내용으로, 작가, 연대 미상의 국문본과 한문본이 남아 있다.
- 내장과 아가미를 뺀 반건조 상태의 명태.
- 고구려 시조인 동명성왕의 이름.
-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사. 1961년 4월 12일 그를 태운 소련 우주선 보스토크 1호가 1시간 29분만에 지구를 한바퀴 선회비행한 후 착륙했다.

세로

- 6월부터 발행되는 5만원권 신권지폐에 등장하는 인물. 대학자 율곡 이이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 불행한 어린시절을 보냈으나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세계적인 신화로 우뚝 선 미국 토크쇼의 여왕.
- 영화 '밀크'로 올해 아카데미영화제에서 2004년 영화

- '미스틱 리버'에 이어 생애 두 번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 영어로 '우상'을 뜻하며 주로 청소년에게 큰 인기를 얻는 가수.
- 운동경기에서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 시나 글, 노래 등을 창작할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베끼는 행위.
- 훗날 백제의 무왕이 된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를 차지하기 위해 퍼뜨렸다는 향가.
- 신부와 뱀파이어, 살인의 문제를 들어 윤리와 구원, 폭력의 문제를 그린 박찬욱 감독의 신작.
-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 기원전 5세기경 인도의 석가모니가 창시한 종교.
- 보컬 전인권, 베이스 최성원, 키보드 허성욱, 기타 조덕환으로 결성된 198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락그룹.
-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지주 가문의 후손인 최서희와 그 주변인물들의 삶을 통해 재조명한 박경리의 대하소설.
-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최초 발병한 국가. 4월 13일 이 나라에서 첫 사망자를 낸 후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30개국으로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 일본소설 '금색야차(金色夜叉)'를 옮긴 번안소설. 이수일과 심순애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당시 신파극으로 공연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 31살의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수필가 겸 번역가. 재독문학가인 이미륵의 자전소설 '압록강은 흐른다(1959)'를 번역해 유명해졌으며, 유고수필집으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1966)'를 남겼다.

지난호 정답



퍼즐당첨자 명단

■ BS부산은행조은극장

- 강희범(부산진구 범천4동)
- 양윤복(동래구 사직동)
- 옥경희(금정구 장전동)
- 박정희(연제구 거제3동)
- 황정원(해운대구 재송1동)

■ 큰집

- 강남이(동래구 사직3동)
- 김현양(동래구 안락1동)
- 노정자(서구 충무동 1가)
- 류달용(동구 초량2동)
- 박석수(부산진구 범천동)

■ 나랏소

- 서순영(해운대구 반송 3동)
- 성용호(해운대구 우2동)
- 오순희(양산시 평산동)
- 김상희(해운대구 우1동)
- 허정영(북구 엄궁동)

■ 공간 소극장

- 김혜영(부산진구 전포1동)
- 김충남(부산진구 연지동)
- 신영은(동구 초량2동)
- 이경희(연제구 연산5동)
- 장진훈(남구 용호4동)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최고급 부산맛을 곁들입니다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곁들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세계적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9년 6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6월 20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 프로그램

승무(춤/김진영, 악사/장래훈)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인 승무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춤으로서 느린 엄불 장단에 맞추어 긴 장삼을 위로 휘 뿌리어 만들어지는 선과 하얀 고깔 아래 보일 듯 말 듯한 단아한 정취, 사뻐히 걷는 흰 버선발의 날렵한 움직임이 그 특징이다.

괘지나칭칭나네(춤/이상민, 김정숙, 김시현)

경상도 지방의 민요로서 임진왜란으로 고통 받던 민중들이 왜적이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부른 민요 '괘지나칭칭나네' 곡의 의미를 살려 유쾌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을 표현한 창작춤.

도살풀이춤(춤/이정인)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인 도살풀이춤은 무속(巫俗)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살(액)을 푼다는 뜻이 담겨 있다.

무천의 춤(춤/김주령, 권봉정, 박창희)

하늘에 풍년을 빌고 추수를 감사하고 부족 간의 친목을 꾀하는 내용을 춤으로 표현한 창작춤.

성주허튼춤(춤/황선희)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한 후에 다시 성주를 받아들이는 성주굿에서 무당이 복을 빌어 부르는 노래인 성주풀이에 맞춰 추는 허튼춤으로 한국춤의 기본형과 기복 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천생연분(춤/박은혜, 황대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남녀 사랑의 춤으로 표현한 작품.

설장고춤(춤/이현주(A), 이현주(B) · 악사/성현우, 허태성, 김윤호, 김기원, 박상용)

설장고춤은 장고를 치며 춤을 추는 농악의 장고춤에서 발전된 춤으로 역동적인 설장고 가락과 맵시 있게 어우러지는 춤이 매력적인 작품.

· 안무, 구성/홍기태(예술감독) · 해설/이현숙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합창단 '해와 달과 별과 사랑'

□ 프로그램

태양찬가(W.A.Mozart)

햇빛이 비치면(Noibrand)

오 나의 태양(Di Capua)

가을달(Willan)

월광곡(Beethoven)

세레나데(Schubert, Arr.최석태)

작은 별 변주곡(Arr.최석태)

별(이수인)

우리가 어느 별에서(Arr.백현주)

내 맘에 간직해 온 사랑(Rubin Stein, Arr.최석태) 등 수곡

□ 출연

· 지휘/ 박광하 · 피아노/ 이승윤

소프라노/이정란, 전귀만, 기미현, 홍승현, 이정희, 김나영, 양은제, 정루디아, 김혜란

알 토/손미숙, 김성미, 안소영, 배소영, 신소운, 김윤희, 백지은

테 너/강종철, 김진영, 박성환, 조성기, 최춘식

베 이 스/최영수, 최성규, 이정철, 박원한, 오승중, 이연기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2009년 7월 10일(금) 함안 아라가야 역사기행

6가야의 맹주국으로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함안으로 떠나는 역사기행.
아라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함안의 주요 유적지 답사와 과일 향 가득한 칠북과수마을에
서 농촌 체험시간을 갖는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함안 도착, 함안박물관,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무진정-고려동 답사
- ▷ 12:30 중식
- ▷ 13:30 칠북과수마을 도착, 거봉따기 체험
-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 출발



▶ 2009년 8월 14일(금) 여름방학 특별기획

'기차 타고 떠나는 청도 여름 여행'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청도의 여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복숭아 따기 체험을 시작으로
청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청도읍성, 청도의 정신이 담긴 자계서원, 청도 팔경의 하나인 유
호연지를 방문, 방학을 맞은 가족들과 함께 역사탐방 시간을 갖는다.

- ▷ 08:30 부산역 집결
- ▷ 09:10 부산역-무궁화호 출발
- ▷ 10:10 청도 도착, 복숭아 농원으로 이동
- ▷ 11:00 복숭아 따기 체험 및 이벤트
- ▷ 12:30 중식
- ▷ 13:30 자계서원, 청도석빙고, 청도읍성, 유호연지 등 청도문화유적지 탐방
- ▷ 15:30 아트갤러리 청담 도착, 전시 관람
- ▷ 16:00 찾아가는 예술단 음악회(출연/부산시립교향악단)
- ▷ 16:50 청도역으로 이동
- ▷ 17:30 부산행 기차 탑승
- ▷ 18:36 부산 도착, 해산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8월 테마여행은 열차 예매관계로 엽서 추천 일정을 앞당깁니다.
6월 10일까지 테마여행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천인원 : 15명 ■발 표 : 6월 11일 추천후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오아시스세탁소습격사건 **10%** 할인



▶ 날짜: 2009. 5. 22(금)~6. 21(일)
▶ 시간: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균일 25,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2009. 1. 1(목)~12. 31(목)
▶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점프 20% 할인

화-금요일 20시 / 토요일 16시, 20시 / 일 · 공휴일 15시, 18시

IBK (해운대그랜드호텔 B1) 50,000원(R석) / 40,000원(S석)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당신의 피부속을 진단해 드립니다"

맛사지 무료체험권

DR▲QU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영된 놀라운 피부혁명*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잔주름 / 검버섯

닥터▲큐 남천점 Tel. 622-6901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실시*

The early years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응모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희망하는 달 · 7월() · 8월()
-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이번호에서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6070)
-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21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 혜택

해외여행행비 5% 할인이벤트!!



* 하나투어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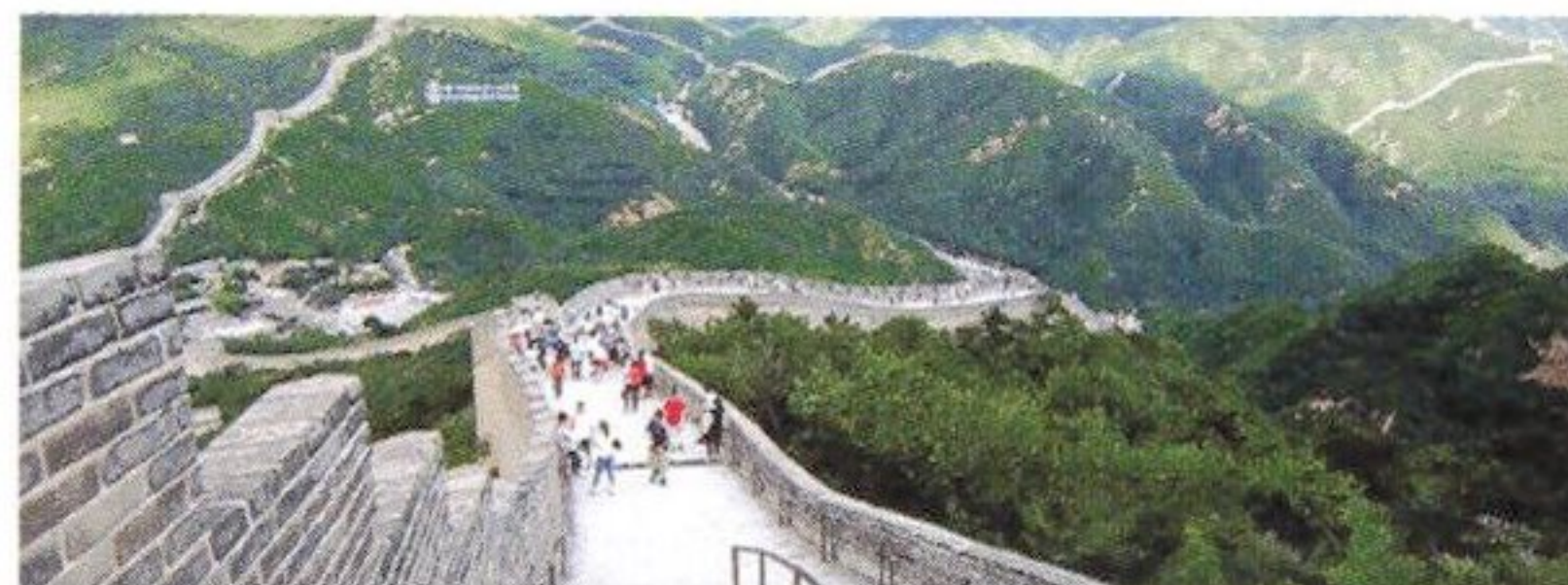
하이하나

시원한 6월 특가여행

여행의 내용은 알차게
여행요금은 저렴하게



일본속의 네델란드
하우스텐보스 (카멜리아) 3일
JKP751 279,000원~



[알찬북경] 대한항공
북경/만리장성/798예술거리 4일
CNP751 349,000원~



호텔 업그레이드 ↑
디스커버리 투어 방콕/파타야 4일
AAP701 399,000원~

핫!쇼핑시즌 홍콩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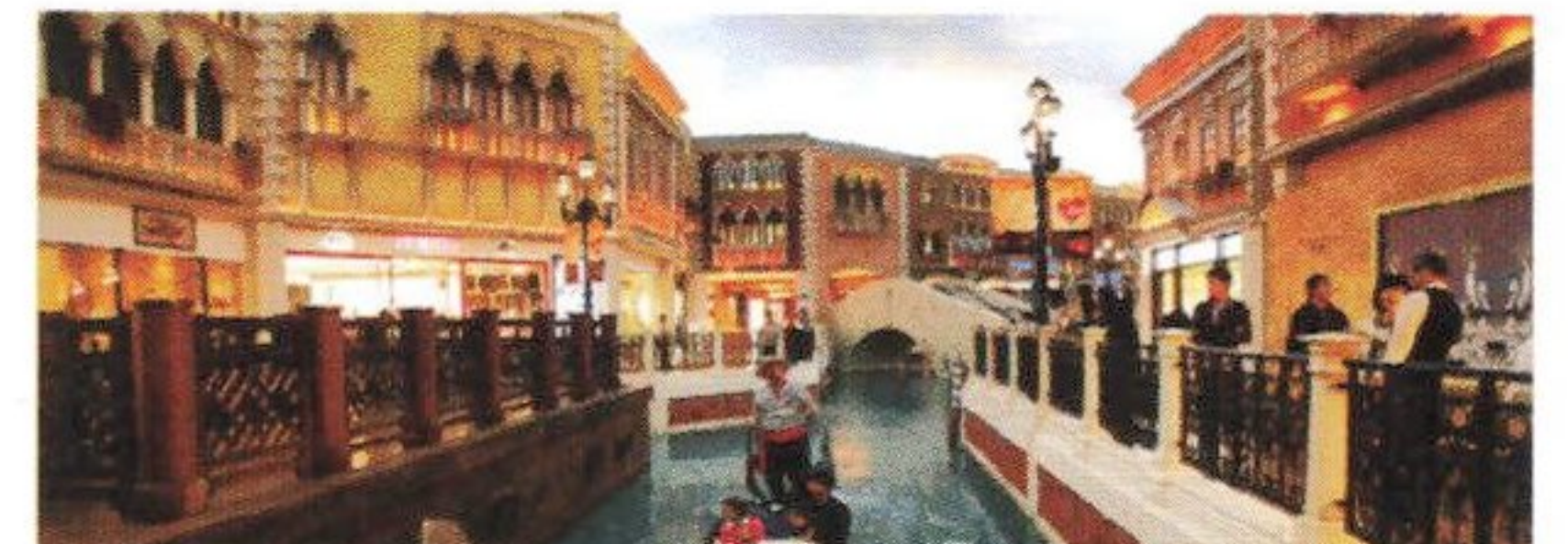
6월은 홍콩 쇼핑시즌
나는 알뜰파!



실속파 초특가
홍콩 (부산출발) 4일
CHP701 479,000원~



패키지여행 + 자유여행
홍콩 관광 + 자유여행 3일
CHP707 629,000원~



홍콩의 모든것
홍콩/마카오/심천 4일
CHP704 829,000원~

미리 떠나는 여름휴가

7, 8월을 피해 떠나는
여유로운 휴가여행



초여름 특가
사이판 일급 리베라 5일
PSP708 399,000원~



초여름 특가
사이판 일급-하파데이 크리스탈 5일
PSP711 59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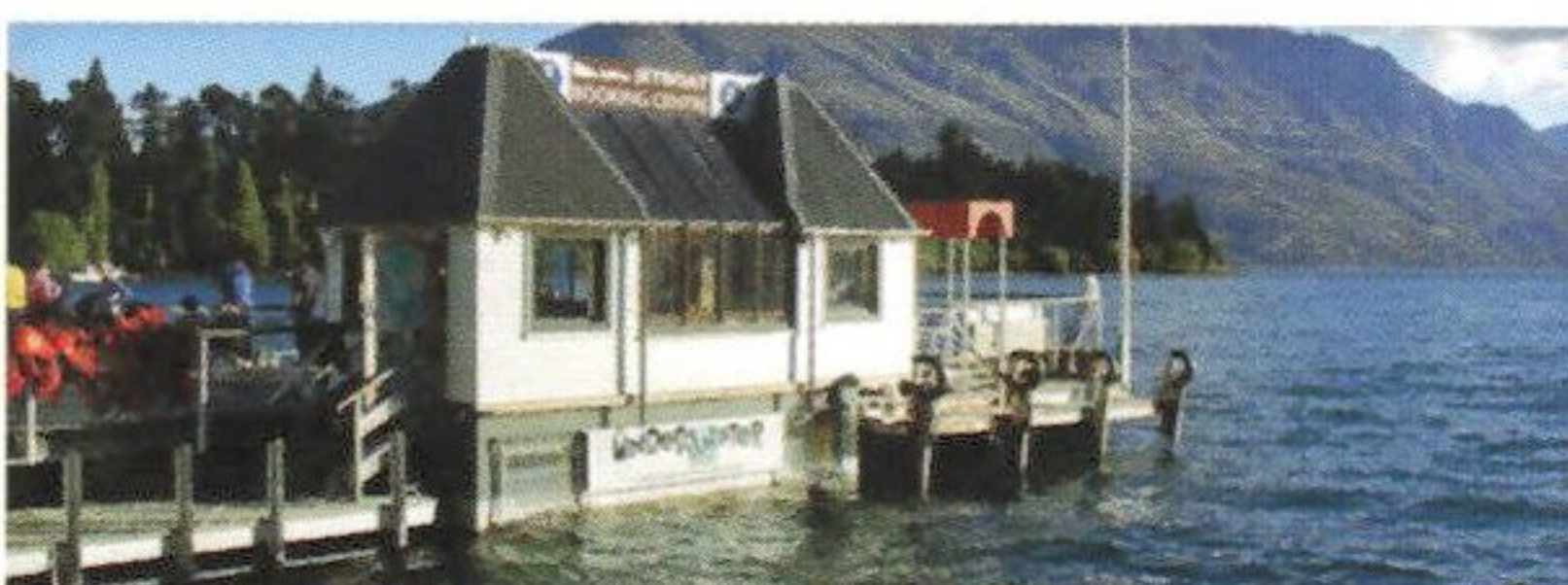
[가족애발견] 4인가족만
사이판 월드리조트 골드 5일
PSP703 799,000원~

강력추천 계모임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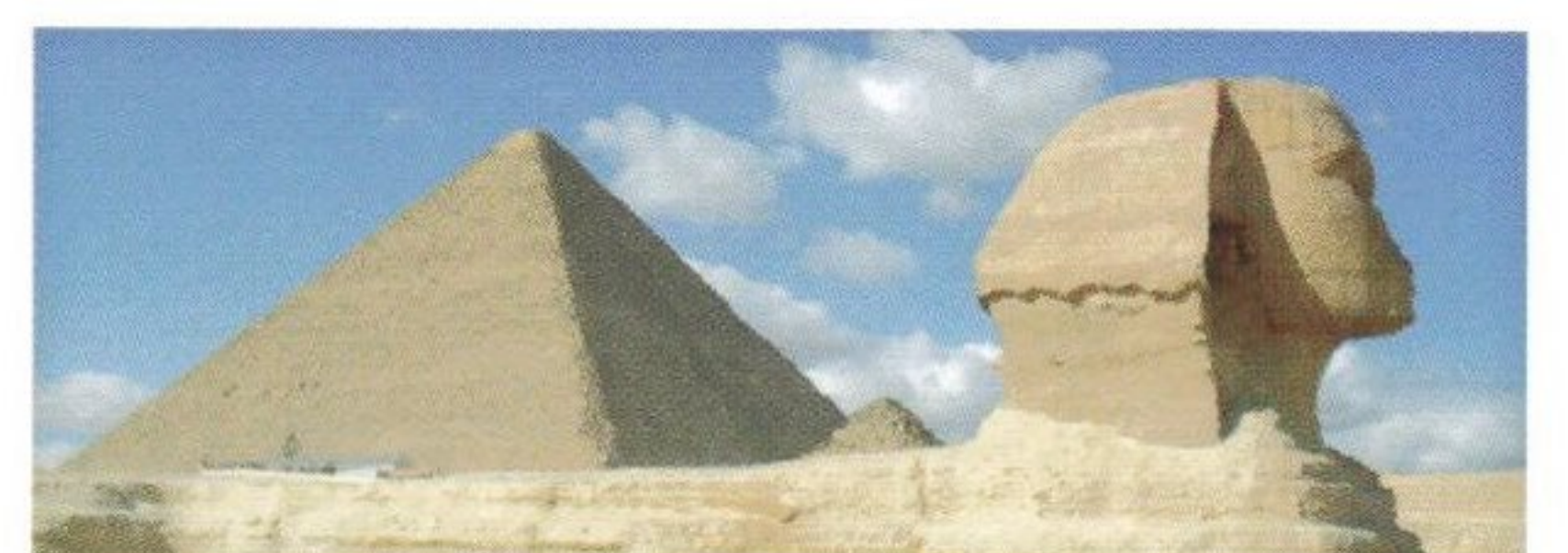
아내.. 그리고 친구와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고품격 투어
베트남 하롱베이/양코르왓 6일
AVP701 699,000원~



자연주의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PAP745 1,990,000원~



지중해의 바람과 햇살
그리스 터키 이집트 + 룩소 9일
EMP352 3,290,000원~



하이든 서거 200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50회 정기연주회

제10대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취임연주회

Li Xincao

R.슈트라우스 교향시 「돈 후안」
하이든 교향곡 제96번 「기적」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2009. **6.26** (금)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후원 **THE DAILY FOCUS**

문의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www.bsculture.busan.kr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예매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BS 부산은행 전지점